

11-18-2000

현대 청년문화를 통해 본 공군사병들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수 립에 관한 연구

Ki Sik Woo 우기식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우기식, "현대 청년문화를 통해 본 공군사병들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0.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EFFECTIVE MINISTRY STRATEGIES FOR AIR FORCE SOLDIERS

written by

KI SIK WOO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g Hee Lee

Jeong kii Min

Seyoon Kim

November 18, 2000

**EFFECTIVE MINISTRY STRATEGIES
FOR AIR FORCE SOLDIERS**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KI SIK WOO

NOVEMBER 2000

현대 청년 문화를 통해 본 공군 사병들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이상희 교수

우 기 식

2000년 11월

ABSTRACT

Effective Ministry Strategies for Air Force Soldiers

Woo Ki Sik

Doctor of Ministry

2000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this Ministry Focus Paper, my research began with analyzing the current problems in Air Force Churches as well as predicting changes for the future of Air Force Churches. Furthermore, Air Force Churches in Korea are used for the case of this paper.

The outlin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as follow: First, I introduce the trouble with classic Korean culture and modern youth culture. Second, I build theoretical base for ministry of modern Air Force Man. More specifically, I study between modern Korean Culture and classic one. Third, I survey characteristic aspects for the culture of modern Air Force Man. I explain the trouble between classic and modern gen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Fourth, I make an effort to establish ministry strategies for modern Air Force Man. They begin with examine several aspects of Air Force Churches. Fifth, I suggest new program to effective ministry strategies. They include three aspects as church system, service and special programs. Lastly, I conclude with the practical role of the church.

In this study, I confess that it is not an easy task because of lack of data in this part. Thus, I wish to see more extensive and in depth study of this particular subjects.

Theological Mentors : Sung Hee Lee, Ph. D.

Jeong Kii Mi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말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공군 선교 사역을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군교회와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멋있는 모습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김세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이성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아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항상 후원해 주신 우영상 아버님과 김분이 어머니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신 장모님 김경자 권사님과 장인이신 고 김봉대 안수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김승신 사모, 그리고 다소 거칠지만 언제나 기쁨을 선사해 주는 든직한 두 아들 우경윤과 우경찬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맡기신 공군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우기식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글	i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동기 및 목적	1
제 2 절 내용 및 방법론	4
제 2 장 목회의 근거로서의 복음과 문화	6
제 1 절 복음과 문화의 이해	6
1. 종교와 문화	6
가. 문화	6
나. 종교와 문화	13
2. 복음서의 복음선포와 문화	19
가. 마가복음의 이해	19
나. 요한복음의 이해	25
3. 선교전략과 문화	33
가. 선교의 개념	33
나. 선교에 있어서의 선교전략의 의미와 필요성	34
제 2 절 한국문화의 이해	36
1. 한국문화의 정의	36
2. 한국문화의 전통성과 현대성	41
제 3 장 현대공군 사병문화의 역사 특성	43
제 1 절 공군군종사	43
1. 공군군종사 개관	43
2. 연도별 군종사	46

가. 창설 / 개척기: 1952-1960	64
나. 성장기 / 1961-1970	74
다. 부흥기 / 1971-1980	84
라. 도약기 / 1981-현재	9
제 2 절 1990년대 이후의 현대 청년문화 역사	9
1. 청년과 청년문화에 대한 정의	50
2. 현대 한국 청년문화의 진단	54
3. 전통 한국문화와 현대 청년문화와의 갈등	57
4. 청년문화와 기독교	60
제 3 절 군대문화	62
1. 군에 대한 다양한 정의	62
2. 군대문화의 특성	64
가. 공동특성	66
나. 계급별 특성	68
3. 군대문화와 현대 사병문화	71
제 4 절 공군 사병문화의 특성	72
1. 공군문화의 특성	72
가. 공군문화와 타국문화와의 차이점	74
2. 공군 사병문화 특성	79
제 4 장 현대 공군사병들을 위한 전략의 수립	81
제 1 절 현대 공군사병들에 대한 목회적 장애요소 분석	81
1. 공군조직상의 문제점	81
2. 공군 군종목사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	82
3. 공군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87
제 2 절 현대 공군사병들에 대한 공군교회의 선교현황 조사	91
1. 공군교회의 선교 프로그램 분석	91
가. 조직 및 관리분석	91
나. 예배분석	92
다. 특별행사 프로그램 분석	93

2. 사병문화의 적합성 분석	107
제 5 장 현대 공군사병 목회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시 및 발전	108
제 1 절 현대 공군사병 선교 및 영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	108
1.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의 필요성	108
가. 전국 신자화 운동의 선교신학적인 배경	108
2.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	114
3. 현대 공군사병에 대한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	114
가. 훈련소교회와 자대교회와의 효율적인 연결과정 수립	114
나. 교인입력 및 자료통합 작업	115
다. 자대에서의 효과적인 교과과정 수립	120
제 2 절 새로운 전략의 개발	121
1. 새로운 조직 및 관리기법 개발	121
가. 전입신병 관리기법 개발	121
나. 기존사병 관리기법 개발	124
2. 새로운 예배모델 개발	127
가. 주일 낮 예배	127
나. 주일 저녁 예배	128
다. 특별예배	129
라. 수요일예배	129
3. 새로운 특별 프로그램 개발	129
제 6 장 결 론	134
부록 1	138
부록 2	144
부록 3	149
부록 4	157
부록 5	160
부록 6	163

참고문헌	168
VITA	172

표 목 차

〈표 1〉 신세대 출현의 시대적 배경	56
〈표 2〉 문자 세대와 영상 세대의 가치관	59
〈표 3〉 조직 이념, 목표, 지표(vision), 지향 가치, 운영목표(지휘방침)	65
〈표 4〉 각군의 상징체계	77
〈표 5〉 대군인식, 입대동기 매체 이미지, 인력충원, 응집력 정도, 전통 등	78
〈표 6〉 신우회 사역의 장애물	82
〈표 7〉 군종목사로서의 경력	83
〈표 8〉 군종목사의 연령대	83
〈표 9〉 입대 전 신세대 청년들에 대한 사역경험	84
〈표 10〉 사역기간	84
〈표 11〉 입대 전 사역경험이 입대 후 군대신우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	85
〈표 12〉 예배출석률	85
〈표 13〉 공군사역에서 중요한 대상	85
〈표 14〉 신세대 청년들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경험 및 그 지속성 여부	86
〈표 15〉 신세대 청년들을 주제로 한 서적들에 대한 연구여부	86
〈표 16〉 신세대 사병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87
〈표 17〉 공군교회와 공군사역에 있어 신우회가 차지하는 비중	88
〈표 18〉 신우회에 대한 관심도	87
〈표 19〉 교회 연간 예산 중 신우회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89
〈표 20〉 신우회예산의 정도	89
〈표 21〉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	90
〈표 22〉 적절한 신우회예산 비율	90
〈표 23〉 교육사 / 공군전체 세례자 비율	91
〈표 24〉 중요한 신우회 사역	93
〈표 25〉 교육부대 교회 특별 프로그램	94
〈표 26〉 방공포 사령부 및 예하부대 교회 특별 프로그램	96

〈표 27〉 비행단교회 특별 프로그램	98
〈표 28〉 30방공관제단교회 특별 프로그램	104
〈표 29〉 초기의 합동세례식	109
〈표 30〉 군신자 증가와 사고 감소표	110
〈표 31〉 사병교육 도표	123
〈표 32〉 J 교회 예배참석률	12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동기 및 목적

복음은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야만 복음전도의 참된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집단생활을 해 나가며 필연적으로 집단고유의 생활양식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광의의 의미에서 문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복음이 그 대상인 사람들과 연결이 되려면 대상인 사람들이 속한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는 언어의 역동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메시지를 현대의 독자들이 원래의 독자들이 감명을 받았던 것처럼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 그러므로 메시지는 현장화 되는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 적절히 변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군대는 일반사회와는 달리 독특한 문화구조를 가지고 있다. 군대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목적을 완수해 내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목적 지향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그 문화구조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독특한 부분은 전통적으로 군대가 가지는 목적에 사람들을 맞추어 왔지 결코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교, 하사관, 병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계급구조를 가지고 명령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강요로 인해 제일 하층계급인 사병들이 겪는 갈등은 그 깊이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 전통적인 군의 핵심적인 구조는 오랜 기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교의 문화구조와

1) Eugen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Brill, 1964), 159.

맞물리면서 가장 보수 지향적인 집단으로 변모되었다. 물론 군대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를 이끌어 가고 전국민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개발도상국의 상태를 점점 극복하게 되면서 사회의 선진그룹으로서의 군에서 사회로부터 점점 뒤떨어지는 군으로 그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군은 사회가 후진적일수록 진보적이나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다.²⁾

이처럼 문제는 군대는 집단이 지향하는 목적상 그 변화의 속도와 깊이가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며 점점 보수주의 집단이 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초기현대사에 있어서 한국군대는 한국사회의 엘리트를 양성하며 문맹률 퇴치에 기여하는 등 국민적인 교육 및 정신도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왔다. 그러나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점점 국가가 중진국으로 근접해 감에 따라 고유의 역할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사회에 뒤쳐지는 보수주의적인 집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군에는 한국사회가 겪는 것과 같이 심각한 세대차이가 존재함으로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즉 군을 지휘하는 세대는 6.25세대로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배경을 두고 군대문화를 접하고 그 전통 속에서 살아온 세대이다. 그러나 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군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병들과 젊은 간부들³⁾은 이미 X세대, Y세대를 지나 N세대에 이르고 있다.⁴⁾ 그러므로 현재 군의 고민도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고에서의 군 지휘 개념을 탈피하여 목적을 상실하지 않은 채 젊은 군인들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가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선교를 고찰해 보면 복음의 핵심은 변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이 전파될 때에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바울의 선교전략을 고찰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바울이 보여준 선교원리와 전략은 대개 아홉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중 문화와 연결성이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⁵⁾

첫째는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고수를 하나 부차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양보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한국의 군대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4), 40-41.

3) 여기에서 초급간부들이란 위관 장교들과 중사 이하의 하사관들을 지칭한다.

4) N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Network 세대, New Type, Netizen 세대 등이 있다.

5) 이용원, "바울과 선교", 선교와 신학, 1998년 제1집, 108-114.

9장 1절부터 23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였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문화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바울의 선교전략은 융통성 있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당에서, 시장 거리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 각기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특히 아덴에서는 이교 철학자들의 가운데에서 물리쳐야 할 우상 숭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대신에 그들의 종교성을 칭찬함으로 복음전파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행 17:22-31).⁶⁾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다면 바울은 혼자서 사역을 담당해 내려고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개발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선교사역에 동참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바울의 선교사역의 원리는 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군대는 입대자의 문화를 무시하고 군대의 전통적인 문화를 강요하는 데에 익숙한 집단이다. 이러한 군의 양식은 군 교회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군 교회 역시 변화하는 데에는 늦고 고전적으로 사역해 오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군이 이제는 일방적인 강요만으로는 군이 수행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용성과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군 교회도 전통적인 양식만 가지고서는 90년도 이후로 입대하는 사병들을 전도하여 이들을 복음화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더 나아가 융통성 있는 선교사역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군 조직과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반하여 군종목사의 수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상황과 공군의 경우는 숫자상의 어려움이라는 점은 해당이 없으나 너무나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이 동역자를 발굴하여 사역을 한 것과 같은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공군교회에 맡겨주신 공군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미 위에서 서술한 내용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근본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공군선교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특히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문화적인 물이해와 갈등을 중점적으로

6) Ibid, 113.

다루려고 한다. 이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에 한국문화를 연구하면서 전통적인 문화적인 가치관과 현대 세대들의 문화적인 가치관 사이의 갈등을 먼저 규명해 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 갈등이 공군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양자간의 갈등해소를 통한 공군선교의 효율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 절 내용 및 방법론

본 논문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공군선교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현대 공군 사병들을 잘 이해하도록 하여 공군 안에 있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문화적인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군사병 선교와 목회를 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논문의 동기, 목적 및 내용과 방법론을 제시하게 된다.

2장에서는 현대 공군사병 목회를 위한 성경적이고 문화적인 전 이해를 다루려고 한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종교가 문화를 포용해야만 하는 것을 증명하며 복음서가 이를 어떻게 시도했는지를 연구하여 문화에 따른 선교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문화를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연구하며 한국문화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살펴봄으로써 양자간의 갈등의 주된 내용을 밝혀서 이후 제기하게 될 연구의 출발점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크게 현대 청년문화와 군대문화 그리고 공군 사병문화를 연구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대 청년문화와 전통문화간의 갈등을 심도 있게 살펴면서 이것이 전통적인 군대문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군대가 요구하는 문화와 현대사병들이 요구하는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양자간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을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공군만이 가지는 문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공군 사병들에 대해 어떤 선교적인 접근이 필요한가를 밝히려려고 한다.

4장에서는 현대 공군사병 목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전장에서 이미 연구한 것을 기초로 실제 현장적인 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인데 공군사병들에 대한 선교적이고도 목회적인 현실적인 장애요

소가 무엇인지를 조직, 인식, 운영이라는 세 가지 각도에서 고찰해 내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공군교회가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공군교회의 현실적인 한계를 도출해 내려고 한다.

5장에서는 현대 공군사병 목회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공군사병들이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을 떠나는 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교과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훈련소 교회에서의 역할, 훈련소와 실제 근무부대와 연결, 그리고 근무부대⁷⁾에서의 교과과정이라는 세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 공군사병에 맞는 새로운 조직과 관리기법, 예배모델,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 전 과정을 통해 공군사병들이 일목요연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힘있는 군대로 다시금 사회로 배출되는 효율성 있는 선교와 목회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7) 자대라고 지칭한다. 이하 같다.

제 2 장

목회의 근거로서의 복음과 문화

제 1 절 복음과 문화의 이해

1. 종교와 문화

가. 문화

(1) 문화에 대한 정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각기 그 주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이한 각도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준다. 이중 가장 많이 쓰이는 문화에 대한 개념은 1871년에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에서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 Tylor)가 내린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사회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⁸⁾ 그는 문화는 인간행동의 생물학적 측면을 제외하고 문화를 개인이 아닌 집단의 행위양식에 초점을 맞추는 두 가지의 분석적 특징을 견지하였다. 그래서 1870년대에 문화를 획득된 행위에서 학습된 행위양식으로 전환된 정의를 소개하고 시간이란 차원에서 인간의 과거 유산이기 때문에 현재에 영향을 주고 미래의 모습을 이루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⁹⁾

타일러 외에도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많은 학자들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문화의 동의어로 첫째로 학습행동(learned behavior), 둘째로 사회유산(social heritage), 셋째로 초유기체(superorganic), 넷째로 생활설계(design for living)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¹⁰⁾

처음 용어를 사용한 이는 위슬러(C. Wissler)로 인간집단이 획득한 활동의 복합체로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말리노프스키(B. Malinowski)는 두 번째 용어를

8) 양춘 외, 사회학 개론 (서울: 진성사, 1989), 133.

9) Ibid, 134.

10) 김경모 외, 현대사회학 (서울: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1989), 65.

채택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인으로서 인간능력의 언어적 기반을 강조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사회적, 역사적 산물로 문화를 이해를 한다.

다음으로는 파슨스(T. Parsons)와 크뢰버(A. L. Kroeber)의 이해로 그들은 행위 경로(behavior channeling)로서의 문화의 특성을 강조한다. 즉 문화는 가치, 이념 및 기타 상징들로서 이들은 전승되거나 창조되며 인간행위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행위를 통해 구성이 되어지는 인공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주관적이며 내적인(상징적, 창조적) 요소들과 객관적이며 외적인 요소들(나타나는 행위와 인공물들 등)이 섞여 학습되고 공유된다고 한다.¹¹⁾ 마지막으로 클럭혼(Clyde Kluckhohn)의 이해로 문화는 역사적으로 고안된 제도이고 계획된 집단성원에 의하여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별히 문화는 일부 또는 전체집단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연역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생활양식이라 규정짓고 있다.¹²⁾ 문화인류학자 및 사회학자들의 위와 같은 문화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현상 그 자체로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연역적인 과정의 산물로서의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 뿐 문화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주면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완결시켜 주는 관점이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이다. 이 관점은 크게 세 부분의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기독교와 문화와의 완전한 분리성은 지양하지만 어느 정도의 분리는 인정을 하는 견해이다. 둘째로는 기독교와 문화를 분리하지 않고 완전한 일치성 속에서 보는 관점이며, 마지막으로 전자의 견해를 지지하되 그 속에서 구체적인 구분을 시도하여 균형 잡힌 통일성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첫째의 관점을 지니는 대표적인 학자를 니이버(H. Richard Niebuhr)로 들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저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문화를 다룰 때 갖는 문화 또는 문명이란 인간활동의 전적인 과정과 그 활동의 전적인 결과를 가리킨다¹³⁾는 주장을 하면서 문화란 인간이 자연적인 것 위에 억지로 뒤집어씌운 인공적인 제2의 환경(the artificial secondary environment)으로서 언어, 관습, 이념, 신념, 전통, 사회조직, 전해 받은 공예품, 기술적인 진전, 그리고 가치 등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을

11) 양춘 외, 사회학개론, 134.

12) Ibid.

13) H. R.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32.

한다. 그의 시야는 특히 변혁이라는 시각을 조명해 주고 있다.

다음의 견해는 문화를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기독교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¹⁴⁾ 브라이언 왈쉬(Brian Walsh)와 리처드 미들톤(Richard Middleton)은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부분들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인류의 타락과 함께 모든 부분들 역시 타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들은 새롭게 구속될 것이라는 창조적이고 구속사적인 시야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화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문화현상을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복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단언하기를 “우리는 문화활동 전 영역에서 주를 섬기며 그의 왕권을 인정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 속에는 성·속의 분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¹⁵⁾는 견해를 밝힌다.

마지막 견해에 대해서 바빙크(J. H. Bavinck)는 그 근간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성경에 두면서 이 내용이 해당 족속들의 문화생활과 관계하는 명확한 지시를 포함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¹⁶⁾ 그러면서 그는 지난 몇 세기 동안에 행해졌던 선교사업의 발전을 통해서 경건화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한 사역이지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그리고 정치적 발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의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구주시며 동시에 우리의 전 생의 왕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면을 포함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대 인류학이 원시사회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종교와 문화생활 사이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두 관점에서 비판을 가하고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성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바빙크는 문화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문자적인 규명에서부터 내용적 규명까지의 발전적인 시야를 제공해 준다.¹⁷⁾

전자에 있어서의 문화란 지구의 자원을 캐내며 발전시켜 가꾼다는 의미이며 문화란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의 왕권이며 또한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해를 해 준다. 후자에 있어서 그는 문화를 농업적, 기술적 측면과 영적, 도덕적 측면

14) 정웅섭, 기독교문화와 교육, 자유문고 vol. 4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87), 20.

15) Brian Walsh and Richard Middleton,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변혁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김항만 역 (서울: 글로리아 선교회, 1987), 76.

16) J. H. Bavinck, 기독교 선교와 세계문화 (The Impact of Christianity on the Non-Christian World), 권순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51.

17) Ibid., 60-61.

으로 구분을 하면서 이 두 부분이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 때만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한 진정한 문화는 이 양자의 힘과 통일성이 잘 균형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빙크는 개개의 민족문화까지 정의를 한다.

한 민족의 문화는 정신적, 도덕적, 기술적 및 농업적 세력의 복합체로서 한 부족이나 민족은 이런 복합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부족이나 민족자체를 향한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한 민족의 문화는 그 민족이 실재에 대한 이해에 뿌리박고 있는 삶의 공통적인 태도이니 곧 삶과 생각의 형태이다.¹⁸⁾

지금까지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문화란 어느 형태,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의 깊숙한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문화는 과거, 현재, 미래적인 연결점이 있기에 한 사회를 움직여 가는 핵심적 총체로 규명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폴 히버트(Paul G. Hiebert)의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바를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단의 사람에 의해 공유된 사상, 감정, 가치, 그리고 행동에 연관된 유형과 산물의 통합된 다소의 체계”¹⁹⁾라는 정의에 의해서도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사회를 이해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또한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접근함에 있어서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를 우선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지는 것이다.

(2) 문화의 특성

문화의 특성에 관한 정의는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그 견해가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일치점²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는 하나의 통합된 복합적 총체이다. 문화의 각 부분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문화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각 부분이 적합해야 한다.²¹⁾ 둘째 문화는 보편적이고 다양하다. 문화는 공통적인 유사성에서는 보편적이거나 해결방법은 각 사회마다 다르고 그 내용과 양식에 있어서 각 사회마다 다양하다. 예를 들면 어느 사회나 적령기가 되면 남, 여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면은 동일하나 어떤 방식으로 하

18) Ibid., 64.

19) Paul G. Hiebert, 문화 속의 선교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채은수 역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4), 34.

20) 참조. 양춘 외, 사회학 개론, 134-135.

21) 김선건 외, 새 사회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6), 85.

는 가는 각 사회마다 틀리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는 공유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나 규범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의 고유한 행위양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상징력,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²²⁾ 넷째, 문화는 학습되고 축적된다. 문화는 단순히 다음세대로 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정을 통해서 전승되는 축적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학습은 반드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²³⁾

위와 같은 문화의 특성을 근간으로 하여 문화의 특성은 접근하는 이의 시야에 따라서 약간씩의 첨가가 이루어진다. 니이버는 이러한 기본적인 도식 속에서도 조금은 다른 시야를 제공해주고 있다.²⁴⁾ 즉 문화는 사회적 유산이라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생활이 곧 언제나 문화라고 하며 문화의 보편주의를 문화가 언제나 평화와 번영, 정의와 질서, 자유와 공공복리, 진리와 미, 과학적 진리와 도덕적 선, 기술적 숙련과 실제적 지혜, 거룩함과 생활의 연결을 추구한다는 면을 명시해 주고 있다. 그와 더불어 자연과의 대비 속에서 문화는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하며 이룩한 것이라면서 문화를 가치와 연결을 시킨다. 즉 문화의 세계가 가치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성취물은 모두 어떤 목적들을 위해서 고안이 되었는데 그 목적은 주로 인간을 위한 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는 그 형식과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나 가치의 잠정적, 물질적 실현에 관계한다고 하며 이 실현은 무상하고 없어지는 재료로 이루어지기에 실현과 함께 그 가치를 보존하는 데 관계를 한다.

이외에도 문화는 생활양식을 제공한다.²⁵⁾ 문화에는 짜임새 있는 틀(pattern)이 생긴다는 첨가가 있다. 이러한 특성의 첨가 중 가장 유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문화는 변한다는 것이다.²⁶⁾ 문화가 전승이 되어 지면서 받아들이는 세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것에 자기 시대 나름의 창의적인 변용을 가미하여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더하는 가운데 변화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각 사회의 문화가 변화된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시대에 따라 또한 그 사회에 따라 변화의 속도나 폭과 깊이 등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특성에 있어서 문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의 견해는 상당 부분 평면적이고 정적인 정리를 보여주고 있으나 니이버는 상

22)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86), 143.

23) 김선건 외, 새 사회학개론, 83.

24) H. R.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29-39.

25) 김선건 외, 새 사회학개론, 83.

26)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144.

당한 부분에 걸쳐 동적이고 목적적인 면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양자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문화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사회생활의 총체로서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니이버가 언급한 “인간은 자연에서 피할 수 없는 것만큼 문화에서도 도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²⁷⁾는 견해는 옳은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문화는 전승이 과정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화의 특성은 상당한 부분 이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

(3) 문화의 기능과 내용

큰 영역에서의 문화의 내용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 뒤플러(Defleur)가 말하는 대로 주로 언어, 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갖가지 기초나 상징의 총체를 말하는 상징적 문화,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깊은 정감의 기초를 제공하는 평가적 문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기대되는 제도적 규범을 제공하는 규범적 문화의 세 부분을 포함하는 비물질 문화와 물질문화로 구분을 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문화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며 환경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하나의 생존수단²⁹⁾이기에 보다 더 발전적 내용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문화의 내용에 따르는 분류는 분석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데 소로킨(P. A. Sorokin)은 물질적 문화, 행동적 문화, 이데올로기적 문화의 세 측면으로 구분을 하였고 볼드릿지(J. K. Baldrige)는 경험적 인지의 문화, 심미적 표출과 감상의 문화, 평가적 규범의 문화라는 세 면으로 구분³⁰⁾을 하였는데 후자의 구분이 일반적인 정의이다.³¹⁾ 경험적 인지의 문화는 현실 또는 실재(what is)에 대한 사회적 규정을 의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현실은 문화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지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대상을 규정하고 각 사회에 적합한 상징적 기초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문화는 문화의 상황규정 기능이 인식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좀더 심미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대한 규정에까지 미친다

27) H. R.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39.

28)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146.

29) Ibid., 144.

30) 이장현 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87)

31)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147-158의 견해를 수용함을 밝혀둔다.

는 것이다.

마지막의 문화는 “무엇이 좋고 나쁜가, 바람직한가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해야만 하고 해서는 안 되는가의 표준을 설정”³²⁾하는 행동적 표준으로 이 문화가 바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좌우해 주고 사회조직의 지침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인준과 제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규범은 그 내용의 분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초기 사회학자인 서머(W. G. Summer)가 소개한 민습, 원규, 법이라는 구분을 따른다.³³⁾ 그런데 이러한 사회규범은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에 먼저 가치와 규범의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가치는 대체로 사회성원이 공유하는 원망을 표현하기에 벌칙이 없으나 규범은 행위의 규칙이기 때문에 벌칙이 있다는 것이다.³⁴⁾

규범의 분류에 앞선 전제는 다음과 같다.³⁵⁾ 첫째로는 수단적 성격으로서의 규범은 개인의 행위를 사회적 행위로 변환시키는 사회적 도구라는 것이며, 둘째로는 목적적 성격의 규범은 우리의 행위의 사회적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규범을 고찰해 보면 먼저 민습은 사회성원들이 그다지 중요한 규범으로 보지 않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준수하는 규범으로 위반시에도 가혹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 규범이며 예로는 식사와 의복관행을 들 수 있다. 원규는 사회성원들에 의해 수시로 또한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회성원들이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위반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일부일처제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은 제도화된 규범으로 제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한 문화의 내용은 상징과 언어라는 내용이 있을 때에만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상징이란 어떤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동이나 대상을 지칭하는데 그 역할은 첫째, 공통적인 상황정의로서 상징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정보와 정신적 상태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증가시켜 준다. 또 다른 한편의 상징의 대표적인 것으로서의 언어는 집단의 산물이며 표출화 된 의미를 갖는 발음형식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체계이다. 이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개념화 과정을 도와주고 규칙성, 항시성, 질서 등 반복되는 형식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32) Ibid., 147.

33) 이장현, 사회학의 이해, 81.

34) 양춘 외, 사회학 개론, 143.

35) Ibid., 145.

한다.³⁶⁾

위와 같은 문화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화의 기능은 첫째,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행위의 지침인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를 영속시킨다. 둘째, 그 문화는 사회집단 성원간이나 집단간, 그리고 그 사회와 다른 사회와의 부당한 마찰을 제거하며 집단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집단성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³⁷⁾ 따라서 어느 문화나 사회의 존속과 성원의 안녕이라는 관점에서 보수성을 띠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문화나 사회와의 접촉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적 보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문화의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체계와 언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종교와 문화

(1) 종교와 문화에 대한 세 가지 태도

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구분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첫째는 종교의 부분으로서의 문화를 보고자 하는 종교적인 입장이고 둘째는 문화의 부분으로서 종교를 보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양자를 평행선상에 놓고 고찰해 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관계규명은 종교를 어떻게 규명해 내는가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접근방법을 가지게 된다. 밀톤 잉거(Milton Yinger)는 종교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종교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혀주면서 양자에 대한 관계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³⁸⁾ 그는 종교의 정의에 대한 접근을 종교인과 사회과학자 그리고 종교사회학자와 인류학자로 구분을 하여 서술한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정의를 진정한 성격과 본질을 서술하면서 그 종교의 본질 서술을 회피하는 어떠한 시도적 정의도 불만족스러워한다. 그들은 종교와 종교 아닌 것의 구별이 분명하기에 종교정의는 그 구분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의 부적당한 시도적 종교정의를 배제한다.³⁹⁾

사회과학자들은 일련의 사회현상의 한 측면에서 또한 한 기준의 분야에서 비추어 보면 종교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주변적 현상이 있기에 종교정의도 실제로는 잘 구별되지 않는 현상들을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선에 불과하다고 한다. 마지막 유형의 학

36) Ibid., 148-49.

37) 참조. Ibid., 140-141.

38)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79), 36-37.

39) Ibid., 36.

자들은 그 정의를 서술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로 나눈다. 전자는 다양한 종교가 가지는 공통요소를 발견하고 지적함으로 종교의 특성을 서술하고 동시에 종교가 아닌 것과의 차이점을 밝혀낸다고 하며 후자는 믿음과 의식의 내용보다도 종교가 무엇을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⁰⁾

즉, 잉거는 각각의 정의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종교의 정의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주체자의 입장을 전제하며 종교와 문화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가) 종교의 부분으로서의 문화

종교란 단어의 영어 'religion'의 어원을 밝혀보면 두 가지의 설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⁴¹⁾ 첫째는 'relegere'로 '다시 읽는다, 증언하다, 주의하여 수행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이는 곧 신들과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끊이지 않고 성실히 수행한다는 데에서 나왔다고 한다.⁴²⁾ 둘째는 'religare'로 '결부한다, 확실히 수립한다, 함께 결속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속을 뜻한다. 이 종교에 대한 기원을 채필근은 13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하여 준다.⁴³⁾ 큰 관점에서 '천연숭배, 정령숭배(animism), 토템숭배(totemism), 금기(taboo)' 등과 심리적 기원으로 나누면서 후자의 영역을 12가지로 구분을 해 준다.

첫 번째는 공포설로 즉, 공포심이 신을 낳았다고 하는 견해로 에피쿠로스(Epicurus), 베르질리우스(Bergillius), 분트(Wilhelm Max Wundt) 등이 주장한 것이다.

두 번째는 프랑스의 자유신학자인 사바티르(A. Sabatier)가 주장한 희망설이다.

세 번째는 이기(利己)성설로 바흐(Feuer Bach)는 "신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즐기려는 이기심이 객관화된 것이요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⁴⁴⁾

네 번째는 상상설로 스펜서(Spencer)는 종교는 물질적인 육아와 정신적인 경아가 합쳐진 것이라 한다.

다섯 번째는 무한감설이다. 밀러(Max Muller)와 티레(Tiele)가 대표적인 이 견해

40) Ibid., 37-38.

41) 박형룡, 교의신학서론 (서울: 은성문화사, 1976), 153.

42) Ibid., Cicero의 주장

43) 채필근, 비교종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105-120.

44) Ibid., 109.

는 무한이란 느낌은 지각과 감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무한하다고 하는 느낌을 전환시켜 신에게 대한 갈망 심으로 변화시키는 데에서 종교의식이 발현되었다고 한다.

여섯 번째는 추리과정의 결과에 둔 추리결과설이다.

일곱 번째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인 양심의 소리가 신의 소리라는 도덕의식설로 칸트(Immanuel Kant)의 견해이다.

여덟 번째는 절대귀의설로 쉴라이어마허(Schleiermacher)가 대표적인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대상에 대하여 절대귀의의 감정으로 행할 때라야 비로소 종교신앙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뒤르켐(Emile Durkheim)이 대표로 종교는 사회를 신성한 존재에게 결합시키는 신앙과 행동이라는 사회의식설이다.

열 번째는 기능심리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 등이 말하는 천부설로 이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잘 통솔하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는 주장이다.

열한 번째는 종교를 싫어하며 반대하는 유물론적, 무신론적인 관점인 위계설이다.

마지막으로는 신의 계시로 인정하는 계시설로 모두 열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 12가지를 크게 나누어 보면 열한 번째까지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적인 입장과 신성한 존재는 이미 인정을 하고 그 존재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나 존재에 대한 규명은 불충분한 입장으로 점철되어 있고 마지막 입장은 모든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의 정의에 있어서는 계시설적인 입장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계시설을 취하는 여러 종교⁴⁵⁾ 중 어느 종교를 가장 타당한 종교로 채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 박형룡은 참된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를 능가하는 우수성, 신학적 및 윤리적 결함들과 기타 약점들을 찾을 수 없는 무결성, 구원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주는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요소를 모든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를 참된 종교로 채택하고 있다.⁴⁶⁾

이런 관점을 수용하기에 본 장은 진화론적인 입장을 배제하는 관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정의는 파머(Farmer)가 규명한 대로

45) 기독교, 이슬람교 등

46) 박형룡, 비교종교학, 박형룡 저작전집 vol. X (서울: 기독교교육연구원, 1978), 382.

종교는 우주적 존재자의 개성에 대한 요구의 응답이고 그 안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는 신의 무조건적인 요구에 대한 것과 그 요구 가운데 개인의 이익과 행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함이고, 신의 절대적인 요구와 구원으로서 인간을 만나보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요 신에게 대한 인간의 숭경심과 외구심의 반응인 것이다.⁴⁷⁾

따라서 종교는 단순히 사회학적, 문화인류학적 입장을 넘어선 개념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종교 안의 문화라는 현재를 규명해 내려면 먼저 그 근원을 고찰해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창조사건에서 규명이 될 수 있다. 브라이언 왈쉬와 리처드 미들톤은 성경적 세계관⁴⁸⁾을 기술하면서 창조를 말한다. 창조는 말씀만으로 피조세계가 복종하였기에 말씀을 통한 창조, 추상적 의미를 배제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하시고 명령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지혜를 통한 창조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성서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땅에 대한 지배권 및 통치권과 하나님 혹은 우상숭배에 대한 종교적 선택을 부여했다고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들은 문화를 고찰하는데 이는 첫 인간 아담의 사명이 동산을 경작(cultivate)하는 데에 있었고 그 경작의 결과가 문화라고 한다.⁴⁹⁾ 즉, 인간이 발전시켜온 것으로서의 문화는 역사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게 되고 또한 인간역사, 곧 인류의 역사적 발전은 유일하게 실체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경작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창 2장 4절에서 4절 20절의 문화발전 속의 한 단어인 틀레도쓰(세대)라는 개념을 들며 발전의 개념 즉, 이 개념이 역사적 발전의 개념과 가깝고 문화적 발전과 혁신에 대한 일련의 예로 보는 것이다.⁵⁰⁾ 그래서 창조를 발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면에서 “문화명령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한 부분이다. 구원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문화의 형성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며 인간은 창조세계를 발전시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존재”⁵¹⁾라고 한다. 또한 홈즈(Arthur Holmes)는 창조교리의 구성요소를 여섯 가지로 정의한다.⁵²⁾ 첫째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용어적인 해석으로 하나

47) 채필근, 비교종교론, 57.

48) Brian Walsh and Richard Middleton,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변혁, 45-64.

49) Ibid., 60.

50) Ibid., 62.

51) Ibid., 64.

님만이 모든 것의 원천이므로 하나님은 어떤 것에 종속되지 않고 바로 창조와 피조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 준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활동을 언급하면서 창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계속 종속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은 무제약적이시기에 역사는 목적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시며 그의 은혜로우신 목적실현의 장이라는 인격적인 목적론을 보여준다.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 밖으로 창조하신다(ad extra).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독자적인 실재를 부여하고 그것에게 위임된 권력의 행사를 맡기시는 자신이 만든 여러 수단⁵²⁾을 통해 역사 하심을 보여준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권력을 위임하셨기에 이 세상은 선한 목적을 위한 질서 있고 구조적이며, 법칙, 통제적인 세상이 된다. 여섯째,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가치, 즉 심히 좋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 전자의 견해에 비해 홈즈의 견해는 너무나 평면적이고 정적인 면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양자를 종합해 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것과, 그 권한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이와 같은 도식 속에서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선한 의도의 문화가 현재와 같은 양태를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타락의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참된 종교인 기독교의 한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현재의 문화는 타락의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이 문화는 원래의 상태의 회복을 위한 구속이라는 자리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문화의 부분으로서의 종교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전장의 관점과는 상반된 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학자는 뒤르켐(Emile Durkheim)으로 모든 종교의 특징을 성과 속의 대립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종교는 성스러운 것들, 즉 따로 보관되고 금지된 것들에 대한 믿음과 실행의 통일된

52) Arthur F. Holmes, 기독교세계관 (Contours of a World View),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7), 94-97.

53) 물리적 수단, 심리적 수단, 경제적 수단, 정치적 수단 등.

체계이다. 그 믿음과 실행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도 불리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규합시킨다.”⁵⁴⁾ 주로 그의 관점은 종교적 신념 자체보다는 종교적 의식의 기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관계와 집단생활의 산물이라는 사회적 이론과 접근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교의 세 요소로 이론적 요소인 믿음체계, 실천적 요소인 의식체계, 사회적 요소인 사회관계의 체계를 들고 있다.⁵⁵⁾

이 이외에도 의미의 측면에 중요성을 부여한 글락(Gluck)과 스타크(Stark)는 종교를 사회가 성스럽게 여기는 바는 궁극적 의미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상징과 믿음과 가치와 관행의 체계로 구성되는 제도라 한다. 인류학자 월레스(Wallace)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초자연의 힘을 동원하려는 통제의 시각⁵⁶⁾으로 규명을 한다. 또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자기의 무지 때문에 생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한 하나의 지각적인 결실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⁵⁷⁾ 이러한 기초 위에서 종교를 규명해 본다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성적인 것으로 조직된 사회적 공동 선과 집단 선을 지향하는 조직된 일련의 체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광의의 종교의 기능에 있어서는 의도성을 포함한 정기능과 비의도성을 포함한 역기능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사회적인 연대를 조성하고 의미를 제공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⁵⁸⁾하고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지지하고 전승하는 구실을 한다.⁵⁹⁾ 후자에 있어서는 사회변동을 불러일으키거나 가속화하고 사회를 통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⁶⁰⁾ 이런 관점에서 김경동은 종교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규명한다.⁶¹⁾ 즉, 종교의 발전이란 소규모적이고 비공식적이며 뚜렷한 조직을 지니지 않은 채 하나의 묶어짐의 형태인 숭배집단(cult)을 시작으로 추종자가 많아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져서 나름대로의 공식화가 일어나는 종파(sect)로 옮겨가고 조직적 형식과 공식화된 교리를 지니는 교회와 교파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종교를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진화되어 왔다고 인식을 하기에 사회 속의 한 부분, 문화 속의 한 부분으로 그 자리를 부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인 시야를 제공해 주지

54) 오경환, 종교사회학, 38.

55) 참조. 정재식, 종교와 사회변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14와 Ibid., 39.

56)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318.

57) 정재식, 종교와 사회변동, 11.

58) 양춘 외, 사회학 개론, 282.

59)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320. 많은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원천은 종교적 도덕률과 윤리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60) Ibid.

61) 양춘 외, 사회학 개론, 320-321.

못하는 과정적인 시야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점과 한계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통합적인 견해⁶²⁾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 양극적인 관계를 통합하여 규명하려는 이 입장은 종교가 자율적인 문화적 기능들에 대해 규제하면 오히려 문화가 종교를 포함하려고 하는 혁명적인 상황으로 이끌기 쉽기 때문에 양자를 균등한 입장에서 보려고 한다. 그래서 종교가 실재의 직관과 인식의 기능을 소유할 뿐 아니라 실재의 인격적이며 사회적인 변혁과 같은 인간의 영적 생활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에 양자는 상호간에 근본적으로 속하여 있다. 그 근거의 원리로서는 양자가 모두 영적인 자유에 기초를 두며 둘의 관계는 성과 속의 집약이라는 데에 둔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태로 이해를 한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하여 종교의 정의, 기원 및 종교와 문화와의 세 가지 태도를 고찰해 보았다. 사회학적이고 문화인류학적인 시각에서의 종교에 대한 규명은 그 근원 및 출발점에 대한 미비로 채택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종교규명이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도 우수성, 무결성, 완전한 구원관의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기독교 외에 없기에 참된 종교는 기독교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라는 면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하며 구속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관점을 초극하는 전체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복음서의 복음선포와 문화

가. 마가복음의 이해

(1) 마가복음의 일반적 배경

(가) 저작시기

마가복음의 저작시기 역시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진다.

첫째. A. D. 66-70년이 배경이라는 입장

이 견해에 대한 주도적인 학자는 Marxsen으로서 마가복음을 주후 66년에 일어

62)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14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난 유대전쟁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 펠라로 도망을 하게끔 하기 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 브랜든(S. G. F. Brandon)과 콘첼만(H. Conzellmann)은 각기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펠라로의 도망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66년의 재난이 미치는 것을 보면서 침착하게 그의 독자들에게 지체없이 도망가도록 충고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⁶³⁾

둘째. A. D. 70년 직후가 배경이라는 입장

이 견해는 브랜든이 주된 학자로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견해이다. 유대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인들이 로마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여는데 이를 보는 로마인들로 하여금 로마 기독교인들은 유대의 민족주의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로마가 아닌 유대인에게 돌림으로 자신들이 내적 평안을 가지고자 하였던 것이다.⁶⁴⁾

셋째. A. D. 70년대 후반이 배경이라는 입장

교회의 시련기를 배경으로 한 복음서의 동기와 조화라는 측면에서 윌리엄 레인(William L. Lane)은 이레니우스의 전승을 기초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후 70년 후반부가 배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⁶⁵⁾

일반적으로는 세 번째의 견해를 전통적인 견해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미 유대전쟁을 통해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70년대 후반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기에 70년 직후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수신자 및 저작 목적

이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마가가 자신의 다양한 삶의 정황을 배경으로 전기적 형태의 설교를 하였다면 구체적인 목적을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랠프 마틴(Ralph Martin)은 그의 저서에서 여섯 가지의 목적 - 베드로 순교 이후 로마교회를 위한 위로와 격려, 긴 서론을 갖고 있는 수난의 이야기, 그릇된 메시아 개념의 수정, 이단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박, 가현실적인 성향에 대한 처방, 바울의 선

63) 김득중 편저, 마가복음 연구 (서울: 나단, 1992), 80-81.

64) Ibid., 76-79.

65) William L. Lane, 마가복음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Mark), 이상훈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8), 36-40.

포의 보완 - 을 규명해 주고 있다.⁶⁶⁾ 이런 견해를 살펴 볼 때 우선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주 대상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내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로윌슨(A. E. J. Rawlinson)과 모울(C. F. D. Moule)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전도 목적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으나 베스트(E. Best)는 그런 구절의 주목적 역시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교육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9가지의 예를 들어 증명한다.

첫째, 교훈의 대상은 우리가 아닌 제자들이다.

둘째, 하나님의 목적이나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주요 교훈은 주로 제자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셋째, 복음서는 일부 선교사들만이 아닌 전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넷째, 내용의 진전상 기적들에 의해 기독교에 대한 참 매력을 느낀 이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그들 신앙의 참된 이해를 위해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다섯째, 예수의 체포, 심문, 죽음에 마지막 만찬과 예수의 머리에 기름부음이 첨가되어 교회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기록됨을 증명하고 있다.

여섯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교육용 목적이 강하다.

일곱째, 4장 10절에서 12장 33절 이하의 내용은 복음서가 오직 이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덟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는 표현이 있으나 사람 낚는 어부라는 데에 실질적인 강조점이 있다.

아홉째, 구약성서 인용은 이미 믿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다.⁶⁷⁾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제자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그들의 가치나 실수를 나타내 보이는 본보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공동체에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본보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수신자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고,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실수하지 말자는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보여주는 목

66) Ralph P. Martin, 마가신학 (Mark-Evangelist and Theologian), 이상원 역 (서울: 엠마오, 1993), 257-97.

67) 김득중, 마가복음 연구, 163-66.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⁶⁸⁾ 그러면 이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안디옥설, 애굽설, 갈릴리설도 있으나 전통적인 견해는 로마의 기독교공동체로 이해를 하고 있다. 박수암은 그의 저서에서 이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증명해 주고 있다.⁶⁹⁾

첫째, 많은 용어가 로마의 군대용어 및 기타 로마의 생활용어들에게서 채택된다.

둘째, 이방인 독자를 위해 아람 어와 유대풍습을 해설해 주고 있다.

셋째, 복음이란 단어를 아무런 설명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살찌우고 유지시키며 인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라면은 마가복음의 주제가 오직 한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한 억지가 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위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일관된 중심주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로마 공동체는 성전이 폐기되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며,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가 계속되는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한 요약은 박수암은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다.⁷⁰⁾

이와 같이 마가 교회의 삶의 상황은 본서가 기록된 목적을 짐작하게 한다. 이 공동체는 최근에 성전멸망을 경험했으며, 그 공동체 내에는 이 사건을 기회로 재림은 이미 일어났고 내가 바로 그 재림주라면서 공동체를 현혹시키는 무리가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히 박해하고 있었다. 순교를 각오해야 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배교할 위험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 마가는 위기에 대한 해석학으로서 본서를 기록해서, 안으로는 그릇된 재림기대를 시정하고 거짓 그리스도들(자칭 재림주들)을 경계하게 하며, 밖으로는 로마의 불같은 박해에 의연히 대처하여 순교를 격려하고 배교를 경고하려고 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혼돈의 와중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교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훈이 필요했고, 이를 단편적인 전승들을 가지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모든 자료들을 주제별로 혹은 주기적으로 모아, 하나의 통일된 예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공동체를 교훈 하는데 인상적이었을 것이고, 또한 힘이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베드로

68) Ibid., 208.

69) 박수암, 마가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94-95.

70) Ibid., 79-80.

와 바울, 그의 사도들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가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기원과 뿌리를 찾는 일을 더욱 촉진시켰을 것이다.

(2) 마가복음의 내용

군드리(R. Gundry)는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을 영광의 신학적 자료와 십자가의 신학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군드리는 예수를 막강한 능력과 지혜의 인물 및 엄청난 권위와 승리를 이루신 분으로 이해를 하며 십자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 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의 죽음은 승리자의 대속의 죽음이었다.

둘째,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대한 변증이다.

셋째, 예수의 죽음은 당시 로마군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압도하는 힘있는 자의 모습이다.

넷째, 십자가의 길이 중심내용인데 그 길도 예수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강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마가는 강조했다.

반면에 브레데(W. Wrede)는 그의 메시아 비밀이론(Messianic Secret)이라는 주장에서 원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그의 부활로 인해 교회에 알려져서 그것을 선포한 것으로, 즉 메시아 아닌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한 교회가 그것의 정당성을 위하여 만든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타당한 견해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마가복음의 내용의 큰 줄거리가 그가 처한 상황과 연계하여 볼 때 십자가와 제자도에 큰 비중이 주어진다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연구한 기본 토대 위에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저작시기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브랜든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의 민족주의와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가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⁷¹⁾ 마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죄로 이해를 함으로 유대뿌리와 로마 기독교인들과의 단절을 시도하였고 이를 위해 가이사에게 세를 받쳐야 한다는 것과 성전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15:38),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짐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71) 김득중, 마가복음 연구, 76-79.

(13:14). 박수암은 그의 저서에서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마가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⁷²⁾

첫째, 수난의 메시지 (13:9-13)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그 후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예비되어 있으니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의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순교에의 부름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 약해지지 말고 이겨나가야 함을 씨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경성해야 한다는 메시지(13:33-37)

제자들은 방심하다가 마침내 미혹을 받아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예수가 오실 때 잠자는 상태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재림에 대한 메시지(13:24-27)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인데 그 날에 그의 택한 자들을 보상해 줄 것이다. 지금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나타날 것이니 교회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

넷째, 성전멸망에 대한 메시지(13:1-2, 14)

그리스도는 옛 성전을 새 성전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새 성전이다.

다섯째, 이방선교에 대한 메시지(13:10)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여섯째, 부재하시는 주에 대한 메시지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의 재림만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져올 것이니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기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⁷³⁾

첫째, 이야기의 진술이 단순하며 직설적이고 상세하다(1:40; 5:8, 9; 2:25-26; 2:1).

둘째, 예수와 제자들, 무리의 표정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다(1:40; 3:5;

72) 박수암, 마가복음, 81-83.

73) Ibid., 60-64.

4:41).

셋째, 예수의 교훈보다는 행위를 쉴 사이 없이 기록해 나아간다. 그 예로 4복음서에 나타나는 총 36개의 이적 중 18개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다.

넷째, 지리적인 구분과 더불어 그리스도론의 시기적 구분의 관점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주로 마가의 예수 사역지는 갈릴리아고 11장 이후 16장에까지는 예루살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제자들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인 양면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긍정 - 1:20; 3:13-15, 부정 - 8:32-37; 4:13; 4:40; 14:44 등).

여섯째, 이방선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5:1-20; 7:24-30; 8:1-9).

일곱째, 메시아 비밀의 동기를 보여준다(1:34; 3:12; 8:30; 9:9).

여덟째,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세히 보도한다(2:20; 3:6, 19; 8:31).

아홉째, 예수의 종말에 관한 강화가 그 어느 복음서보다 밀접하게 성전기사(11-12장)와 수난기사(14-15장)와 연결되고 있다.

열째, 마가는 비슷한 전승자료들을 병행시키는가 하면 서로 다른 자료들을 연관시켜 대조와 반복을 이루게 한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마가복음은 저자가 위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전기적인 성격을 띤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강조,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닌 영광과 승리가 내포된 십자가에 대한 강조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지녀야 하는 바른 제자도에 대한 이해와 순응적인 실천으로 압축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요한복음의 이해

(1) 요한복음의 일반적 배경

(가) 수신자 및 저작목적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저작된 제4복음서는 자체 안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라는 점을 규명해 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알란 리처드슨의 견해로 요한복음은 단지 공관복음의 작업내용에 대한 보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공관복음의 시야를 가질 것을 이야기한다.

둘째, 반 운니크(W. C. Van Unnik)의 견해로서 4복음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신앙을 심겨주기 위해 쓰여진 선교의 책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셋째, 오스카 쿨만의 견해로서 희랍문화의 영향을 받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하며 그 예로 공관복음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관념을 반영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희랍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던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제4복음서의 연구가 거듭됨에 따라 그 자체가 지닌 심오한 신학이 계속 드러남으로 보충설은 타당성을 잃고 있다. 그 이외의 이론들을 종합해 보게 될 때 한가지 사실을 알게되는 바, 그것은 4복음서의 대상은 '헬라의 지성인' 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 즉 빛과 생명, 떡과 물, 진리 같은 단어는 보편적인 청중들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를 볼 때 이방인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보다는 불신자들을 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헬라적 배경을 갖은 불신자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다 보니 그 배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야기가 되었고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4복음서의 다양한 배경을 여과 없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 다양한 배경

1) 헬레니즘의 영향

4복음서 내에는 주후 1세기 지중해 세계에 만연하였던 플라톤 철학과 스토익 철학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⁷⁴⁾ 전자의 개념으로는 위로부터 난 자와 땅으로부터 난 자(3:31), 영과 육의 구분(3:6) 등을 들 수 있고 후자는 로고스(1:1) 술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4복음서의 주 대상이 헬라 불신자임을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범주 안의 용어로 복음을 증거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세윤은 요한복음의 특성을 논하면서 요한 복음을 팔레스티나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적 사고의 패턴으로 번역해 놓아서 유대적 배경과 헬라적 배경이 잘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헬라 철학적 개념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4복음서는 이미 그 내용을

74) Stephan S. Smalley, 요한신학 (John-Evangelist and Interpreter), 김경신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65-67.

창조시부터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는 로고스의 개념 이해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조지 래드(G. E. Ladd)는 로고스란 용어가 요한복음서에서만 발견되는 용어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 개념을 그리스도안에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개념으로 이해를 하며 그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⁷⁵⁾

첫째, 선재자이신 예수님이 로고스이다.

둘째, 요한이 사용한 로고스의 개념은 예수의 신성을 주장한 것이다.

셋째, 요한이 주장하는 로고스는 창조의 대행자이다.

넷째,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는 놀라운 주장에도 로고스의 개념이 있다(1:14).

다섯째, 육체 안에 나타나신 자의 오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헬라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보다는 헬라사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구조적 틀을 채용했다는 점이 타당한 것이다.

2) 구약성경의 사용

쿰란 지역 내에서 요한의 어휘나 사상과 유사한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발견됨으로 요한의 배경에는 히브리적 요인이 우세하다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 문서에는 그동안 헬레니즘 적으로 생각되던 많은 문구와 개념이 주후 1세기에 이미 팔레스타인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또한 그는 목자의 이야기(10:1-16) 및 포도나무의 이야기(15:1-6)에서처럼 명문화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예화를 전용하는 면을 보여주기에 구약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⁷⁶⁾

3) 유대교 문헌

여기에는 랍비의 영향과 쿰란 문헌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전자는 요한의 문장구조가 두드러지게 랍비들의 문장구조와 비슷하고 요한의 구문에서는 셈어적 영향이 분명히 보이기에 랍비의 구두전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는 생명의 떡 이야기(6장) 같은 곳에서 미드라شم 등의 랍비적 사상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후자는 쿰란 문헌으로 주

75) G. E. Ladd, 신약신학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이창우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8), 336-340.

76) Leon Morris, 요한복음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 John), 이상훈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9), 78.

로 에센파 공동체가 파괴되기 전인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된 사해 두루마기가 발견되면서부터 논의가 되었다. 이 문헌을 통하여 요한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은 헬레니즘 요소가 아니라 히브리적 요소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들을 빛의 자녀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새 언약의 구성원들로 믿음.

둘째, 진리의 영에 대하여 언급하고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간의 영원한 투쟁을 강조함.

셋째, 요한처럼 선과 악의 투쟁을 이야기 함.

넷째, 영은 진리이며 신적 계시의 전달도구이라고 함.

그러나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요한복음서가 전적으로 콤란 문헌에 의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⁷⁷⁾ 그런데 이런 고찰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4복음서는 분명 헬라적인 영향이 아닌 히브리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더 끈고히 해 준다는 것이다.

4) 이교문헌

1세기 지중해 주변은 혼합주의적이고 이교적인 사상들이 무성하였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영지주의.

루돌프 볼트만(R. Bultmann)이 주된 학자로서 요한의 구원관,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돌아간다는 사상의 배경에는 영지주의의 구원신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는 영지주의의 구원은 요한과 같이 무지로부터의 해방이지만 이것은 통찰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요한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줌으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영지주의가 근동전체에 만연해진 시기가 주후 2세기임을 고려할 때 1세기의 요한복음서와의 연계성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둘째, 만다야 교도.

발터 바우어와 루돌프 볼트만이 주된 학자로서 그들은 이 교도가 팔레스타인서 유래하였고 그들의 문서는 기독교 시대 이전의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영향력을 논한다.

⁷⁷⁾ Sthephan S. Smally, 요한신학, 101.

4복음서는 이들에게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한 구속자의 개념을 차용하였다고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내용, 신적 목자의 개념, 빛을 가져오는 아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만다야 교도의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버어키드, 도드(C. H. Dodd)의 연구에 의해 이들은 이슬람교 발아기 이후에 생겨났음이 밝혀졌고 따라서 요한복음서에 영향을 끼쳤다고보다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사상을 차용해 간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셋째, 신화 종교들.

당시 그리스의 엘류시아파, 시리아의 아도니스, 이집트의 이스 및 페르시아의 미트라스 비의들이 있는데 이에 반해 요한은 순수한 역사적인 부분에 근거를 두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⁷⁸⁾

넷째, 헤르메스의 문학

이 책의 내용은 헬라철학을 바탕으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주후 2, 3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문서군의 집대성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저작시기나 신학적 바탕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기에 이의 영향을 논하기도 매우 어렵다.⁷⁹⁾

이상과 같이 4복음서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양한 배경들을 살펴보았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요한은 히브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았고 철저한 역사성 위에서 있는 초기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을 헬라적 사고의 패턴으로 번역해서 불신자들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요한복음의 내용

요한복음서에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의 대치, 혹은 해석, 보완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요한이 한편의 영적 복음서를 편찬하고자 했다고 한다.⁸⁰⁾ 이런 학설을 기초로 하여 윈디쉬(Hans Windish)는 요한복음의 기자가 사도 요한과 연계된 팔레스타인의 전승을 통합하고 동방, 헬레니즘적 구속의 메시지로 옷을 입혀서 공관복음서를 대치 또

78) Ibid., 68-69.

79) Ibid., 72-75.

80) Ibid., 189.

는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라이트푸트(R. H. Lightfoot)는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공관복음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해석하면서 예수에 대한 원래 사건의 의미를 추출해 내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한다.⁸¹⁾

그러나 1932년 공통적인 자료를 연구하였던 가드너(C. P. Gardner)는 공통자료내에 미세한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이것이 신학적인 이유와 전혀 관계없음을 밝혀 내었다.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요한이 공관복음서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독자자료가 있음을 이야기하였고 기존의 공통점은 예수에 대한 많은 자료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스몰리(Stephan S. Smalley)는 저자가 당시 1세기의 공통된 기독교 전승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완성된 형태의 공관복음서를 알았다는 것은 아니기에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공관복음서의 보완 또는 대치하려는 목적은 성취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의 견해를 밝힌다.⁸²⁾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다른 부분들을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라드는 그의 저서에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차이점을 아홉 가지로 설명해 준다.⁸³⁾

첫째, 서론 자료 및 추론방법이 다른 것을 볼 때 해석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예수께서 목회를 하신 장소가 공관복음서에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점으로 소개하는 반면에 요한은 여러 주변 지역의 방문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목회장소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역기간의 차이로서 공관복음서는 일, 이년 동안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최소한 유월절을 세 번 치른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2:13 ;6:4 ;13:1)

넷째, 신학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 문헌을 사용하는 방법이 공관복음은 비유형식인데 반하여 요한복음은 긴 담화체로 나타나고 있다(예수가 가르치신 교훈).

다섯째, 헬라어 사용형태가 요한은 간결한 병렬적인 구문을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공관복음은 미래의 종말론적인 축복을 이야기하

81) Ibid., 188-189.

82) Ibid., 188-89.

83) G. E. Ladd, 신약신학, 302-305.

는 반면에 요한은 현재의 축복으로 실현되어 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3:36)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영생을 종말론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생명을 현재의 영적 실재로 강조했다는 면이 공관복음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⁸⁴⁾ 특히 10장 10절을 예로 들면서 예수의 사명이 지니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생명을 현재의 경험으로 가져다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일곱째, 'Εγώ ειμι'라는 표현을 요한은 사용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하고 하는 궁극적인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반영한 말씀이다(8:58).

여덟째, 예수 교훈의 근본구조는 유대인들의 묵시적인 신앙이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도 현세의 종말론적 이원론이 다른 이원론으로 교체가 되고 있다.

아홉째, 아주 중요한 차이점으로서 주후 2세기경 헬라세계에서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헬레니즘적 구원의 종교로 바꾸어서 설교를 하고 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스몰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구원개념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 있으며 어둠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앞에 거하면서 지상에서 행하신 예수의 사랑과 봉사를 나타내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⁸⁵⁾

열째, 성령에 관한 설명에서 차이가 난다. 구약성경에서 '영'은 하나님의 힘으로 도덕적,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개인적인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공관복음서의 영은 예수가 성령을 부여받아 그의 메시아적 사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의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 모든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요한의 영은 예수가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소유하신 것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옛 것과 새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해 주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설명한다.⁸⁶⁾

스몰리는 요한의 두 가지의 일반적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⁸⁷⁾

첫째, 요한의 사고는 언제나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병렬적인 사고

84) Ibid., 363.

85) Stephan S. Smalley, 요한신학, 315-316.

86) G. E. Ladd, 신약신학, 402-405.

87) Sthephan S. Smalley, 요한신학, 299.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재판이라는 주제를 도입하는데 시종일관 법정적이라고 하며 이 재판은 하늘과 땅위에서 동시에 열린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또한 요한은 공관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례전적인 사고들을 내포하고 있고 지극히 상징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을 설명하기를 상징은 그리스도교적 정황 속에서 영적이고 신적인 사실들을 연상시키고, 성례전은 거기 관련된 실물적 요소들을 통해 영적이고 신적인 사실을 실제로 전달한다고 하며, 표적의 의미도 영원한 생명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고 설명을 하며 요한의 구원신학을 계시의 신학과 영화의 신학으로 이어가고 있다.⁸⁸⁾ 다음으로 공관복음서와의 차이점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표현에서 찾고 있다. 스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역할 수행자,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도록 보내심을 입은 그의 지상대리자(4:34; 5:36; 17:4)로 이해하고 예수를 사람과 하나인 분으로 보아 하나님의 신적 본능이 예수의 인간적 본성을 통해 전달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인격관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⁸⁹⁾

던은 요한 케리그마의 독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⁹⁰⁾

첫째, 역사적 예수와 고양된 그리스도가 상당히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역사적 예수가 고양된 그리스도의 견지에서 알려지고 있으며 기독교론적인 칭호(하나님의 어린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와 나는 ~이다라는 표현(6:35; 8:12; 10:7; 11:25; 14:6; 15:1), 선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대한 표현(3:13; 6:38; 8:38; 10:36)에서 이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는 공관복음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요한이 이해하는 역사적 예수는 그의 지상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의해 형성되는 영광과 함께 하는 역사적 예수로 나타나고 있다(1:14; 2:11; 11:4).

둘째, 예수의 지상생애의 역사적 실재성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영지주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제기된 점차적인 영향과 도전 때문으로 가현설에 대비해 예수의 인간 됨의 실재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요한의 특징적인 중요한 주제는 산다 와 생명인데 이를 67회나 사용을 하

88) Ibid., 316-322.

89) Ibid., 326-327.

90) J. Dunn, 신약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김득중, 이광훈 공역 (서울: 솔로몬, 1988), 56-57.

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한다. 즉, 요한은 생명의 약속과 성령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4:10-14; 6:62).

이런 요한복음서의 케리그마의 독특성을 다루면서 던은 아주 날카로운 양자택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약속을 묘사해 주고 있다. 즉 청중은 반드시 생명과 사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뒤받침 하는 묘사로 빛과 어둠, 봄과 보지 못함, 진리와 거짓, 성령과 육체라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⁹¹⁾

이상과 같은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다.

첫째, 요한복음서의 초점은 철저히 기독교론적이라는 것이다.

스몰리의 주장대로 요한복음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서두의 언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⁹²⁾ 결국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고 그 안에서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계시의 사건으로 복음은 인류에게 생명의 근원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1:31; 2:11; 7:4).

둘째, 요한의 종말론적인 강조점은 미래보다는 과거와 현재에 놓여져 있고 일어날 일은 일어난 일의 종결이라기보다는 그 일의 연장선으로 요한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⁹³⁾

이상과 같은 토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마가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예수에게로 집중시키려는 귀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미쳐지는 특수한 문화라는 틀을 반드시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3. 선교전략과 문화

가. 선교의 개념

선교를 정의하려고 하면 부딪치게 되는 문제가 바로 그 정의에 있어서의 양극화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불타고 있는 건물과 같으므로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91) Ibid., 58.

92) Stephan S. Smalley, 요한신학, 372.

93) Ibid., 364.

구조작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이 사회는 저주받아 곧 멸망하게 되므로 사회구조 개선에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는 전통적 견해와 하나님은 역사 과정 가운데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사회조화의 의미에서 샬롬(Shalom)의 건설에 있다는 사회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에큐메니칼적 견해인 것이다. 서정운은 현대에 있어서는 선교개념 정립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이는 지금까지의 선교에 대한 견해나 선교운동에 문제가 있어 왔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한다.⁹⁴⁾ 그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을 선교개념의 지리적인 발전, 선교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 선교학의 정립과정이 안고 온 문제, 모든 국가가 견지하는 자기 나름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선교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⁹⁵⁾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실제적인 면에서 선교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비난과 거부의 태도를 극복하고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며 또한 각기 처해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역동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개에 있어서 모든 활동의 방법과 과정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정당하여야 한다고 하며⁹⁶⁾ 양자의 자세는 상대방의 주된 관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입장에서야 할 것을 말한다. 아더 그라셔와 도날드 맥가브런은 선교가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⁹⁷⁾ 그것은 기독교 선교는 수많은 상황과 만나게 되며 반드시 어느 부분인가는 상이한 언어로 그 각각의 상황에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교의 다양성이 성서에 위배되는 제반 접근방식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선교를 정의하기를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충성을 받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문화권을 초월하여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고무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주로서 받아들이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들이 되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전도와 정의의 실천에 함께 사역하며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 하며 이것이 성서적인 선교의 모습이라는 타당한 정의를 제시해 주고 있다.⁹⁸⁾

94)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8), 95.

95) Ibid.

96) Ibid., 109-110.

97) Arthur F. Glasser, and Donald A. McGavran, 현대선교신학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고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51.

98) Ibid., 50.

나. 선교에 있어서의 선교전략의 의미와 필요성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활동의 영역에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두 개념으로 유연성과 필연성, 즉 계획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후자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더욱 구체적 목적성을 띠게 될 때 이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략은 어떤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총괄적인 접근책, 계획 또는 방법이요 어느 특수단체가 결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동의한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⁹⁹⁾ 그러므로 좋은 전략은 구체적인 방안과 아울러 광범위한 원리도 포함하되 정해진 목표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은 선교가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 행해지기에 필연성이 당연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일반적인 용례의 전략과 차이가 있는데 와그너의 견해처럼 “가장 적합한 전략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이 성령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¹⁰⁰⁾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선교전략의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선교전략이란 선교를 수행하려고 하는 주체가 선교를 성공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사용하고 또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데이튼과 프래저는 잘 설명을 해 주고 있다.¹⁰¹⁾ 첫째,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및 의도와 성령님의 뜻을 찾게끔 만들어 주고, 둘째, 전략은 미래를 미리 예언하게 하는 시도이고, 셋째, 전략은 우리들의 의도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넷째, 전략은 방향성의 전체적 감각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응집력을 준다. 피터 와그너는 적합한 전략을 농사일에 비유하여 파종원리(마 13:1-23), 관리원리(눅 13:6-9), 그리고 수확원리(마 9:37-38)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선교의 의미와 목적을 규명해 주고 사업진척과 성취정도를 알 수 있으며 올바른 평가와 보다 나은 전략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는 면을 그 설명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선교전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99) C. Peter Wagner, 기독교선교전략 (Frontiers in Missionary Strategy),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12.

100) Peter Wagner, C. and E. R. Dayton, eds., Unreached Peoples 1980, III (David C. Cook Pub. Co., 1980), 21.

101) Edward R. Dayton and David A. Fraser, Planning Strategy for World Evangelization (Mich: Eermans Pub. Co., 1980), 16-17.

숙지하게 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그 뜻을 수행하게 하며 연합을 이루면서 선교를 행하는 주체자로 하여금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살아있고도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한국문화의 이해

1. 한국문화의 정의

문화는 어느 형태,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의 깊숙한 부분에 자리잡고 있고, 그 문화는 과거, 현재, 미래적인 연결점이 있으며 따라서 한 사회를 움직여 가는 핵심적인 총체로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전장에서 논한바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전영배는 “문화란 그 민족의 생존에 가장 가까운 물체와 환경에서 발생한다”¹⁰²⁾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문화는 한국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만 발전되어온 고유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시대별 문화를 고찰하여야 한다.

한국학 및 한국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 시작되던 당시의 일본의 식민지 국가라는 시대상 때문에 다분히 문화적 패배주의¹⁰³⁾에 빠져있었고 이는 한국문화의 본격적인 연구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연구가 진척이 되었는데 그 연구는 연구방법 및 연구시 이용한 이론에 따라 성격론(性格論), 원형론(原形論), 정한론(情恨論), 이기론(理氣論)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¹⁰⁴⁾ 성격론은 사회심리학적 기초 위에서 성격, 가치, 의식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하려는 것으로 1922년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 이론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현재의 암울한 문화의 퇴보는 환경의 열악 때문이며, 그 주된 이유는 조선시대를 이끌어 온 유교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의 내용을 개조하여 민족의 성격을 개조하여 민족을 퇴보에서 건져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단순히 가치관만을 다룰 뿐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이나 가치체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2) 전영배, 한국사상의 흐름 (서울: 지구문화사, 1996), 43.

103) 최봉영,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사계절, 1997), 13.

104) Ibid., 이하 참조.

성격론이 민족의 부정적 성격을 드러내어 문화적 패배주의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여 그에 반하여 민족의 우수성을 밝히려는 연구방법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원형론이다. 이는 1927년과 1928년에 육당 최남선이 불함문화론과 단군급기 연구라는 연구서에서 단군을 민족의 원형으로 파악하고 이에 바탕하여 한국문화를 밝(光明), 한(韓, 于)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본격화되었다.¹⁰⁵⁾ 그러나 이 이론은 논리적인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세 번째로, 민족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 삶의 정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한론이다. 이는 1948년 김동리가 '청산과의 거리'라는 작품에서 김소월의 작품인 '산유화'를 분석하면서 시작이 되어 1980년대부터는 심정주의, 인정주의, 한과 한풀이, 신명과 신바람의 용어와 함께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한국인 기본적으로 추구해온 의리라는 개념을 배제한 채 정의 세계를 논함으로써 의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감정에 치우친 부정적인 성격의 경과 한을 강조하게 되었다.¹⁰⁶⁾

마지막으로 이학적 논리체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개화기 이후에 전개된 신문화의 성격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이 이기론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가 정립이 되지 않은 관계로 채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문화를 근원적으로 관찰을 하면 한국문화가 여러 가지 시대상을 반영하며 내려져 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시대는 각기 다른 종교체계를 하나의 신념으로 체계화하여 문화로 발전시켰음을 알게 된다. 물론 정확한 시대적인 구분은 비록 어렵고, 여러 종교체계가 삶 속에 용해되어 하나의 혼합 형태로 전승되었지만 대표적인 종교체계는 각기 상이한 왕조의 출현과 더불어 명확한 구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역사는 원시사회,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세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구분이 되어진다.¹⁰⁷⁾ 원시사회는 석기 및 청동기 시대를 축으로 하는 씨족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고대사회는 고조선, 삼국시대와 발해시대를 축으로 하고 있다. 중세사회는 고려시대를 축으로 하며, 근세사회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다. 근대사회는 조선 말기, 즉 대원군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일제통치시기를 포함하며 현대사

105) Ibid., 16.

106) Ibid., 19.

107) 참조. 문수홍, 한국사연술 (서울: 삼영사, 1997), 3-10.

회는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까지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¹⁰⁸⁾ 특히 종교체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구분을 본다면 고대사회 이전의 샤머니즘, 고대사회 일부와 중세사회의 불교, 근세사회의 유교, 근대와 현대사회의 기독교의 급성장 등으로 그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있다.

불교, 유교, 도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이후의 일이었다.¹⁰⁹⁾ 그 이전에는 샤머니즘이 한국의 정신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비록 샤머니즘은 일정한 교리나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지는 못하나 이것이 한국의 종교적 바탕을 이루면서 이후에 전래되는 각종 종교와 혼합된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애니미즘을 기초로 하고 있는 샤머니즘은 모든 물체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자연 숭배 또는 정령숭배의 원시사상¹¹⁰⁾으로 원시인들은 죽음으로 육체에서 떠난 영혼을 상상하고 그것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혼백들이 온천지에 출몰하여 인간에게 질병과 기근 등의 재앙과 복을 가져온다고 믿었고 이런 영혼과 인간사이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샤먼, 즉 무당이 생기게 되었다.¹¹¹⁾ 비록 샤머니즘이 범신론이고 확실한 개념은 가지지는 못했지만 전체의 영계를 지배하는 최고신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주를 삼층구조로 보아 상계, 중계, 하계로 나누며, 상계에는 주신(主神)과 선영(善靈)들이 거처하고, 중계에는 인간과 생물이 사는 세상이며, 하계는 악령이 사는 지옥으로 구분을 한다.¹¹²⁾ 이러한 샤머니즘의 사상구조는 각 시대를 따라 주 종교의 역할을 하는 종교가 다르고, 극심한 배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앙으로서 계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규태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 한국인의 마음을 가로로 자르면 층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¹¹³⁾ 즉, 맨 위층은 과학적인 사고층이고, 그 다음은 유교적 사고층, 그 밑에 불교적 사고층, 그리고 맨 아래층에는 샤머니즘적 사고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유동식은 지층과 지핵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한다.¹¹⁴⁾ 가장 깊은 지층은 중국의 문물제도와 불교의 이데올로기이다. 그 다음 지층은 유교문화이다. 그리고 19세기말에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지표층은 기독교를 동반한 서구문명이라는 것이다. 그러

108) 참조. Ibid

109)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5.

110) Ibid., 15-16.

111) Ibid.

112) Ibid., 19.

113) 이규태, 한국인의 샤머니즘 (서울: 신원문화사, 2000), 1.

114)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14-17.

나 비록 지하로 물러앉아 있으나 한국 민중문화의 저변을 흐르는 지핵은 무교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샤머니즘의 공통기능은 사제(司祭), 치병(治病), 예언(豫言)인데 한국무교는 기복(祈福), 양재(孳災), 점복(占卜), 오락(娛樂)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¹¹⁵⁾ 상기 세 가지는 공통적인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한국무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핵을 구성하고 있는 무교의 영향을 받아 의타성, 보수성, 현실주의적 성격, 오락성이라는 민중의 성격은 각 시대에 비록 모습과 명칭 및 강조점은 다를지라도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 시대 기독교 수용과정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샤머니즘적인 주재신 개념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령계와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현실주의적 제재초복(除災招福)의 종교로 받아들여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와 예배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상은 의타적인 샤머니즘적인 사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며 한국 기독교의 보수성도 샤머니즘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¹¹⁶⁾

이처럼 샤머니즘적인 생활사고를 갖고 있는 민중들의 사상적인 배경 위에 고대 사회 및 중세사회로 접어들면서 왕조들은 불교를 수용하게 된다. 이는 불교를 통한 왕권강화와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¹¹⁷⁾ 그러므로 불교는 본래의 취지인 소승불교의 길을 버리고 한국에서는 대승불교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 원래 한국 불교는 화합일치를 이상으로 하여 한국인의 현실을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혼합주의를 형성하여 공리적 현실주의로 타락하고 말았다.¹¹⁸⁾ 전영배는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기술한다.¹¹⁹⁾

죽음을 위로하고 삶을 격려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한국인의 심성에 뿌리를 내려서 미타신앙, 미륵신앙과 같은 기복적 요소가 농후한 신앙을 유행시켰다. 인도적 내세관, 철학관 보다는 서역 중국적 풍토에서 변용된 현세 이익적 기복신앙이 이미 의식화 되어버린 무속신앙과 혼합되어 삼국민의 의식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더욱이 고려말기에는 지나치게 불교가 세속화되어 왕권과 결탁된 관계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115)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29-32.

116) Ibid., 33-38.

117) 전영배, 한국사상의 흐름, 79.

118)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65.

119) 전영배, 한국사상의 흐름, 73.

서는 강한 박해를 받게 되고, 일제시대에는 승려의 90퍼센트 이상이 결혼을 하는 등 일본식의 황국 불교화되어 한국불교가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한국문화 형성에 있어서 불교의 영향력보다는 조선시대의 유교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교는 한국인의 문화형성에 있어서 매우 깊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끼쳐왔다.¹²⁰⁾ 그리고 그 영향에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는 통체 - 부분자적 세계관과 가(家)중심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발전을 하였다. 이는 “태극이라는 통체에서 최초의 부분자인 음양이 생성되고, 이러한 음양에서 오행이 생성되어 음양과 오행이 결합하여 천지만물이 부분자로서 무궁하게 생성되어 나오는 구조”¹²¹⁾를 말한다. 또한 가 중심의 가치체계는 가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조직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혈연집단 가조직, 생업집단 가조직, 전체집단으로 이루어진 가조직¹²²⁾이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가조직하에 두고 자아의 실현을 가의 실현이라는 형태로 추구하는 입신양명적인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교한 명예제도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좁은 의미에서는 가족주의 중심의 문화구조를 만들었고 이것이 집단주의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집단의 존재 당위성이 이 개념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한국문화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이 되면서 고유의 문화들이 말살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지배를 가져오게 된 무기력한 유교지배체제에 대한 염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며, 동시에 서구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위성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가 급성장 하게 된다. 기독교의 경우 개화사상을 지닌 한국인들에 의해 한국의 서구적 근대화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통해 개화를 이루어 부국강병 및 유교의 가치체계를 타파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던 것이다.¹²³⁾ 이것은 초기 선교사들이 취한 정책 즉, 교육사업, 한글을 통한 문화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의료 사업과 더불어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¹²⁴⁾ 그러나 초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근본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모든 문화를 대함으로 인해 재래의 한국 토속 문화와 풍습을 무시하여 서구적 가치체계를 활발히 전달해 줌에도 불

120) 황중연, 한국사상의 이해 (서울: 박영사, 1996), 112.

121) 최봉영, 한국문화의 성격, 422.

122) Ibid., 423.

123) 김병서, 한국사회와 개신교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5), 188.

124) 유동식 외, 기독교와 한국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30-31.

구하고 민족적인 자주성과 긍지를 심기에는 역부족이었다.125)

국가의 주권을 상실함과 이를 극복하려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정확한 한국문화에 대한 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은 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현대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현대사회를 맞이하면서 대가족 중심의 가족사회가 시민사회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어졌다. 1960대 초반 이후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된 공업화 및 산업화는 인구의 대이동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과거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사회는 점차 해체되고, 인구의 절대다수가 도시민을 구성하는 시민사회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다.126)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국문화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확히 확립이 되지 않는 못하였고 한국사회의 급격한 환경적인 변화는 한국문화의 정착화보다는 혼돈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다. 이에 기성세대는 전통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신세대들은 전통 한국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를 지나오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문화의 뿌리가 있다. 그것은 이미 논한 바와 같이 각 시대를 망라하고 내재되어온 샤머니즘적인 문화와, 가(家)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인 문화의 틀이다. 특히 식민세력인 일본 역시 유교적인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유교는 1392년부터 1945년까지의 약 55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하였다. 그러므로 샤머니즘과 유교의 배경 하에 현재의 한국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기성세대가 과거에 주로 시행되어 온 것에 대한 보존적인 전승자를 자처한다면, 과거 한국문화를 인식하고 신세대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창조적 발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문화를 정의해 본다면 유교와 서구문물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공존하는 가치혼동의 문화, 미정립된 문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2. 한국문화의 전통성과 현대성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한국문화를 조명해 보면, 우리 민족의 전통정신은 경천(敬天), 천손(天孫) 신앙과 신시(神市) 이상이다.127) 이것이 고대 이전

125) Ibid.

126) 황준연, 한국사상의 이해, 269.

사회에서는 샤머니즘으로 나타났고, 고대와 중세사회에서는 불교를 통하여 형성이 되어져 갔으며, 중세사회인 고려시대에는 유교라는 틀을 통하여 발전되어져 갔다. 그리고 그 영향은 현대인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문화의 전통성을 논하자면 현 한국문화는 샤머니즘적인 배경 위에 근 500 여년을 지배해온 유교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유교는 토착화라는 과정에서는 현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였다. 본래 토착화는 외래문화가 전통문화와 접목되는 가운데 문화를 새롭게 하여 외래문화가 전통문화의 틀 안에서 작용하여 전통문화를 변화,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문화의 소산인 유교를 지나치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나머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물론 유교는 이상적인 인격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 주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회풍조를 일으켜 주며, 예례를 중시하는 사람 도리의 풍속을 격려하며, 백성을 귀히 여기고, 도덕을 중시하며 애국하는 실질적인 인생목표를 우리 마음에 심어 주었지만 효용, 경쟁, 창조, 지해(知解)를 경시하여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관념의 부족을 가져다주었다.¹²⁷⁾ 유교의 가치가 지배가치로 통용되었던 결과가 식민지 지배라는 결과로 나타나자 지식인들은 서구문물을 앞다투어 받아들여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서구문화는 우리 전통문화를 존중하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전통사상을 모두 무시되고 이단시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¹²⁸⁾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한국문화와 서구문화와의 긴장이 일어나게 되고 이 긴장은 경제개발 우선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그 골이 깊어져서 아직도 완전히 해결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요약해 본다면 이와 같은 긴장의 핵심부는 다음과 같다.¹²⁹⁾ 유교 지배하의 문화는 조상숭배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효본주의인데 반하여 현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서구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자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의거하여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후자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세대간의 대화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양자간에 대 타협이 이루어져 전통을 포함한 현대 한국문화가 정립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127) 전영배, 한국사상의 흐름, 19.

128) Ibid., 101.

129) Ibid., 151-152.

130) Ibid., 103.

제 3 장

현대공군 사병문화 역사의 특성

제 1 절 공군군종사

1. 공군군종사 개관

실질적인 군종업무가 3군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은 해군이였다. 해군은 1948년 해군이 정식으로 창설됨과 거의 동시에 군종업무가 시작이 되었다. 이는 해군의 창설자이자 첫 참모총장이던 목사의 아들 손원일 제독이 군의 정신무장에는 기독교적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손원일 제독은 정달빈 목사를 1948년 9월 15일 해군중위로 임관시키고 이후 정훈교육을 시켜 신설된 교화(敎化)과장에 임명하여 이를 군종업무의 모체로 삼게 하여 1949년 1월부터 군종 활동을 시작하게 한다.¹³¹⁾ 비록 정식 군종장교는 아니었으나 정달빈 목사는 실질적으로는 한국 군종업무를 개척하여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육, 해, 공군 장교들이 사용하던 용산 군인관사 33호를 빌려 1949년 2월 5일 육군, 해군 장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된 15명의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한국 군종사상 첫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이 건물이 용산 군인교회로 불리우게 됨으로 최초의 군인교회를 창설하게 된다.¹³²⁾ 이후 1950년에는 인천 경비부에 교회가 세워지고 1950년 11월 11일에는 진해 해군통제부에 통제부 군인교회가 창설되는 등 비공식적이거나 발전되어 나갔다. 그리고 1950년 12월 6일에는 해본작명 편 제33 및 34호에 의거하여 해군본부에 최초로 군목실이 설치되고 군종업무 규정도 만들어져 동년 12월 21일 대통령의 명령 이전

131) 공군본부 군종감실, 공군군종사 제1집 (서울: 공군교재창, 1973), 36.

132) Ibid.

에 정식으로 군종업무가 시작이 되었다. 해병대도 1951년 3월 12일에 사령부 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창설이 되고 동년 5월 27일에는 해병대사령부에 정식으로 군목실이 제도화되었다. 동년 7월 1일에는 해병 특사 1기생으로 박창번, 오봉운 목사 등 4명의 목사가 현역 군종장교로 임관함으로 한국 최초의 군종장교가 임관이 되게 된다.

해군에서 먼저 시작된 군종업무는 대통령의 지시로 육군에서도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의 명령 이전에 실질적인 군종활동은 미미하나마 이루어지고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창설된 조선경비대는 육군의 요람인 제1연대로부터 편성이 되었다. 당시 제1연대 부관이었던 강문봉은 미군제도를 연구하던 중 군 안에 교회와 댄스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이것이 군종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¹³³⁾ 또한 1948년 당시 전북 군산에 주둔하던 보병 제12연대에서는 장병들의 정신지도를 위해 종교집회의 필요성을 느껴 인근 민간 목사들을 초청하여 주일마다 예배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육군은 군종업무의 시초로 평가하고 있다.¹³⁴⁾ 그러나 육군 군종업무 시작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1950년 6.25 전쟁 중 미 33사단 10공병대대에 근무하던 무명의 카츄사(Katusa) 사병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 통의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다. 그 내용인즉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첩판으로 무장시키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요지의 글이었다.¹³⁵⁾ 이것이 발단이 되어 감리교 선교사인 쇼우 박사와 천주교의 캐럴 신부, 극동사령부 군종부장 이반 엘 베넷 군목이 예하 사단 군종참모와 회의를 열어 한국군의 군종제도 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고, 1950년 9월 5일에는 쇼우 박사와 캐럴 신부가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한국 군종제도 창설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다짐을 받게 된다. 동년 9월 12일에는 한국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구세군, 성결교가 군종제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대표로 장로교의 한경직 목사, 감리교의 류형기 목사, 천주교의 캐럴 신부를 대표로 선출하게 된다. 9월 19일에는 세 사람의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여 군종제도를 청원하고, 9월 25일에는 쇼우 박사와 캐럴 신부가 다시 대통령을 예방하여 군종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군에서 피복,

13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선교부 편, 군선교신학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출판국, 1990), 359.

134) Ibid.

135) Ibid., 360.

식량 등의 병참관계를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년 12월 21일 대통령 비서실 지시 국방서신 제 29호의 명령이 군에 하달되게 된다. 즉, 종군목사가 각 군대에 다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줄로만 믿고 있었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사람을 택하여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을 근거로 1951년 2월 7일 육본 일반명령 제31호로 육군본부 인사국내 군승과가 설치되고 초대 군승과장으로 대위 김득삼 목사가 임명을 받음으로 육군 군종병과가 창설되었던 것이다.¹³⁶⁾ 이후 1951년 4월 14일에는 군목과로 개칭이 된다.

타군에서 군종업무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6·25 동란 당시 참전한 미공군의 군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근거로 하여 공군에서도 군종업무가 시작이 되었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1951년 가을 한 하사관이 이미 타군에서 군목업무가 시행이 되고 있음에 반해 공군에는 없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군목업무 시행에 관한 건의를 일반참모 비서장 한갑수 소령에게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1951년 가을에 공본 전 참모 및 장병들이 모인 가운데 참모총장과 미 5공군 군목실장인 패터슨(Patterson)을 강사로 군목업무 발족의 계기를 마련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강연회를 기점으로 하여 이후 1952년 2월 10일에 육군 조인숙 목사와 조인원 신부가 공군본부 식당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여 첫 예배와 미사를 드리게 된다. 이것이 발전하여 육군 조인숙 목사와 이삼복 신부를 3군 중 최초로 2급 3호의 문관으로 1952년 3월 30일 임용하여 최초의 공군 군종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는 육군보다 2개월 반이나 빠른 것으로서 비록 육군의 힘을 빌리어 군종업무가 시작이 되었으나 이후는 자발적으로 빠른 성장을 해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문관 신분의 성직자가 군종업무를 수행하던 중 1953년 4월 1일에는 현역 군종장교로 임관하게 된 최성공 목사는 중령으로 조인숙 목사, 박한승 목사, 박희석 목사, 이삼복 신부는 각각 소령으로 강영철 신부는 대위의 신분으로 정식 군종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런 활동으로 공군 각 부대에 연속적으로 군종장교가 보임이 되어 공군 전 부대에 군종활동이 점차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¹³⁷⁾ 그리고 공군 불교는 1968년 3월 7일 국인명 제34호에 의거 군법사 제도가 승인되자 1969년 6월 16일에 특간 20기로 이인수 법사가 임관하여 공군본부에 배속됨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¹³⁸⁾ 이후 기독교, 천주교,

136) Ibid., 360-361.

137) 참조. 공군본부, 공군군종사 제3집 (대전: 공군교재창, 1998), 75.

불교의 3종파 체제로 군종활동이 이루어지며 1980년대 이후로는 국고 지원 하에 종교 시설물이 세워지는 등 점차 활동이 체계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후 1991년 육군소속이던 방공포 사령부가 공군으로 전군이 됨에 따라 공군 군종업무는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교회 수는 배 이상으로, 신도수도 획기적으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종목사 수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1991년 이후로 군종업무는 점점 발전된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다.

2. 연도별 군종사¹³⁹⁾

가. 창설 / 개척기 : 1952-1960¹⁴⁰⁾

(1) 활동개요

이미 전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육군에서 일하던 조인숙 목사와 이삼복 신부를 공군으로 전군시켜 2급 3호의 문관 신분으로 1952년 3월 30일에 군종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시기는 공군 군종업무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각 기지 군종업무를 출범시키는 데에 모든 활동이 맞추어져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공본군목실이 인사국 소속에서 정훈감실로 변경이 되고, 이후 다시 인사국으로 소속이 변경이 되는 등 여러모로 그 지위가 불안정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에 최초로 군종장교가 임관을 하고, 1955년 5월 17일에는 군종병 13명이 선발되어 나름대로의 틀을 갖추게 된다.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1954년 11월에는 오산에서 한·미 합동 군목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등 공군 안에 군목실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행해진 군종업무는 군종장교 수의 부족으로 순회활동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그 중 특기할 만한 일은 1955년 8월 20일 공군 165-1이라는 군목업무규정을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공군 군종업무는 확실한 법적 제도가 마련됨으로서 육군과 해군, 미 공군 업무규정에 의존하여 행해지던 군종업무의 독립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최초 규정은 다음의 6대 업무로 요약이 된다.¹⁴¹⁾

첫째, 예배와 목회업무

둘째, 종교와 도덕교육

138) 참조. 공군본부, 공군군종사 제2집 (서울: 공군교재창, 1986), 94.

139) 현재 육해·공군이 공히 적용하는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다.

140) 참조. 공군본부 군종감실, 신임군종장교 안내서 (2000), 4.

1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부 편, 군선교신학, 396.

- 셋째, 개인상담
- 넷째, 박애봉사
- 다섯째, 대외 공공활동
- 여섯째, 문화지도

또한 K-4 기지에서 1956년에 공군 최초의 기독장교회가 결성이 되고 동년에 삼군 중 최초로 공군 찬송가를 제작하게 된다. 이 시기에 군종업무가 시작된 부대는 공본, K-4, K-5, K-18, K-10, K-2, K-1, K-9, K-14 부대 등이며 K-4, K-5 부대는 기지교회를 건축하여 기틀을 다지게 된다.

(2) 주요약사

1952. 2. 10. 공군본부 강당에서 기독교, 천주교 첫 종교행사 실시.

1952. 3. 30 공군본부 인사국 상전과 소속하에 공군 군종활동 시작.

육군에서 지원된 조인숙 목사와 이삼복 신부를 3군 중 최초로 2급 3호의 문관신분을 부여하여 최초의 공군 군목으로 사역시작.

1953. 4. 1 최초 군종장교 임관(군목 4명, 군신부 2명)

1953. 10. 1 공군본부 정훈감실로 소속변경.

1955. 1. 8 공군본부 인사국으로 소속변경.

1955. 8. 20 최초 종무하사관 교육실시.

1956. K-4 기지에서 최초 기독장교회가 결성.

1956. 삼군 중 최초의 공군 찬송가 발행.

1958. 8. 20 국방부 군종위원회에 최초 공군목사 파견.

1960. 11. 26 공군 기독장교 연합회 조직.

나. 성장기 : 1961-1970

(1) 활동개요

이 시기는 전기의 활동을 근거로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시기이다. 우선 공본 군목실이 그 위상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 인사국 소속으로 있었던 군목실이 1961년 7월 1일 참모총장 특별참모부서로 독립하여 군종실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62년 2월 1일에는 군종감실로 승격이 되어 초대 군종감으로 임동선 목사가 취임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군종업무가 체계화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예하 부대 군종실도

방공관제대대로 군종실이 확대되는 관계로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자연적으로 군종장교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맞추어서 군종업무 표준화에 일환으로 1965년 1월 25일에는 공군교범 265-1 종무병 업무를 제정하고, 동년 12월 30일에는 공군교범 265-2 군목업무를 제정하게 된다. 이 시기의 군종활동은 창설 및 개척기의 활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별한 것은 공군 안에 불교업무가 시작이 된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의해 1968년 불교 군종업무가 승인이 되고, 이를 근거로 1969년 7월 1일에는 이인수 법사가 공본에 배속이 됨으로 불교 군종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

(2) 주요 약사

- 1961. 7. 1 공군본부 인사국 소속에서 참모총장 특별참모부서인 군종실로 독립 공군 군종업무 개정.
- 1962. 2. 1 공군본부 군종감실로 승격.
초대 군종감 대령 임동선 목사 취임.
- 1962. 3. 1 순회 군목제도¹⁴²⁾ 인가.
- 1962. 12. 1 2개과 1개 계로 군종감실 조직 승인.
- 1963. 5. 1 군종교육지 군종 1호 발간.
- 1968. 3. 7 군 법사제도 승인.
- 1969. 6. 16 공군불교 업무시작.

다. 부흥기 : 1971-1980

(1) 활동개요

이 시기는 크게 두 면으로 군종업무의 주된 활동이 나누어지게 된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동안의 성장과 활동을 근거로 하여 이제 종교업무가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기이다. 반면에 불교는 개척기로서 각 부대에서 불교업무를 태동시키는 데에 상대적으로 주력하는 시기였다. 이중 기독교의 종교업무의 성장은 교회 건축으로 표현이 되었다. 1971년도와 1972년 사이에만 5개 교회가 신축이 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 졌고, 독립된 교회를 가지게 됨으로 종교활동은 더욱 부흥이

¹⁴²⁾ 군종장교가 미 보임된 부대를 순회하여 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되는 시기가 되었다. 비록 천주교와 함께 교회를 사용함으로 불편의 소지는 있으나 교회가 계속 건축됨으로 분명 종교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신장기를 가져오게 된 것은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1972년 12월 10일에는 전 군에 일어나는 전 군 신자화 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던 집단 세례식이 1전투 비행단에서 시작이 된다. 이를 필두로 여러 부대에서 집단 세례 운동이 일어남으로 공군 기독교의 부흥기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게 된다. 민간교회는 이미 공군 군종업무 초창기부터 공군 군종장교 및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부흥기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더욱 심도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 군종장교의 유학이 시작이 되고 군인 국제연맹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등 군종분야 각 방면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는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2) 주요 약사

- 1972. 2. 21 공군본부 진중교회 준공.
- 1972. 12. 10 공군 최초 합동세례식 실시(1전투 비행단).
- 1972. 12. 18 서울 기지교회 준공.
- 1976. 5. 8 이건명 목사, 미국 린다비스타 신학대학원에 1년간 교육 파견.
- 1976. 6. 29 군종감, 미 버지니아주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
- 1977. 6. 10 공군 군종업무 규정 전면 개정.
- 1979. 6. 11 제16 전투비행단 기지교회 준공.

라. 도약기 : 1981-현재

(1) 활동개요

이 시기는 이제 군 안에서의 체계를 갖추게 된 기독교, 천주교, 불교 3종파가 안정적으로 군에 기여하는 시기이다. 군 장병들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도구 들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과 동시에 초급간부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병영생활 명랑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군종장교 및 군종병 보수교육 기틀을 확립하며 각종 세계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적인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84년도에는 세계 기독교대회 3군 연합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1996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기독교인대회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 기독교의 경우 국방부를 중심으로 연합 행사가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6.25를 기념하는 영성 수련회가 1990년부터

시작이 되어 이제 만 명이 훨씬 넘는 기독교인들이 3일간 한 자리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기간 중 특기할 만한 일은 육군에 소속되어 있던 방공포병이 1991년에 공군으로 전군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군에 따라 병력면은 물론이려니와, 교회 수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군종목사 수도 늘어나는 등 방공포병 전군은 공군 군종업무에 또 다른 장을 열어주게 된다. 또한 초창기에 건립되었던 교회 건물들이 노후화 됨에 따라 건물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전 시기와는 달리 국고 지원이 됨으로서 더욱 발전된 공군 군종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공군 군종업무는 새 세기와 새로운 세대들을 맞이하면서 더욱 도약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 주요약사

- 1980. 7. 5 명언 명구집 생활의 등불 발간.
- 1982. 7. 1 지역단위 군종활동 활성화(소단위 부대).
- 1984. 9. 27 '84 세계 기독교대회 개최(3군 연합).
- 1989. 10. 11 '89 동아시아 기독교대회 개최(3군 연합).
- 1990. 6. 6.25 영성 수련회 개최.
- 1991. 7. 1 방공포병 전군에 의한 방공포병 군종업무 시작.
- 1992. 12. 21 편제조정으로 단급 이상 부대 겸직 하사 15명 인가.
- 1996. 10. 8 AMCF 아태 기독교인대회 개최(3군 연합).

제 2 절 1990년대 이후의 현대 청년문화 역사

1. 청년과 청년문화에 대한 정의

청년이란 용어는 원래 청소년기(adolescence)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져 왔다. 이 용어는 1904년 스탠리 홀(G. Stanley Hall)이 처음으로 사용을 하였고 이때부터 이 연령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다. 이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및 우리 나라의 경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베이비 붐(baby boom)이 일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게 되었다.¹⁴³⁾ 청소년기의 구분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다.

고전적인 구분으로는 청소년기를 일반적으로 초경 등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이 이루어지는 18-20세 경까지를 이야기한다.¹⁴⁴⁾ 그래서 이 연령을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 초기와 고교 및 대학시기의 청소년 후기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소년법 제2조에서 20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구분을 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법은 현대처럼 교육이 발달하고 사회경제가 번영함에 따른 지능 및 신체의 성숙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용이 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는 동서양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¹⁴⁵⁾

다음으로 심리학에서는 14-15세부터 22-23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 생물학적 접근에서는 청소년기를 육체적으로 성장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지칭하는데, 그 기준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제2증세인 신체적, 생리적 성숙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12-13세, 남자의 경우 14-15세에 시작을 하고 여자는 18-19세, 남자는 20-22세에 성장을 멈춘다고 이해를 한다.

사회학의 개념은 쉘스키(H. Schelsky)의 회의시대라는 저서에서 개념이 정리가 되었다.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 단계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역할을 떠나게 되었으나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14-25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 이용환은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시기를 구분하며 청소년기를 청소년전기(12-18세)와 청소년후기(19-24, 25)로 구분을 해 놓았다.¹⁴⁶⁾ 그런데 이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 더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다.

정범모는 청소년이란 용어 대신에 청년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12-14세에 시작이 되어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과 직업의 책임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정의를 한다.¹⁴⁷⁾ 국어사전에도 청년의 개념을 “20~30세 전후의 젊은 사람”¹⁴⁸⁾으로 정의를 하며, 강석영은 그의 연구서에서 청년기의 영역을 30대 중반까지 확장을 시키기도 한

143)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심리학 (서울: 서원, 1997), 9.

144) Ibid.

145) 권이종,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양서원, 1996), 19-22. 이 분류를 따름을 밝혀둔다

146) 한국 청소년 개발원, 12.

147) 권이종, 청소년과 교육병리, 19.

148) 새 국어대사전 (서울: 한국도서출판 중앙회, 1999), 1231.

다.149)

그런데 최근 사회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다원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청소년기를 신세대 혹은 X세대, Y세대, N(New Generation)세대로 통칭하기도 한다. 군에 들어오는 사병들은 평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입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분류로 보면 청소년 후기에 해당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후 이 시기를 청년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이 시기를 특징 지우는 정의 중에 그 동안 지배적으로 사용되어온 정의는 스탠리 홀(G. Stanley Hall)의 견해인 질풍노도(strum und drang)의 시기라는 설명이다.150)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나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아직도 자신들을 지배하려는 세력들과는 갈등과 저항을 하고, 아직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방황을 하게 되며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는 유아기적인 행동과 정서적인 개입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심리적인 요소를 연구하며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151) 첫째, 청년기는 사춘기에 고조된 본능으로 인해 인격이 취약해 진다. 둘째, 내적인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생기는 심리적인 방어로 인해 행동의 부적응 현상 - 위축, 불복종 - 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서적, 성적 관계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런 일탈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사회학적, 또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과도기적 현상의 원인이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보면서 청년 역할의 특성과 역할갈등, 사회의 기대에서 오는 압력,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 이 시기를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기를 지배하는 압박과 긴장은 내적인 정서적 불안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압력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것이 각기 개인과 대립이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152)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해서 밴드라(Bandura) 등은 청년의 시기가 반드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149) 강석영, "청년 목회 활성화 방안 연구" (신학석사 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7.

150) 한국청소년 개발원, 청소년심리학, 10.

151) 남승희, 청소년은 누구인가? (서울: 서원, 1993), 20. 여기의 분류를 전적으로 따름을 밝혀 둔다.

152) Ibid., 25.

것이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한다.¹⁵³⁾ 청년의 시기가 이처럼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보이게 된 것은 기성세대의 지나친 반응과 대중매체의 과장에 기인한다고 보며 사회화 학습 과정을 통한 모방, 모델학습 등을 통하여 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 진 개념이 청년에 대한 평생발달심리학의 개념으로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연구해야 한다고 한다.¹⁵⁴⁾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평생의 과업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있어서 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도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내, 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이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이 시기를 별개의 고립된 시기로 이해를 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 시기는 이전의 아동기의 독특한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생성된 시기이고 동시에 다음에 오게 될 시기에도 영향을 주게 될 중간단계의 시기로 이해를 함이 바람직하다. 청년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첫째, 지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간다.

지각적이고 구체적인 사고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로 변모해 가며, 자기중심적인 주관적인 사고에서 객관적인 사고로, 그리고 다시 주관적인 사고로 변모해 간다. 그리고 개별적이던 사고가 종합적으로, 상상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되었다가 다시 상상적으로 변모해 간다.¹⁵⁵⁾

둘째, 자주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가치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된다.

넷째,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

민주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명령은 따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섯째, 타인 지향적으로 변모해 간다.

그래서 현실에 민감하며 인기와 대중성에 잘 동조하게 된다.

여섯째, 또래 집단을 형성한다.

일곱째, 윤리적 자세나 가치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여덟째, 일관성이 결여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153)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심리학, 10.

154) 김재은, 우리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1996), 173.

155) Ibid., 104-105.

아홉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적 충동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다.

열째, 사회적 불의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의식이 강하다.

이런 청년기의 문화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 될 수 있는가?

청년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들 세대들이 나름대로의 행동방식이나 생활양식을 모델로 하여 형성한 독특한 문화이다. 그러므로 청년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나 주류문화에 대한 하나의 부분으로서 부분문화 또는 하위문화를 형성한다.¹⁵⁶⁾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 본다면 청년문화란 그들이 처한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료집단에의 귀속의식을 함양하여 나아가는 노력의 다양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대 한국 청년문화의 진단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업위주의 산업구조가 기술산업사회로 변천되고 정보화사회로 변천되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나 단시일 적이고 가히 혁명적이기 때문에 사회에 맞는 가치규범을 생성해 내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혼동 중 가장 영향을 받는 시기는 역시 청년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각 년도별로 변화의 장을 분류를 한다면 1990년대의 청년들은 해방 후 탈 정치화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다.¹⁵⁷⁾ 1960년대는 4-19세대, 70년대는 유신세대, 80년대는 광주세대 등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청년들이 살았는데 반하여 90년대는 정치적 이슈가 없는 탈 이데올로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⁵⁸⁾

그래서 90년대 들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청년문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¹⁵⁹⁾

먼저는 탈변혁주의이다. 최루탄과 화염병을 잘 모르며 민족과 역사의 질곡을 고민하기 보다 자동차, 컴퓨터, 이성교제, 해외연수 등 강한 개성표현과 자아실현이 그들을 움직이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156) 권이종, 청소년과 교육병리, 151-152.

157) 나필성, "신세대를 위한 설교방법 연구" (목회학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96), 21.

158) Ibid.

159) 강석영, "청년목회 활성화 방안 연구," 11-13.

다음은 탈 역사 의식이다. 공산권의 붕괴로 선배세대들이 가졌던 이데올로기에서 신속히 벗어나 현실주의가 갖는 방종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 조직주의와 탈 공동체주의이다. 조직사회나 공동체의 비전을 나누는 모임보다 개인의 취미 생활 등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다.

이상과 같은 90년대 이후 청년세대를 자세히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¹⁶⁰⁾

첫째, 이들은 일제치하와 한국전쟁 이후로 풍요 속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최초의 세대이다.

그래서 삶을 위한 존재의 추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욕구충족의 고차원에 관심을 두며 살아온 세대이다.

둘째, 칼라 TV의 영향으로 시각과 감각을 충분히 발전시키며 살아온 세대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신문이나 책보다는 TV나 Video 등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세대이며 이런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TV의 영향으로 Fashion이라는 강력한 사물평가 기준을 형성시켰다. 이는 근자에 실시된 설문조사로도 증명이 된다.¹⁶¹⁾

청소년들의 TV 시청량을 측정한 설문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전혀 보지 않는다 1.9퍼센트, 30분 정도 3.1퍼센트, 1시간 정도 8.3퍼센트, 2시간 정도 21퍼센트, 3시간 정도 33퍼센트, 4시간 정도 32.8퍼센트로 나타나 거의 대다수의 청소년들(86.8퍼센트)이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도 전혀 보지 않는다 16.8퍼센트, 30분 정도 22.6퍼센트, 1시간 정도 25.4퍼센트, 2시간 정도 20.3퍼센트, 3시간 정도 9.7퍼센트, 4시간 정도 5.2퍼센트로 10명 중 7명(68.3퍼센트)의 청소년이 30분에서 2시간 정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관람도 마찬가지이다. 상반기 7개월간의 영화관람 정도를 알아본 결과 없다 33.1퍼센트, 1편 17.7퍼센트, 2편 17.0퍼센트, 3편 10.1퍼센트, 4편 5.2퍼센트, 5편 6.7퍼센트, 6-10편 7.3퍼센트, 11편 이상 3.0퍼센트로 평균 관람횟수는 2.59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청년기는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세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핵가족 가정에서 살아온 세대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나라는 개념이 더욱 굳건히 축

160) 나필성, "신세대를 위한 설교방법 연구," 7~8. 이 책의 분류를 따름을 밝힌다

161) 임광진, 청소년 문화운동의 현장 (서울: 집문당, 1994), 75. 이하의 자료는 전국 13-18세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1991년 7월에 조사한 통계자료임을 밝힌다.

적된 세대이다.

넷째, 정보 통신망 발달의 혜택을 받아온 세대이다.

편리한 통신망의 확충으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이용한 세대로 편리성 등이 형성
이 된 세대이다.

다섯째, 실용적 학문의 붐으로 인한 실용세대이다.

여섯째, 교육적 평준화와 소득의 증대, 다양한 대학의 신설로 인해 그 어느 때보
다도 고학력을 소지하게 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신세대 출현의 시대적 배경¹⁶²⁾

특징	시대적 배경
풍요세대	산업화의 추진 및 성공
감각세대	TV 등 방송매체의 등장
개방세대	핵가족화, 정보통신망의 발달
실용세대	실용적 학문의 붐
교육세대	교육적 평준화

그리고 이제 향후 21세기에 공군에 입대하게 될 연령층을 지칭하는 낀 세대(between)
도 사회에 등장할 하였다.¹⁶³⁾ 이 세대는 틈에이저와 어린이 사이의 세대를 지칭한다.
이런 면을 통틀어 헨리 나우웬(Henry Nauwen) '내일의 세대'로 정의를 하는데 내일
의 세대가 갖는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¹⁶⁴⁾

첫째는, 내일의 세대는 내향성(inwardness)적인 세대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에 절대 우위를 두며 자아 속으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
세대이다.

둘째는, 내일의 세대는 아버지 상실(fatherlessness)의 세대이다.

이 세대는 연륜, 경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홀로 배우려고 하며 젊은이들 상호
간의 통제는 강화되어져 가는 세대이다.

셋째는, 내일의 세대는 강박적(convulsiveness) 세대이다.

162) 나필성, "신세대를 위한 설교방법 연구," 7-8.

163) 이성희, 디지털 목회 리더십 (서울: 규장문화사, 2000), 84.

164) Ibid., 86-87.

사회가 가치 없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반항적으로 사고하며 방향성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세대이다.

이미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90년대 이후 한국 청년문화는 심각한 가치혼란 속에서 점차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10년을 단위로 큰 사회적인 변혁이 있어 왔기에 기준으로 제시할 만한 문화는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으나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6, 70년대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는 현대 청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 문화는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그 명확한 구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⁶⁵⁾

- 첫 번째, 서구지향
- 두 번째, 자기중심주의
- 세 번째, 개인주의 / 개성중시
- 네 번째, 이해에 기초한 인간관계
- 다섯 번째, 현세주의
- 여섯 번째, 가치관상실
- 일곱 번째, 감각지상주의
- 여덟 번째, 권위부정 / 전문가인정
- 아홉 번째, 패션지향
- 열 번째, 감성의 부가가치
- 열한 번째, 여가중시
- 열두 번째, 도전적 / 추진력
- 열세 번째, 결과중시
- 열네 번째, 인내성 부족

3. 전통 한국문화와 현대 청년문화와의 갈등

전장에서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근대 30년사는 대단히 급변하는 역사였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일관된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고 그 중에 가장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

165) Ibid., 21-23.

의 문화적 방황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전통 한국문화와의 단절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¹⁶⁶⁾

첫 번째는 일제하의 36년간 통치였다. 일제는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전통 문화의 말살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이에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그 다음은 광복 이후 밀어닥친 서구문화이었다. 전통적 문화에 근거한 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그 일본을 무력화시킨 서구의 문물을 보면서 한국사회는 비판 없이 서구문화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하였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변화시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이후 60년대 이후로부터 밀어닥친 경제발전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등은 가치관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에 필연적인 결과로 각 계층간에 극심한 세대 차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특히 기존의 흔들리는 사회구조와 더불어 6, 70년대 한국인들의 가난을 벗어나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기성세대들이 노력하는 사이 청년들은 방임과 결핍과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¹⁶⁷⁾ 그런데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이후 이런 기성세대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서 오늘의 청년문화를 이끌게 된 청년들과 기성세대간의 갈등은 그들이 처했던 환경의 차이만큼이나 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차이의 핵심적인 부분은 가치관의 차이이다.¹⁶⁸⁾ 기성세대들은 부모에 대한 효, 어른에 대한 공경, 선배에 대한 존경, 선후질서의 존중, 남녀유별, 인정의 존중, 조상 숭배, 정직, 성실, 예의의 숭상, 문중, 족보, 일가친척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 나아가려고 한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부모나 선배와 평등의식, 남녀의 평등의식, 인정보다는 법·제도적 관계의 존중, 조상에 대한 제의 소홀, 정직·성실·예의보다는 능력·능력·사무적 관계의 존중, 문중·족보보다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조직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가정에서는 아직 한국사회의 청년은 기성세대들에 의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는 이에 더하여 민주적인 가치관을 교육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는 급진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서는 적응이 되지 않는 구

166) 권이종, 청소년과 교육병리, 137.

167) 참조. Ibid, 137-138.

168) 김재은, 우리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146-147. 이 부분의 분류를 전적으로 채용한다.

조로 점점 나아감에 따라 현대 청년들은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더 세분화(169)해보면 구세대(170)는 사회적·이상적 차원에 강조를 하는 반면 신세대는 개인적, 현실적인 차원에 강조를 둔다. 구세대는 책임, 의무, 정직, 성실이란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신세대는 자유, 정의를 더 중요시한다. 구세대는 개인의 이해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사회전반의 질서와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신세대는 개인의 희생 위에 이룩되는 안정이나 질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구세대는 사회, 국가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두나 신세대는 사회의 동일성보다는 변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세대는 대인관계에서 상하질서, 위계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세대는 평등, 민주, 횡적인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세대는 나이, 학교, 선·후배, 회사의 입사연월일, 행동 등을 중요시 여겨 후배에게는 기회를 잘 주지 않는데 신세대는 구세대의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관념과 의식에 반발을 한다.

〈표 2〉 문자세대와 영상세대의 가치관(171)

문자세대	영상세대
이성적	감성적
옳고 그름으로 판단	좋고 싫음으로 판단
미래의 득실 기준	당장의 좋고 싫음이 기준
동일지향 가치관	이질지향 가치관
남들처럼 살고 싶다	남과 다르게 살고 싶다
자기 절제	자기 표현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의	스스로 가치 창조
타인 의식	자기에게 충실
억제된 감정	해방된 감정
문화의 수동적 향유	문화 생산소비에 참여
소유가치 중시	사용가치 중시

169) Ibid., 226-227.

170) 현대 청년들을 통칭하여 신세대로 명하기에 이에 반하여 기성세대를 구세대로 부른다

171) 김경홍 편, 한국인 트렌드 (서울: 새로운 사람들, 1995), 22. 기성세대를 문자세대로, 신세대를 영상세대로 구분하여 정리한 도표임을 밝힌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세대들을 포함시킨 한국 갤럽연구소의 설문결과¹⁷²⁾를 보면 30대 미만의 청년들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이기적이며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86.9퍼센트), 이기적이다(86.6퍼센트), 예의를 모른다(79.9퍼센트), 돈 계산이 지나치게 정확하다(72.6퍼센트), 감각적으로 사물을 판단한다(71.0퍼센트), 일에 대해 무책임하다(54.4퍼센트), 예의가 없다(24퍼센트)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 결과 총체적인 평가는 신세대들이 바람직해지고 있다(37.3퍼센트) 보다 바람직해지지 않고 있다(48.8퍼센트)가 더 많이 응답되어 세대간의 갈등을 알게 하며, 이들이 주역이 되는 21세기 사회를 불안해하고 있음(52.7퍼센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혼동 속에서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¹⁷³⁾ 그래서 일관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나타난 급격한 변화과정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념적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구조와 서구 사회의 시민문화의 지혜로운 조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분야의 빠른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성세대들이 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 형성을 가로막거나 굴절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되며 성공적인 일관성 있는 현대 한국 청년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군에 있어서도 동일한 노력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군을 지휘해 나가는 세대는 40대 이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들이다. 그러나 군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사병들은 90년대를 살아온 신세대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특히 군은 상명하복에 익숙한 집단이기에 기성세대에 의한 일방적인 가치관의 강요라는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각 군에서 연구되고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성세대가 건전한 현대 사병문화를 가로막거나 굴절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청년문화와 기독교

지금까지 전통적인 사회의 구조는 청년문화는 일종의 성인문화의 하위문화의 한 장으로서만 이해가 되어져 왔다. 그러나 청년문화 역시 엄연한 문화로 인식을 하여야

172) 동아일보, 1992년 9월 5일. 30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173) 정세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현대 한국 윤리 (서울: 교육과학사, 1990), 11-12.

하며, 청년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체계가 있음을 인정을 하는 데에서부터 기독교와의 접목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간교회나 군 교회에 있어서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기보다는 성인들의 가치관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이런 행동양식은 결국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혹은 공군 사병들의 교회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 나름대로의 언어와 감각, 소리, 영상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¹⁷⁴⁾ 이에 대한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¹⁷⁵⁾

첫째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그리스도를 접목시키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닥쳐올 변화에 대해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의해야 할 특징이 있다. 이것은 청년시기는 또래집단(peer group)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며 중요시 여겨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제까지 받아온 가족의 영향력과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로부터 받는 일방적인 지도와 편달에서 벗어나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과 상황에 처해 있는 또래들과 어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것이다.¹⁷⁶⁾ 그러므로 기독교가 청년들의 문화에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또래 집단들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을 강제적으로 떠나 일방적인 명령 체제인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병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신앙공동체인 또래집단을 통해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은 성인들의 결정에 의한 장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도자의 지도하에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문화나 개발계획을 자발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믿음의 공유화를 통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기능적인 유대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¹⁷⁷⁾ 그런데 이 공동체는 소그룹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또래집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면 리차즈의 주장대로 세 가지의 유용한 것이 이루어진다.¹⁷⁸⁾ 첫째는 개인적인 기능으로, 구성원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영적 성숙을 위해 양육하는 기능을 가지게

174) 김재은, 우리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119

175) 임광진, 청소년 문화 운동의 현장, 210.

17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심리학, 166-167.

177) 김신호 편, 젊은이를 깨운다 (서울: 한세, 1994), 28-30.

178)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4), 198-199.

된다. 둘째는 단체적인 기능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서 각자가 체험한 삶을 나누게 되며 이를 통해 소속감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일의 기능으로서 구성원들이 봉사하는 일이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소그룹은 적절한 융통성과 이동성이 가능하고 인격적이고 모험적이며 복음 전도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가 주장하는 대로 소그룹 활동은 역동적인 교회의 네 가지 요소인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와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고 이들 요소를 잘 결합시켜 교회에 필요하거나 부족한 기능들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¹⁷⁹⁾

두 번째,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빠르고도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안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일곱 번째, 즐거워야 한다.

여덟 번째, 일관성 있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가지기 쉬운 교회가 자신들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하는 의구심 및 다원화 시대의 유해한 각종 사상들을 극복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제 3 절 군대문화

1. 군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군에 대한 정의는 우리 나라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군대의 이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국군의 사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외부의 침략이나 내외의 폭력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신성한 의무를 완수하는 데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군의 존립 목적은 국내외적인 도전과 위협에서 국

179) Ron Nicholas, eds.,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역 (서울: IVP, 1986), 23-32.

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¹⁸⁰⁾ 이는 군인복무규율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240호(1992. 1. 5)로 제정된 이 규율에서 국군의 이념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국군의 사명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 군대조직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그 대외적인 목적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되,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분쇄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국외적인 안정보장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또한 대내적인 목적은 나라의 영토나 조직적인 면에서 국가전복의 기도나 국가를 약체화시키고 파괴하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국내적인 안전보장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논술한 군의 정의 및 기능은 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이외에 파생적인 기능으로 사회화 기능, 근대화 기능 등으로 그 정의를 확대할 수 있다.¹⁸¹⁾ 이는 아직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능으로 나라의 안전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몇 가지 파생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에 대한 교육기능, 사회화 기능 및 국가의 근대화 기능인 것이다.

1946년 1월 15일 25,000명 규모의 조선 경비대로 출발한 한국군은 각종 임무를 수행하던 중 6.25 전쟁의 시련기를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60만 대군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군은 현대적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사제도의 도입 및, 최신장비와 무기체계, 그리고 현대적인 부대 관리운영 기법을 받아들였다. 또한 의무적으로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여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부대에 배치되었고, 군의 필요에 의해 외국 및 국내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받은 후 사회에 배출됨으로 한국사회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⁸²⁾ 이처럼 한국군은 헌팅턴의 지적처럼¹⁸³⁾ 한국사회가 후진성을 띠고 있을 때 진보적인 집단으로서 국민에 대한 교육 및 사회화, 국가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군의 조직을 분류해 보면 군은 장교, 하사관, 병과 군무원이라는 4개의 계층으로

180) 장옥상, “군대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5), 14.

181) 참조.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한국의 군대와 사회, 32-38.

182) Ibid., 40-41.

183) Ibid., 47-48.

구성이 되어진다.¹⁸⁴⁾ 이들 계층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먼저 정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⁸⁵⁾

가. 장교

장교는 군대의 기간으로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 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하사관

하사관은 부대의 간부로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병의 법규준수와 명령 이행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각종 장비와 보급품 관리에 힘써야 한다.

다. 병

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복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특히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군은 그 특성상 장교는 지도자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고, 하사관은 조정자의 역할, 그리고 병은 추종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군대문화의 특성

문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문화란 한 집단의 생활양식의 총합이다. 이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을 규정하기

184) 여기에서 군무원은 이미 부대 지역 외에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영외에서 복음에 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로 한다.

185) 공군본부, 공군규정 2-86 (1992. 5. 20).

위해 상징체계, 사회적 규범, 법률, 도덕, 관습, 기술, 물질적 도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개념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한데, 광의의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보편적인 일반문화를 들 수 있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한 사회에 속한 어떤 특정 집단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문화로 구분 지을 수 있다.¹⁸⁶⁾

이상과 같은 구분에 의하면 군대문화는 한국사회가 지닌 일반문화의 하위문화로서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군대의 전통 및 관습 등을 포함하여 군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 생성·발전되어 나온 모든 형태의 상징체계”¹⁸⁷⁾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에 대한 문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는 군사문화와 군대문화로 나뉘어 진다. 군대문화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반면에 군사문화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¹⁸⁸⁾

“군대문화는 군대의 전통 및 관습 등을 포함하여 군 조직 내에서 그 성원들에 의해서 생성 발전되어 나온 모든 형태의 상징체계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회내의 다른 하위문화와 마찬가지로 군 조직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문화”¹⁸⁹⁾이다. 물론 이 안에는 군별, 계급별, 병과별 다른 하위문화가 포함이 되며 비교대상이 없이 자체로서의 문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군사문화는 민군 관계에서 주로 등장하여 민간단체의 보편적인 문화와는 이질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의 개념이다. 한국에 있어서 군사문화의 출발을 근원적으로 규명한다면 일제 36년의 지배에서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은 1960년대 초반이후 30 여년 간 지속되어온 군사정부로부터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¹⁹⁰⁾ 한국군 초기에는 이미 논한바와 같이 군이 근본적인 기능 수행과 더불어 파생적인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편문화와 큰 부조화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으나 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군이 보수, 반동적인 역할을 점차 해 나가게 되면서 군사문화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문화 전체가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별적인 문화 채택이 있어야 하며, 특수집단으로서의 군대문화는 존중을 받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군대문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한국의 군대와 사회, 226.

187) Ibid.

188)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서울: 나남, 1996), 118-119.

189) Ibid.

190) Ibid., 223.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이끈 군사 쿠데타가 그 직접적인 시발이며 그가 선거하기까지의 18년 기간이 군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 공통특성

군대는 집단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 유기체와는 다른 별도의 집단이다. 이 군대가 갖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¹⁾

첫째, 집단의사에 대한 개인의사의 귀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둘째, 군은 어느 집단보다 국가의식을 강조하는 집단이며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셋째, 군은 항상 안전에 대한 위협의 대규모성, 긴박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군은 세 가지의 가치규범을 가지고 있다.¹⁹²⁾

첫째, 국가와 군대에 관계된 것으로서 충성심이다.

둘째, 조직적인 측면으로 조직은 법규, 규정, 수칙, 명령에 의하여 유지된다.

셋째, 개인적 수준의 규범적 가치체계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임무와 관련된 태도와 행위에 연관된다.

그러므로 군은 매일 빈틈없는 일과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임무도 각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에 거의 무관하게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업무의 수행은 집단성원 상호간의 협동 및 유대강화 등 팀웍에 의한 수행방법을 채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강제적인 성격을 표출하는 군대이기에 개개인인 영향받는 문화도 지금까지 밝힌 범주 안에서 부여되고 있는데 장옥상은 그의 논문에서 군대문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⁹³⁾

첫째, 권위주의

이는 강자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이고 복종된 태도를 취하지만 약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자세로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종하게끔 하려는 성향이 있다.

둘째, 보수 안정주의

191) 이동희, 한국군사 제도론 (서울: 일조각, 1982), 144.

192) 조승옥, "군대윤리: 문민통제, 복종, 개인의 가치문제 중심으로", 육사논문집 제27집 (1984. 12), 63-64.

193) 장옥상, "군대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29-35.

셋째, 순응주의

상사의 지시에 얼마나 잘 순응하느냐 하는지의 여부로 군 조직의 우열과 군기 확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의식주의

조직의 가치가 공식적인 행위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폐쇄주의

여섯째, 임무 완수주의

전쟁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군은 이를 종합적인 힘의 결속 결과로 이해를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소홀히 하면 조직이 추구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에 임무 완수주의의 경향이 있다.¹⁹⁴⁾

군이 가지는 공통 특징을 요약해 보면 군은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일시 귀속시키는 특성을 위시하여 다양한 독특한 강제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개인은 이러한 군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왜 개인이 조직에 순응하게 되는지를 연구한 크레취(Krech)는 그 동기를 올바르게 되려는 욕구,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인정받고 거부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 집단 압력상황하에 개인이 자신과 집단간의 의견이 명백히 다를 때 인지되는 부조화를 경감시키려는 방법의 하나로, 집단 압력에 대한 감정적 각성 때문¹⁹⁵⁾이라는 4가지의 욕구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 욕구가 그대로 군대조직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군대문화로부터 파생된 군사문화를 홍두승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¹⁹⁶⁾

첫째, 권위주의. 모든 일이 지휘관 또는 상급자의 결심 자체로 결정이 되며 하급자들의 견해는 오직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획일주의. 군의 특성상 지휘관을 중심으로 통일과 획일성이 요구된다.

셋째, 형식주의. 복장, 태도, 몸치장을 극도로 강조한다

넷째, 보수주의. 국가의식을 강조하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등 보수 지향적이다.

194) 국방부, 국군정신교육교본 (1993. 11), 514.

195) 장옥상, "군대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34. Krech, Crutchfield and Ballancy, Individual in Society (Kogakusha : McGraw-Hill, 1962), 516-522에서 인용.

196)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120-124.

다섯째, 집합주의. 개성을 강조하지 않고 개인이 집합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도록 요구받는다.

여섯째, 완전 무결주의. 전쟁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기에 완전 무결을 강조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면이 있다.

일곱째, 공공 조직주의. 군대 자체가 공공조직이기에 여기에서 공공 조직주의의 문화가 파생된다.

이와 같은 군사문화에 대비해 일반문화는 민주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형식주의에 반하여 실용주의, 개인주의, 경직성에 반하여 유연성, 공공 조직주의에 반하여 직업주의 등을 지니고 있어서 양자간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군사문화는 고쳐 나가되 특수목적에 지닌 집단으로서의 군대문화는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군대문화의 하위문화로서 계층별 계급문화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나. 계급별 특성

(1) 장교

군인은 계층별 본연의 이념과 가치규범을 통해 군인정신과 군인기질의 이상형에 도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정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장교는 권위주의를 동반한 지도자적 이상형에 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러한 성향은 때때로 하사관 집단과 병 집단과의 큰 갈등요인이 된다. 이종인은 그의 공동연구에서 장교들의 직업의식 구성요소를 4가지로 밝혀 주었다.¹⁹⁷⁾

첫째, 국가보위와 국가이익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무제한의 희생적 봉사를 요구하는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서 애정과 충성심, 충성서약 준수, 희생적 봉사, 국익 우선 추구, 장교로서의 책임이라는 하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군사력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전문성(expertise)으로서 충분한 교육, 전문지식, 기술, 판단력과 통찰력, 부대 관리 지식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부여된 임무의 완수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의를 견지하는 단체성(corporateness)으로서 동료애, 상관의 신임, 동료의 신임, 부하의 신임, 일체감

197) 이종인, 독고순, 직업군인의 전문직업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 국방연구원, 1994), 8-11.

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넷째, 명예심, 충성심, 진정한 용기, 불굴의 신념 등을 갖고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는 애국애족의 정신인 군인정신(military mind)으로서 진정한 용기, 명예심, 품위와 인격, 불굴의 정신, 규율준수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볼 때 장교는 강력한 권위의식과 철저한 순응의식을 다른 집단보다 더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기독교공동체 내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게 될 때 기존의 권위의식이 존중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계급적 권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계급적인 권위로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장교는 특성상 진급이라는 고리에 매어 있기 때문에 순응주의의 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물론 기독교 공동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불신 지휘관들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주의로 나타나게 되면 기독교공동체의 직접,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파장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2) 하사관

원래 하사관이란 명칭은 로마군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 당시 로마군대는 3,000명 내지 6,000명 정도로 구성된 한 제대 안에서 1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를 뽑았는데 이들을 프린시팔리스(principalis)라 불렀다. 이들은 병사들의 훈련을 감독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행정 및 군수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600여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중대장의 보좌 역으로도 일하였고 바로 이 제도가 하사관 제도의 전조로 보고 있다. 한국군대내에서는 1894년 12월 4일 발표된 육군장관 직별에 의하여 장교계급과 정교, 부교, 참교의 하사관 계급이 확정될 때 비로소 현대적 의미에서 군조직 내에 하사관 직책이 생겼다.¹⁹⁸⁾ 군인복무 규율에서는 하사관의 역할을 군조직의 교각적 역할, 지휘자 역할, 군 질서유지의 역할, 군 전투력 유지의 역할, 부대 전통유지의 역할이라는 다섯 가지로 명시해 주고 있다.¹⁹⁹⁾

그러나 하사관들은 군 조직이 극단적인 위계구조인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그 권한이 직위로부터 나오며 권한구조상 위계적 성격의 지휘계통을 통한 상

198) 육군 사관학교, 한국군제사 (육본, 1977), 350.

199) 공군본부, 군인복무 규율 제2장 제4절 (1986).

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의무(2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령 및 계급구조가 상향될수록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된다. 먼저는 하사관 집단은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단지 보조자로서만 인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은 열등의식이다. 뛰어넘지 못하는 계급간 구조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심재천의 연구를 통한 통계치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답한 것이 5.5퍼센트에 불과하고 보통은 49.3퍼센트, 열등감은 35.2퍼센트, 심히 부끄럽다고까지 답한 이들은 10퍼센트에 달한다.²⁰¹⁾ 또 주위의 친지가 하사관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서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22.1퍼센트, 적극 만류 19퍼센트를 포함하여 만류가 40퍼센트에 달하고 있다.²⁰²⁾ 이처럼 하사관들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의식이다. 장교집단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성과기준이 다르고 보상체계도 다르다고 판단한다. 또한 권력분배도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²⁰³⁾

이런 의식을 가지는 하사관 집단이 기독교 공동체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군 조직에서 얻지 못한 부분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노력이 단지 신앙적인 면에만 국한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군 계급 구조를 완전히 파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날 때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장교신자들과의 갈등은 공동체 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교들이 평균 2년 주기로 전속을 가는 반면에 하사관들은 한곳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권 행사라는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병

병들은 군대조직의 말단계층으로서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병들은 또한 모병제도가 아닌 징집제도에 의해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군 복무 초기에는 군에서 요구하는 강제적 규범에 적

200) 장옥상, "군대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21.

201) 심재천, "한국 공군 하사관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59.

202) Ibid., 44.

203) 유용수, "공공조직내 집단간 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62-77.

응하지 못하여 불안감이 증폭된다. 육군 1사단 헌병대에서 1994년 1년간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 4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기 군 생활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군가, 소대 병 서열 등 암기 상태 불량으로 집합되어 폭행을 당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요망사항으로 간부와 병간의 대화, 선·후임간의 사랑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²⁰⁴⁾ 물론 군 생활이 적응이 되다 보면 이런 불안 심리는 사라지게 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려고 하는 욕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병들에 대한 복음은 군에 입대한 초기 병들에 적합한 선포와 일정기간 적응된 병들에 대한 선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군대문화와 현대 사병문화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군에 대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과정을 목표로 하여 진행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정을 파리스(J. H. Paris)는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받게 되는 기본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한다.²⁰⁵⁾

첫째, 민간인으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무시당한다.

그들은 단지 한 명의 병사나 부대의 한 구성원으로만 취급이 되며 각 개개인의 사회적 배경은 무시된다.

둘째, 기본 군사훈련시 일반사회로부터 철저한 독립이 요구되며, 다른 동료전우와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무시되게 된다.

셋째, 훈련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인 수준에서만 실시된다.

넷째, 기본 군사훈련은 남성다움과 공격정신에 대한 강조에 치중된다.

다섯째, 기본 군사훈련은 신병들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면에서 억압(stress)되도록 계획되고 실시된다.²⁰⁶⁾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편견들을 버리게 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 내어야 할 더 큰 사회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이 큰 사회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204) 1사단 헌병대, 영창 수감자 설문내용 (1994).

205)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한국의 군대와 사회, 38-40.

206) 훈련시 실시되는 공복, 갈증, 불면 등의 신체적인 억압과 독단적인 명령이나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겠다는 등의 심리적인 억압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탈 권위주의, 평등주의, 소비지향적인 배금주의, 쾌락과 향락 지향의 의식구조 및 대중문화에 젖어 있는 상태로 입대하기 때문에 그 부적응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²⁰⁷⁾

1994년 8월 한국 리서치의 한국 신세대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면 이는 확연해진다.²⁰⁸⁾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58퍼센트), ‘자기 물건에 누가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72퍼센트),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76퍼센트)는 반면에 ‘치한이 여자를 괴롭히면 무조건 가서 돕겠다’는 응답은 39퍼센트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 또한 이들은 편안함과 개방성을 추구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쇼핑이나 여행을 한다’(62퍼센트) 등으로 답변을 하고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볼 경우가 많다’(51퍼센트)고 답변하는 등의 의식 및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대에게는 기본 군사훈련 기간의 일시적인 억압은 효율적이나 실제 군 복무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단순한 관리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세대 장병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회의 조직적이고 참신한 접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 4 절 공군 사병문화의 특성

1. 공군 문화의 특성

공군은 창설시 1,600명의 병력과 연락기 20대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에 독립된 군으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양적이고도 질적인 성장을 신속히 이루어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 공군은 최신에 항공기 등을 운영하는 전략형 공군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량적 증가의 노력은 문화 및 전통,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장비는 최신장비를 운영하나 정신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²⁰⁹⁾ 사회학적인 문화 지체 현상²¹⁰⁾이 발생하고 있다.

공군은 해방 후 새롭게 창설된 군으로서 과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육군과 해

207) 이재윤, 군사심리학 (서울: 집문당, 1997), 147.

208) Ibid., 152-154.

209) 공군본부, 참신한 공군문화 구현 (대전: 공군교재창, 1997), 91.

210) 정신이 물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지칭.

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군이다. 특히 공군 창설요원은²¹¹⁾

첫째,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항공부대에서 활동한 장교들

둘째, 소년 비행 학교 출신으로 항공분야 종사자들

셋째, 대학졸업 후 일본군 장교가 되어 항공분야에 종사한 사람

넷째, 지원병 출신으로 항공분야 종사자들

다섯째, 중국군에서 항공군에 종사하던 사람들

여섯째, 일본 항공대에서 군속으로 근무한 사람들

일곱째, 일본 민간 항공에서 종사했던 사람들

여덟째, 해방 전 한국인 항공회사 및 항공 관계기관에 종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비는 미군의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문화, 미군의 합리적, 기술적인 문화가 혼용이 된 문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²¹²⁾

그러나 점차 공군은 성장하면서 그 군 운영의 기술집약적인 특성상 인력 및 조직에 있어서 소수 정예화 되어 있으며 운용 특성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판단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인력들을 배출해 내려고 하고 있다.²¹³⁾ 그러므로 공군이 창출하려고 하는 공군정신은 다음과 같다.²¹⁴⁾

첫째, 공군은 현대전 특성상 전쟁뿐 아니라 국가간 갈등의 초기 단계에서도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군인은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의지, 임무완수 신념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

둘째, 공군력은 운용범위의 비제한성과 융통성이 중요시되기에 공군인은 자신의 분야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갖고 있는 신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임무특성상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 구성원이 일체감과 상호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첨단장비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공군은 운용되기에 이들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체계가 필요로 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첨단 기술 수용능력을 최적화 하여야 한다.

211) 공군본부, 참신한 공군문화 구현, 90.

212) Ibid., 91.

213) Ibid., 102.

214) Ibid., 103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공군은 사람을 중시하고, 조화와 통일을 추구하며, 자주적인 군으로서의 이상을 다져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군은 기술군이라는 것이다. 각종 첨단장비를 운용하기에 육군과는 달리 기술군이며 그래서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창의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군이다, 그리고 기술군 특성상 사병중심의 육군과는 달리 인적비율도 간부들이 50퍼센트를 차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공군은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군대이다. 미군과 오랜 기간 근무하는 과정 중에 합리적인 성향이 정립이 되어 3군 중에는 가장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군이다.

셋째, 공군의 사병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입대를 하게 된다. 입대의 동기의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편한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휴가나 특박 등 개인의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본래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군에 입대를 한다.

넷째, 최일선 근무자는 간부들이다. 실제적으로 목숨을 담보로 임무에 임하는 것은 사병이 아니라 간부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병사들에게는 덜한 편이다.

다섯째, 쾌적한 근무여건을 갖추고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항공력은 시간이 승패를 가늠하기에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영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영내에 갖가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공군문화는 군대문화이기에 강제문화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자율성이 보장되고 장려되는 문화로서 신세대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문화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공군문화와 타군 문화와의 차이점

앞서 문화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구성원의 약속이라는 면을 고찰해 보았다. 이런 면에서 하늘에서의 작전만을 주개념으로 삼고 근무하는 공군이 가지는 문화와, 바다에서의 작전만을 주개념으로 하는 해군, 그리고 해안선 방어와 상륙전을 주개념으로 하는 해병대, 그리고 지상에서의 작전을 주개념으로 삼는 육군이 가지는 문화는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 필연적인 결론이다.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군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조직이념, 목표, 지표(vision), 지향가치, 운영목표(지휘방침)

군별 항목	공 군	육 군	해 군	해 병 대
목 표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 -전쟁 억제 -영공 방위	국가 보위의 주력 -국토방위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보위의 해양전력 -자주적 해군력으로 전쟁억제 -해양 우세권 확보로 전승보장	국가전략 기동부 대, 상륙작전을 주임 무
목 표	-전쟁 승리 -국익 증진	-조국통일, 민족번영 -자주적 전쟁억제 -모든 지상전투 승리 -국익증진, 정책지원	-해양 활동 보호하여 국익증진 -해군력 현양으로 국위신장	-의명 지상작전 -도서방어작전 -기타 지시임무 수행
지 표	세계일류 정예공 군 건설	지휘방향에 내재	바다로 세계로	호국충성 해병대
지 향 가 치 정 신 덕 목	-기본교리 무형전력요소 (신념, 사기, 단결, 군기) -공군의 결의 -필승, 깨끗하고 씩씩한 군 -협동, 단결, 책임완수 → 공군의 특성 미반영, 군 기본요구 덕목	군인이 필요로 하는 정신 덕목 →군인정신이 곧 육군정신	우리는 영예로운 총무공의 후손이다.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 -책임을 완수하는 해군 -전기를 갈고 닦는 해군 -전우애로 뭉쳐진 해군 -싸우면 이기는 해군	단결, 애민, 인내, 임전무퇴 정신

군별 항목	공 군	육 군	해 군	해 병 대
<p>운 영 목 표</p> <p>지 휘 방 침</p>	<p>-고도의 전비태세</p> <p>-과학적 교육훈련</p> <p>-총화적 안전관리</p> <p>-참신한 공군문화</p>	<p>군심의 결집과</p> <p>국민신망 회복</p> <p>-병영생활</p> <p>정상화추진</p> <p>-직업군인의 삶의 질 향상</p> <p>-국민과 함께하는 육군문화 창출</p> <p>*군을 꿈이 있는 선망의 집단으로 변모</p> <p>즉응전력의 강화</p> <p>-교육훈련의 체질 개선</p> <p>-대적관, 정신전력 등 무형전력 강화</p> <p>-군사대비태세의 질적 개선</p> <p>*현존전력 발휘 극대화</p> <p>미래의 기틀 조성</p> <p>-21세기 통일시대의 육군 구상 및 발전</p> <p>-미래전쟁 수행 개념 연구</p> <p>-기업경영식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p>	<p>대양해군건설준비</p> <p>-엄정한 기강확립</p> <p>-전력 건설</p> <p>-효율적인 군관리</p>	<p>호국충성 해병대</p> <p>-나가자, 기르자, 싸우자</p>

군별 항목	공 군	육 군	해 군	해 병 대
도 출 덕 목	-기술군의 성격 (과학성, 특수성) -핵심전력으로서 자긍심 -깨끗하고, 신선함	-일반군의 성격(보편성, 대표성) -주 전력으로서 자긍심 -민족의식, 미래지향성	-기술군(과학성, 특수성) -해양전력으로서 자긍심 -전통의식, 영웅성	-특수군(강인함, 전통중시) -특수군으로서 자긍심 -전통강조로 단순성, 획일성

〈표 4〉 각 군의 상징체계

군별 항목	공 군	해 군	해 병 대
구 호	“견적 필추”, “필승 공 군”, “정예 공군”, “비천 호 국”, “신바람나는 공군” →추상적, 사변적인 군 요 구덕목 위주 →시대 조류에 따른 적용 (SR, 신한국)	“바다로 세계로”, “필승 해군”, “해군은 신사, 신 사는 정직해” →비전의 구호화, 해군의 특성(신사도) 포함	“귀신잡는 해병”,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 지 않았을 것이다.”, “상 승해병대”, “무적해병대” →인간정서에 기초한 원 색적, 실제적 내용 →인위적 구호가 아닌 각 구호별 전통 존재
군 가	하늘 사랑, 활기찬 공군, 깨끗한 공군	바다, 파도, 갈매기, 깨끗 한 해군	무적해병, 귀신잡는 해 병, 불사조, 전투적 이미 지
영 웅	없음	이순신, 장보고	없음

군별 항목	공 군	해 군	해 병 대
복 장	푸른 제복, 포제 계급장 →전통보다 기능성, 편의성 강조 →기능성과 전통의 조화 필요	흰 제복, 청바지(사병), 모자, 검정색 동정복, 정복 계급장, 양복 넥타이 →국제 보편적 해군 복장 문화 →실용적인 유례를 통한 전통정립	빨간 명찰, 팔각모, 상륙형 머리 →고집스런 복제 유지를 통한 전통유지
상징물	빨간 마후라, 독수리, 보라매	땃, 거북선, 뽕빠이	해병대 모표 (리본, 독수리, 별, 땃)
도출 덕목	필승, 추상성, 자긍심, 개방성, 기능성, 합리성, 약한 전통, 깨끗함, 생기, 활력, 참신성, 낭만, 신사도	신사도, 강한 전통, 역사성, 국제성, 보편성, 고집, 보수성, 낭만, 영웅의식	현실적, 강한 전통, 단결, 강인함, 고집, 일체감, 특수성, 자부심, 인간적, 획일성

<표 5> 대군인식, 입대동기, 매체 이미지, 인력충원, 응집력 정도, 전통 등

군별 항목	공 군	해 군	해 병 대
대군 인식	합리적, 민주적, 전문직, 첨단기술력, 깨끗하고 신선함, 엘리트 의식, 공군에 관한 무지(공군은 조종사뿐이다.)	깔끔하고 멋있다(흰 제복), 신사(사관과 신사), 낭만(배와 여행)	공격적, 전투적, 강인함, 강한 응집력과 근성, 선후배간 엄격한 위계, 강한 훈련, 왕성한 사회활동, 활성화된 국내외 동우회, 개성이 강한 장병 성향(개병대)
입대 동기 (단기 장병)	편한 군생활(연고지 배속, 잦은 외박), 기술 및 지식 학습기회(전문성 제고의 장)	해군의 멋(복장, 영화 이미지, 바다, 여행)	고된 훈련을 통한 단련 기회, 성격 개조, 강한 해병문화에의 막연한 동경, 해병출신 아버지의 권유

군별 항목	공 군	해 군	해 병 대
패 체 이미지	창공, 빨간마후라, 인디 펜던스데이, 파일럿, 브 로큰 애로우 →핵심성 용기, 강인함, 남만, 신사도	사관과 신사, 탑건 →깨끗함, 신사도, 남 만	어쭈곳맨, 돌아오지 않는 해병 →강인함, 임전무퇴정신, 전우애
응집력 정 도	약한 응집력 -다양한 하위문화 존재 (특기, 계급별) -제한된 전투력 발휘 계층(조종사) -공군으로서 자긍심 제 약(지원분야)	강한 응집력 -해군은 모두가 배 를 탄다(사병, 사후) -배가 침몰하면 모 두죽는다.(한배 정신) -직접적 전투력 발 휘 경험 통한 자긍심	강한 응집력 -상륙시 해병은 홀로 남는다. -강한 훈련에 전 계급이 참여한 다. -일사분란한 명령체계 절대 필 요
기지 환경	대도시주변, 고정성(활 주요) →사회 접촉기회 많아 개방성, 합리성	해안 도시, 이동성 (함정의 기지화) →사회 접촉기회 제 한, 보수성	해안 도서, 이동성(상륙의 필요) →사회 접촉기회 제한, 강한 개 성과 전통
도출 덕목	합리성, 민주성, 전문 성, 첨단성, 엘리트 의 식, 참신함, 나약함, 조 종사 중심의 공군, 약 한 단체정신, 유기체적 정신, 개방성	신사도, 남만성, 깔끔 함, 멋스러움, 보수 성, 단체정신, 협동정 신, 일체감, 전통의식	강인함, 폭력적, 결속력, 근성, 엄 격함, 복종, 사회참여정신, 개척 정신, 자긍심, 전우애, 고통의 정 화, 본능적 인간애, 해병가족애

2. 공군 사병문화 특성

공군에 입대하는 신세대 병사들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²¹⁵⁾

첫째, 이병시기로서 이 시기는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하며 혼돈해 하다가 점차 안정되어 가는 시기이며 체력이 점차 강화되는 시기이다.

둘째, 일병시기로서 이 시기는 점차 적응이 되며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며, 소속감을 지향하게 되는 시기이다.

셋째, 상병시기로서 이 시기는 요령을 터득하여 자신감이 생기게 되며 기본육구들을 자유로이 해결할 수 있는 시기이다.

215) 병영생활 개선 연구위원회, 병영생활 개선 계획 (1999), 45.

넷째, 병장시기로서 자기를 관찰할 여유를 가지게 되며 사회 진출을 구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사병들이 공군에 입대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입대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²¹⁶⁾를 보면, 군 생활은 장래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90퍼센트), 나는 우리부대에 배속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80퍼센트), 전투 상황이 벌어진다면 동료들은 결연히 전투에 임할 것이다(88퍼센트) 등 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군의 사병문화는 목적 지향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진출을 고려하는 연장선상에서 펼쳐지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성이 타군에 비해 보장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문화적인 개념으로 공군 사병 문화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16) Ibid., 14.

제 4 장

현대 공군사병 목회를 위한 전략의 수립

제 1 절 현대 공군사병들에 대한 목회적 장애요소 분석

1. 공군조직상의 문제점

현대 공군사병들에 대한 목회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따른다. 그 중 첫 부분은 공군 조직상의 문제이다. 이는 신세대 장병들에 대한 공군목사 의식 설문조사²¹⁷⁾ 결과와 공군 사병선교에 대한 군종병의식 설문조사 결과²¹⁸⁾가 동일하게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즉, 전자의 통계에 의하면 영내사병 모임인 신우회사역 중 가장 힘든 장애물은 병사들 상호간의 제제(32.4퍼센트), 지휘관의 관심부족(17.6퍼센트)으로 나타났고, 후자의 설문결과도 병사들 상호간의 제제(48.6퍼센트), 지휘관의 관심부족(21.6퍼센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목회자의 관심부족과 교인들의 관심부족은 그 영향은 미미하며 기타의 항목을 보면 공군 조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들 상호간의 제제가 너무 강하다.

대부분의 경우 군에 입대한 지 약 11개월 동안에 선임병이 돌보아 주지 않는 한 교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 훈련소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병들이 지속적인 목회적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확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

217) 이 조사는 1998년 1월 공군 군종장교 전체회의에서 총 34명의 공군 군종목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결과이다. 당시 총 인원은 36명이나 해외유학 1명, 회의 불참 1명을 제외한 전 공군 군종목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218) 이 조사는 1998년 9월에 군종병 보수교육에 참가한 공군 전 부대 군종병 3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표 6〉 신우회사역 중 가장 힘든 장애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지휘관의 관심 부족	6	17.6	24.0	24.0
목회자 자신의 관심부족	3	8.8	12.0	36.0
교인들의 관심 부족	3	8.8	12.0	48.0
병사들 상호간의 제재	11	32.4	44.0	92.0
기타	2	5.9	8.0	100.0
합계	25	73.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26.5		
합계	9	26.5		
합계	34	100.0		

둘째, 지휘관 및 간부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별다른 의미 없이 교회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과업이 너무 많다.

넷째, 강제성이 배제된 자율적인 신앙생활로 명목상 크리스찬이 양산이 되고 있다.

다섯째, 6주 간격으로 특박이 실시됨으로 연속적인 신앙생활과 교육이 불가능하다.

여섯째, 시간제 근무를 실시하는 곳이 많아 휴일에도 근무요원이 많은 관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회생활이 불가능하다.

일곱째, 타종교의 견제로 인해 적극적인 내무반 선교활동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2. 공군 군종목사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

효율적인 현대 공군사병에 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군종목사의 소명과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를 위해 신세대 장병들에 대한 공군목사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상기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공군 군종목사로서 해외 유학중인 1명과 결원자 1명을 제외하고 전 군종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가. 군종목사 현황

〈표 7〉 군종목사로서의 경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3년 미만	19	55.9	63.3	63.3
4-7년	6	17.6	20.0	83.3
8-10년	2	5.9	6.7	90.0
11년 이상	3	8.8	10.0	100.0
합계	30	88.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11.8		
합계	4	11.8		
합계	34	100.0		

〈표 8〉 군종목사의 연령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30-35세	26	76.5	86.7	86.7
36-40세	1	2.9	3.3	90.0
40세 이상	3	8.8	10.0	100.0
합계	30	88.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11.8		
합계	4	11.8		
합계	34	100.0		

대상자의 연령은 응답자 중 76.5퍼센트가 35세 이하이고, 36세 이상으로 40세 미만은 2.9퍼센트, 40세 이상은 8.8퍼센트로 공군 군종목사는 군 특성상 매우 젊은 목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종목사 경력도 단기 의무 복무로 사역을 마치는 3년 이하인 경우가 55.9퍼센트를 차지하고, 연장 근무자인 4년에서 7년은 17.6퍼센트, 장기 복무자인 8년 이상 된 군종목사는 1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군 선교는 정책은 14.7퍼센트의 장기자에게서, 실제 사역은 단기 복무자인 55.9퍼센트의

군종목사에 의해 시행된다.

나. 입대 전 신세대 청년들에 대한 사역경험

<표 9> 입대 전 신세대 청년들에 대한 사역경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있다	27	79.4	93.1	93.1
없다	2	5.9	6.9	100.0
합계	29	85.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14.7		
합계	5	14.7		
합계	34	100.0		

<표 10> 사역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2-3년	15	44.1	53.6	53.6
3-4년	3	8.8	10.7	64.3
4년 이상	10	29.4	35.7	100.0
합계	28	82.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	17.6		
합계	6	17.6		
합계	34	100.0		

<표 11> 입대 전 사역 경험이 입대 후 군대 신우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크다	7	20.6	24.1	24.1
상당히 크다	13	38.2	44.8	69.0
보통이다	9	26.5	31.0	100.0
합계	29	85.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14.7		
합계	5	14.7		
합계	34	100.0		

입대 전 현대 청년들에 대한 사역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1퍼센트만이 사역 경험이 없고 89퍼센트는 사역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중 29.4퍼센트는 4년 이상 사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신세대 공군 사병목회에 있어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군종목사가 생각하는 공군사역의 중요도 순위

<표 12> 예비 출석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장교	57	16.8	17.6	17.6
하사관	72	21.2	22.2	39.8
관사가족	96	28.2	29.6	69.4
신우회	99	29.1	30.6	100.0
합계	324	95.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6	4.7		
합계	16	4.7		
합계	340	100.0		

<표 13> 공군사역에서 중요한 대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장교	63	18.5	18.5	18.5
하사관	104	30.6	30.6	49.1
관사가족	62	18.2	18.2	67.4
신우회	111	32.6	32.6	100.0
합계	340	100.0	100.0	
합계	340	100.0		

공군 사역에 있어서 신우회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군종목사는 50퍼센

트에 달한다. 이는 장교와 하사관, 군 가족도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중요하다고 답변한 결과여서 기술군으로서 공군 군종목사의 위치를 알게 해 준다.

라. 신세대 청년들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 및 그 지속성 여부

<표 14> 신세대 청년들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 및 그 지속성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경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4	11.8	11.8	11.8
경험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13	38.2	38.2	50.0
경험이 있으나 현재 하지 않고 있다.	11	32.4	32.4	82.4
경험이 없으며 현재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6	17.6	17.6	100.0
합계	34	100.0	100.0	
합계	34	100.0		

<표 15> 신세대 청년들을 주제로 한 서적들에 대한 연구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9	26.5	27.3	27.3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22	64.7	66.7	93.9
전혀 하고있지 않다.	2	5.9	6.1	100.0
합계	33	97.1	100.0	
결측 0	1	2.9		
합계	1	2.9		
합계	34	100.0		

신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참석 경험이 있는 군종목사는 50퍼센트에 달하나 이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군종목사는 11.8퍼센트에 불과하다. 경험이 전혀 없는 군종목사도 17.6퍼센트에 달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신세대 이해를 위한 서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는 군종목사는 26.5퍼센트에 불과해 신세대 사역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반면에 그 중요성에 따른 실제적인 행동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군종목사의 신세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신세대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연령층이 젊은 관계로 97.1퍼센트가 보통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공군 군종목사들은 공군교회와 공군 사역에 있어서 신우회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 이는 도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신우회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 표 16 > 군종목사의 신세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이해도가 매우 높다	1	2.9	2.9	2.9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14	41.2	41.2	44.1
보통 수준이다	18	52.9	52.9	97.1
약간 낮다	1	2.9	2.9	100.0
합계	34	100.0	100.0	
합계	34	100.0		

고 대답한 통계는 50퍼센트, 중요하다고 답한 통계는 38.2퍼센트로 응답자 중 88.2퍼센트가 이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군에 입대하기 전에 신세대 사역을 한 경우도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결과에서 본 것처럼 신우회와 같은 비중으로 간부들과 가족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고, 군에 입대하여 지속적인 신세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생각과는 달리 신세대 선교 사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신우회 사역과 간부 및 가족에 대한 사역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생각을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 군종목사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공군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공군교회는 공군교회규약이라는 법에 의해 조직되며 운영이 된다. 이 규약에 따르면 조직은 크게 공동의회, 운영위원회, 교회 성장협의회, 성가대, 각 기관으로 구성이 된다. 이중 민간교회의 당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자연직 위원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여기에 기획부, 예배부, 선교부, 봉사부, 재정부, 관리부, 교육부, 감사부로 구성이 된다. 또한 각 기관으로는 기독장교회, 기독하사관회, 신우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유·초등부, 유치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전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공군 교회는 기술군으로 구성된 교회로서 이미 공군 자체 인원구성이 간부와 병들이 5:5이며 이에 따라 군종목사들의 목회적인 중요도 조사도 병들과 간부 및 가족들에 대한 비율이 5:5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신세대 병들에 대한 교회적인 배려는 이 비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게 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군종목사들의 인식 조사에 이하면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신우회에 대한 관심도는 78.8퍼센트가 높다고 답변을 하였고, 군종병들도 62퍼센트가 높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우회 활동을 위한 예산의 지원은 군종목사의 경우 64.7퍼센트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였고, 군종병들도 67.5퍼센트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그 이유로 교인들의 관심부족을 대표적으로 들었고 재정편성 자체의 어려움이라고 답변한 경우도 과반수에 이른다. 이는 공군교회 특성상 군종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의 과반수가 병 중심의 교회여서 재정적인 확보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절한 신우회 예산은 교회 전체예산 중 16-20퍼센트라는 답변이 29.4퍼센트로 많았으나 실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회는 17.6퍼센트에 불과하고 6-10퍼센트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회가 38.2퍼센트로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도 교회예산 편성서에 따르면 연구대상 17개 교회 중, 16퍼센트 이상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회는 2개 교회(11.7퍼센트)에 불과하고, 10퍼센트 이상 12퍼센트 미만이 3개 교회(17.6퍼센트),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교회가 5개 교회(29.4퍼센트), 5퍼센트 미만이 7개 교회(41퍼센트)로 실제적인 운영은 인식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

<표 17> 공군교회와 공군사역에 있어 신우회가 차지하는 비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중요하다	17	50.0	54.8	54.8
중요하다	13	38.2	41.9	96.8
보통이다	1	2.9	3.2	100.0
합계	31	91.2	100.0	
결측 0	2	5.9		
5	1	2.9		
합계	3	8.8		
합계	34	100.0		

〈표 18〉 공군교회의 신우회에 가지는 관심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높다	13	38.2	39.4	39.4
높은 편이다	13	38.2	39.4	78.8
낮은 편이다	7	20.6	21.2	100.0
합계	33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9		
합계	1	2.9		
합계	34	100.0		

이처럼 신세대 병사들에 대한 사역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실제적인 지원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독자적인 재정확보가 어려운 교회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 마련과 교우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표 19〉 공군교회의 연간예산 중 신우회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5%이하	13	38.2	40.6	40.6
6-10%	7	20.6	21.9	62.5
11-15%	6	17.6	18.8	81.3
16%이상	6	17.6	18.8	100.0
합계	32	94.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5.9		
합계	2	5.9		
합계	34	100.0		

〈표 20〉 신우회 연간예산의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충분한 편이다	11	32.4	33.3	33.3
약간 부족하다	15	44.1	45.5	78.8
매우 부족하다	7	20.6	21.2	100.0
합계	33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9		
합계	1	2.9		
합계	34	100.0		

〈표 21〉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목회자 자신의 관심 부족	1	2.9	4.3	4.3
교인들의 관심 부족	6	17.6	26.1	30.4
재정편성 자체의 어려움	15	44.1	65.2	95.7
기타	1	2.9	4.3	100.0
합계	23	6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32.4		
합계	11	32.4		
합계	34	100.0		

〈표 22〉 적절한 신우회예산 비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6-10%	1	2.9	3.0	3.0
11-15%	6	17.6	18.2	21.2
16-20%	10	29.4	30.3	51.5
21-25%	6	17.6	18.2	69.7
26% 이상	10	29.4	30.3	100.0
합계	33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9		
합계	1	2.9		
합계	34	100.0		

두 번째로, 공군교회 조직상의 문제점은 군종목사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주일의 가용시간을 주일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총 36시간인데 이중 가족 심방으로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은 9시간, 간부 및 가족들을 위한 성경공부 시간은 평균 4시간, 행정업무 10시간, 회의참석 4시간, 부서방문 9시간으로 총 36시간이 사용되며 이에 따라 절대적으로 바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신세대 사병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간부나 가족들이 양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공군교회의 신세대 병사들에 대한 사역은 군종목사 각 개개인의 자율에 의한, 개인별 능력에 의한 사역으로 일관되고 있어 사역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제 2 절 현대 공군사병들에 대한 공군교회의 선교현황 조사

1. 공군교회의 선교 프로그램 분석

가. 조직 및 관리 분석

(1) 선교의 출발점 교육사령부

공군사병들에 대한 공군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은 사병들이 군인화 교육을 받는 교육사령부 선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공군 교육사령부에서는 단기간에 집단세례식의 모습으로 선교가 되어져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훈련을 마친 후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게 될 부대에 배치되어서는 여러 가지 신앙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사령부가 공군 사병 선교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3> 교육사 / 공군 전체 세례자 비율

연도 항목	병(하사관포함)	장 교	공 군 전 체	비율(교육사/공군 전체)
1991	1369	100	1763	82%
1992	2360	25	3148	75.7%
1993	2483	381	3757	76.2%
1994	5932	53	7435	80.4%
1995	5101	46	6206	82.9%
1996	7821	252	12719	63.4%
1997(3/4분기)	7090	431	8442	87.4%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각기 연결이 되지 않아서 교육사령부에서 세례를 받은 사병들을 배치부대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시스템 역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공군 사병들에 대한 관리는 교육사령부의 세례와 배치 부대에서의 관리 연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2) 2차적 성장역할로서의 자대 관리

자대 관리는 원천적으로 첫 출발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미 전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교회생활이 강제가 아닌 자율에 의한 생활이다 보니 대부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자유로이 교회에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교육사령부에서 전도된 초신자들이 그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군 각 교회에서는 신우회라는 병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간부나 가족인 신우회 부장 밑에 교사, 그리고 신우회 임원으로 구성이 되는 조직 유형이다.

둘째는, 교구제도를 도입하여 대교구장(부장), 교구장(영외자), 구역장(신우회 형제) 순으로 구성이 되는 조직 유형이다.

셋째는, 부장이 없이 자체적으로 신우회 임원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이며 이는 주로 소규모 부대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직은 규격화 된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기 군종목사의 역량과 교우들의 역량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온전한 선교 공동체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예배분석

공군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양식(219)을 공통적으로 고수해 오고 있다. 다만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의 경우 음악예배의 형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배(220)를 드리며 신우회 주관이나, 음악 그룹을 통해 신우회들을 동참시키고 있으나 군 교회에 맞는 예배에 대한 구체적으로 연구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우회들을 위한 예배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예배 프로그램보다는 성경공부 성격의 모임이 많기에 이 부분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설문결과를 보면 군종목사들은 신우회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을 기존예배 참석 활성화(43.8퍼센트)에 두고 신우회 자체 예배 활성화(15.6퍼센트)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2차적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군종병들은 후자(35퍼센트)가 전자(29.7퍼센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

219) 묵도 / 찬송 / 교독 / 사도신경 / 찬송 / 대표기도 / 성경봉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찬송 / 헌금 / 광고 / 찬송 / 축도 순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다.

220) 찬양과 경배의 시간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특송 / 설교 / 찬송 / 광고 / 주기도문 순으로 일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러나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군종목사나 신우들 모두가 공군사병 선교에 있어서는 예배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군 신세대 사병들을 선교를 위해서는 신세대 사병들에게 적합한 예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기존의 예배와 접목을 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표 24〉 중요한 신우회 사역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제자 양육	53	7.4	7.7	7.7
근무자 방문	109	15.3	15.8	23.4
내무반 방문	140	19.6	20.2	43.6
신우회 자체 예배 활성화	145	20.3	21.0	64.6
기존 예배 참석 활성화	144	20.2	20.8	85.4
특별 이벤트성 행사	101	14.2	14.6	100.0
합계	692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	2.9		
합계	21	2.9		
합계	713	100.0		

다. 특별 행사 프로그램 분석

공군에서 행해진 지난 10년간의 특별 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²²¹⁾ 이 프로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군 교회는 다음의 표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난 20 여년 동안 입대하는 사병들에게 적용을 해왔다. 그러나 사병들은 문화가 바뀔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입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군교회는 계속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위문공연, 간증집회, 민간교회와의 결연행사, 불우이웃 돕기, 월간지 발행, 영화 상영, 체육대회 등으로 요약이 된다.

(1) 특별 프로그램(1986-1997)

221) 참조. 공군본부 군종감실, 공군군종사 제2집, 공군본부 군종감실, 공군군종사 제3집.

〈표 25〉 교육부대 교회 특별 프로그램

명 칭	내 용
신입생도 환영예배 및 졸업생 환송예배	
생도 위로	공수훈련 중인 생도 방문, 위로, 위문품 전달
멸공 종교 강연회	강사 : 고종명 목사, 제목 : 공산주의와 종교
생도 수련회	장소 : 햇불회관, 3일간
부활절 축하예배	기독교생도 성가대 칸타타 공연
사병 체육대회	
야외예배	장소 : 내장산
초청공연	초청 : 염광여상 보배 중창단
연예인 초청 예배	주최 : 청주 기독교 실업인회
기독교생도 여름 수련회	강사 : 이수영 목사, 장소 : 충북옥화대 수련원
특강	강사 : 창조과학회 김영길 박사
3사 체전 연합예배	장소 : 성무관
'89 동아시아 기독교장교 대회 참가	장소 : 광림 수도원
특별 간증 집회	신증철 집사 초청
찬양집회 및 간증집회	윤형주 집사 초청
바이올린 연주회	박효영 양(줄리아드 음대 재) 초청
복음성가 경연대회	중대 대항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 아이스크림 잔치
연합 종교행사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군 선교부, 엘칸토 중창단, 어머니 합창단 방문
찬양예배	본부교회 신우회 방문
비행훈련장교 수료축하예배	
생도 하계 수련회	장소 : 제주도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	
교회 창립 45주년 감사예배	
장병 위문 특별 찬양집회	
대전교도소 방문	수감자 위로

명 칭	내 용
보라매 성가집 발행	복음성가집 발행
찬양집회	늘노래 선교단 초청
가족 연합예배	장소 : 육군 교육사령부
불우 단기사병 위로	위문품 전달
종교 안보 강연회	강사 : 조용기 목사
재직 수련회	
벚엘의 밤	
사순절 작정 기도회	20일간
진주지역 복음화를 위한 산상부흥회	장소 : 실로암 기도원
밀알회 동계 수련회	
재직 영성 수련회	
부흥회	강사 : 박만용 목사
내무반장 위로회	내무반장 격려, 다과회
애광원(장애자 기관) 방문	여전도회 주관으로 장애인 위문
부부 찬양대회	
비디오 성서 대학	
부부 세미나	
O.C.U 주관 조찬 기도회	
기술고등학교 가입교생 위문	여전도회 주관
종교 안보강연회	강사 : 장요한 목사
구역대항 찬양 경연대회	
위문공연	진주 소년소녀 합창단 위문
관사가족 윗놀이 대회	
심령 부흥회	강사 : 고훈 목사
전교인 체육대회	
기독 장병 영성 수련회	

명 칭	내 용
선교 찬양 집회	장소 : 경남 예술문화회관 앞 야외 공연장 주관 : 밀알회
이등병의 밤 행사	장소 : 복지 회관
벚엘의 밤	
밀알회 찬양 전도 집회	
학군 수료 감사예배	
안보 강연회	종말론 대비
결손가정 방문	국민학교 결손 가정 방문, 위로
일일 부흥회	강사 : 문오장 목사
일일 부흥회	강사 : 김만철 집사(귀순자)
3종파 연합 사병 체육대회	

<표 26> 방공포사령부 예하부대 교회 특별 프로그램

명 칭	내 용
위문 방문	무등산 포대 / 사이트 장병을 위문
안보 종교 강연회	장소 : 오산기지 미군극장
새신자를 위한 성경학교	
여단 가족 초청 체육대회	
야외 예배	장소 : 여단 본부
부흥회	강사 : 이인수 목사
주일 찬양예배	기쁨 찬양단 초청 주일
신앙 간증집회	강사 : 안요한 목사
위문공연	초청 : 수원 중앙침례교회 찬양팀
위문공연	초청 : 예림 음악 선교단
군종병 위로회	예하부대 군종병 위로회, 3일간

명 칭	내 용
농아학교 방문	김장 김치 전달
민간 목회자 초청 위로회	예하 포대 종교지원 민간목회자 위로
신우회 찬양 경연대회	
내무반 위로 행사	
여단 군종병 집체 교육	
찬양 간증 집회	장병들의 신앙심 함양
민간 교역자 초청 위로회	여단 내 지원 민간교역자 초청 위로
사랑의 온차 돌리기 운동	
에덴 하우스 방문	신우회 주관 봉사활동
자녀교육을 위한 세미나	강사 : 안덕자 교수
부대 안전 기도회	
찬양공연	초청 : 비파와 수금 찬양단
부활절 기념 촬영 대회	
사격장 위문	
친선 체육대회	육군 도화단교회와 친목을 다짐 동촌 제일교회와 친목을 다짐
수재민 돕기	고산마을에 의류와 라면 전달
소녀 가장 위로	고산마을 소재 소녀 가장 위문
군인교회 성가대 발표회 참가	
멸공 종교 강연회	강사 : 함보호 목사
인형극 선교단 초청 공연	제목 : 사슴과 시냇물
가족 찬양 대회	가족간의 화합 도모
추석맞이 내무반 방문	
101일 성경봉독 새벽 기도회	
심령 대 부흥회	강사 : 서철 목사

명 칭	내 용
장병 인격지도 교육	
찬양 집회	초청 : 복현교회 가브리엘 찬양단
찬양 예배	살렘 찬양단 찬양예배
안보 종교 강연회	강사: 김이종 목사

<표 27> 비행단 교회 특별 프로그램

명 칭	내 용
신우회 좌담회	주제 : 크리스찬의 결혼관
전교인 야외 체육대회	
한미 친선 Soft Ball Game	한미간 친선 도모
친선 체육대회	신우회 주관으로 육군두루미교회와 친목을 다짐
대심방	
심령 부흥회	
성탄 축하음악회	
신우회 MT	장소 : 헬몬산 기도원
교회환경 미화작업	
무의탁 할머니 위문	성노원 방문 베데스다 요양원 방문
종교강연회	강사 : 한완석 목사 장병국가관 확립 도모
특별신앙 강좌	제목 : 진화론과 창조론의 실제
성탄절 불우이웃 돕기	

명 칭	내 용
이슬비 전도 강습회	
일일 신앙 강습회	강사 : 윤경구 목사 장소 : 담양 변화산 기도원
감사절 초청 잔치	신도 외 430명 초청
대대 찬양경연 대회	신우회 주최
부흥회	강사 : 고용복 목사
'사랑의 빵' 운동 동참	소말리아 난민 및 어려운 장병 돕기
신년 축복 성회	
제직 수련회	
부활절 장병 찬양제	
군인교회 성가 발표회 참가	
구역 찬송경연 대회	
신우회 문학의 밤	
장병 찬양제	전 장병, 군무원 참석
참빛지 발행	신우회 월간지 참빛지 발행

명 칭	내 용
종교 강연회	강사 : 장선옥 목사, 김태동 목사
장병 선교의 밤	초청 : 진주 경배와 찬양 선교단
진주지역 연합찬양 집회 참석	
개미 바자회	
신앙 간증 집회	김만철 집사 초청
작은 음악회	
3개 종파 체육대회	종교간 화합 도모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바자회	
가족 찬양 경연대회	
자살 방지를 위한 세미나	장병들의 정신 전력 강화
위문 공연	햇불 합창단 초빙
예수 1천명 초청 큰 잔치	1,800명 참석
양들의 합창 경연대회 개최	
부활 칸타타 예배	
포도 마을 방문 위문	무의탁 노인 보호시설 방문 위문
부부 찬양대 발족	
크로스웨이성경 연구원 강좌개설	
원주지역 성가 합창제 참가	
자연보호 운동	신우회 주관
20일 작정 새벽 기도회	
신약 성경 필사	
사병 신앙의 날 행사	초청 : 영원한 찬양팀
자녀 교육 세미나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실시
부부생활 세미나	
구약 성경 필사	
사병 신앙의 날 행사	강사 : 김민식집사

명 칭	내 용
새봄 성경학교	
아시아태평양 기독교인대회 참석	
신우 하계수련회	
전교인 체육대회	신우회와 함께 전 교인이 체육대회를 함
성전 건축 후원회 밤	초청 : 김장환 목사
에벤에셀의 밤	학생부 문학의 밤
찬양 공연	전주 태평 성결 교회 현악부와 가스펠 교사들의 찬양공연
일일 부흥집회	강사 : 김신조 집사(귀순자) 주제 : 나는 3번 살았다
초청 공연	군산 영광여고 합창단 초청 전주 한일신학대학 온누리 선교단 초청 한국 콘티넨탈 선교단 초청
복음성가 경연대회	중대 내무반 대항
이등병 초청의 밤	전대 내 이등병 초청 위로
신우회의 밤	신우들의 적극적인 신앙활동과 유대 강화
도서관 개관	기지교회 교육관에 도서관 개관
경로당 위문	
특별 신앙 집회	강사 : 전을성 목사
찬양의 밤	대구 신성교회 성가대 방문
내무반장 위로 행사	
장병 위문 음악회	초청 : 바디매오 중창단
교사 대학 개강	
복음성가집 제작	'때가 차매' 제작
송편 잔치	추석 맞이 신우회를 위한 송편 잔치
온누리 중창단 창단	창단 기념 공연
불우 이웃 돕기	선교부 주관
장병 결혼식	
RENOVARE 새벽 제자반 개강	
최선의 삶 및 새벽 제자훈련 개강	

명 칭	내 용
위문 공연	엘칸토 예술 중창단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찬양의 밤	주최 : O.B 찬양팀
신우회 체육대회	
부흥사경회	강사 : 이상선 목사
NIV 영어 성경 공부	매주 토요일 실시
478주년 종교 개혁 기념 세미나	강좌개설 : 역사신학적 의미에서의 구원론개요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기지교회 주관으로 장병 상호간의 이해와 친선 도모
전장병 건전가요 및 찬양경연대회	
제직 및 청지기 수련회	
선교의 밤	강사 : 유상환 선교사(필리핀 선교사)
소년, 소녀 가장 초청	부대견학 및 위문(신우회 주관)
O.C.U 주관 강좌	강사 : 양은순 사모, 제목 : 좋은부부 행복한가정
신우회 부모 초청행사	
신우회 발표제 개최	“예수 큰 잔치”
방공포 장병 초청 위로 행사	
웃놀이 대회	신우회 주관
정비대대 초청 위로행사	
신우회 전역자 축하파티	
T.B.C. 성경 공부반 개강	
·단기 사병 훈련소 방문	
군수사 파견장병 방문	장병 방문, 위로
초소 방문	여전도회, 신우회 합동
송년 특별 여리고 새벽기도	
찬양집회	초청 : 서울 순복음교회 찬양단

명 칭	내 용
사랑의 차 돌리기	신우회 주관
총 진군 특별 새벽 기도회	
근무자 위문	대상 : 무장공비 남침 경비 야간 근무자
성경학교 개설	
청지기 수련회	2일간
전교인 찬송 경연대회	
장병 위문	팀 스피리트 훈련 중인 장병 위문
관사 경로당 방문 위문	
신우회 총동원의 날	
3종교 친선 영외자 체육대회	
3종교 친선 사병 체육대회	
성경일독대회	여전도회 주관으로 50일간 실시
종교개혁 기념 주일예배	
음악 예배	초청 : 엘칸토 예술 중창단
추계 부흥회	강사 : 김장환 목사
어린이 겨울 수련회	
3종교 친선 배구대회	
요단 도하 30일 작전	신약성경 쓰기 대회, 생명의 전화 개통
가정, 자녀 양육 세미나	강사 : 서울 신대 김종환 교수
사랑의 빵 모금 운동	
임마누엘 발표회	주일학교 예술제
심령 부흥회	강사 : 최남수 목사
전 교인 윗놀이 대회	
전역 신우 초청 만남의 행사	
교사 대학	
학생회 수련회	장소 : 제천 심탄 야영장

명 칭	내 용
이단 종파 세미나	강사 : 탁지원 전도사
사랑의 집 방문	OCU와 성우회 연합
신우회 헌신예배	강사 : 정민조 목사
특별 찬양 집회	루디아 찬양 선교단 초청
격오지 장병을 위한 바자회	
부대 공연	초청 :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표 28〉 30방공관제단 교회 특별 프로그램

명 칭	내 용
장병 인격 지도 교육	307대대 장병 방문 309대대 장병 방문
영창 방문	수감자들에 대한 선도활동 실시
수원 중앙 양로원 위문 방문	
진주 합동 결혼식 지원	성가대, 피아노, 화환 등을 지원
여전도회주관 성경 읽기 대회	40일 동안 실시
사병 간담회	
방포사 내무반 방문	
안보 종교 강연회	강사 : 최해일 목사(서울 남부 교회)
신우회 발대식	연예인 임동진 장로 초청 간증집회
송년주일 사무총회	
전교인 송년회식	
제자훈련반 수료식	
L.S 40일 작전	
신약성경 쓰기대회	
복음성가경연대회	신우회 주관
교구장, 구역장 교육 수련회	
부부 생활 세미나	11일간 일정으로 실시
위문공연	초청 : 미 본토 크리스천 대학 선교합창단
한, 미 연합예배	

명 칭	내 용
전도 집회	초청 : 김경태 장로(SBS 코미디 전망대 앵커)
불우사병 초청 위문행사	
노인 초청잔치	성우회 주관
인격 지도교육	강사 : 김장환 목사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 2주일
성탄절 연주회	초청 : 수원중앙 침례교회 어린이 교향악단
불우이웃 돕기 일일 바자회	
전교인 찬양대회	
잃은 양 찾기 운동	전도부흥 목적
사이트 군종병 보수교육	
사랑 나눔 바자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 마련
민간 교역자 안보 현장교육	
견학활동	모범 사병 24명 인솔
어린이 제자 훈련	
일일 분식점 경영	수익금 전액을 도서구입비로 기증
신우회 주관 성극 공연	
주일학교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대회	
복음성가 발표회	
천사 보육원 방문	
마라톤 대회 개최	군종실 주최
목요 특별 집회	강사: Douglas Whitesigh (국제군복음화 선교회장)
이사들 양로원 방문	신우회 주최
총신대 남성합창단 공연	
사랑의 선물 증정	불우한 사병 선발
목요 상담실 운영	
특별 집회 및 침례식 거행	초청 : 양희협 목사(군경 선교회장)
위문 공연	초청 : 성안교회 예랑 중창단
추수 감사절 맞이 탁구대회	

명 칭	내 용
신우회 기도회 조직	
위문품 전달	초소용 전기난료와 쿠키 전달
PC 교실 개설	신도들과 부대 장병들을 위한 강좌 개설
백령 음악회 개최	장병들의 정서함양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신망원 방문 위로	고아원 방문
관사 예배	장소 : 분견대 내무반
위문 공연	우성 감리교회 부대 방문 위문
음악을 통한 선교	엘림 음악 선교단 초청
부부 세미나 개최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얻음
부대 신문 창간	제목 : 한사랑 이야기
음악회 개최 및 장병 위문	초청 : 실내악단 소망 합주단
위문 공연	초청 : 영원한 찬양단
내무반 대항 복음성가 경연대회	
장병 찬양단 조직	
기타 교실 개강	
전 장병 캐럴송 경연대회	
연속 기도회 실시	관사와 기지교회 장병들의 신앙 고취
신학 세미나	
신우회 성경 모임 개설	
장병 찬양의 밤	
중창단 공연 및 위문품 전달	초청 : 기드온 햇불회
기지 찬양의 밤	
관사 가족 친선 볼링대회	
위문공연	초청 : 소망합주단(실내악단) 서울 가리봉 교회 찬양 선교단
내무반 순회 예배	
마산 통합병원 방문 환자 위문	

명 칭	내 용
종교 강연회	강사 : 김시준 교수
시한부 종말론 종교교육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송대회	
종교 안보 강연회	강사 : 전을성 목사 홍문수 목사

2. 사병문화와의 적합성 분석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공군 교회의 신세대 병사들에 대한 선교활동은 사병문화와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기성세대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세대 병사들에 대한 선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변혁시도가 요청이 되는 것이다.

제 5 장

현대 공군사병 목회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시 및 발전

제 1 절. 현대 공군사병 선교 및 영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과과정의 수립

1.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의 필요성

공군뿐 아니라 전 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전장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집단 세례식이다. 이는 전 군 신자화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 출발점을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가. 전군 신자화 운동의 선교 신학적인 배경

(1) 전군 신자화 운동의 정의

전 군 신자화 운동이란 한국군이 낳은 새로운 용어로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문자대로 60만 한국군을 모두 신자화²²²⁾하여 한국군대의 복음으로 무장된 군대화 및 더 나아가 한국 전체의 복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운동이다.

(2) 전군 신자화 운동의 동기

전군 신자화 운동이 시작된 것은 불신자 지휘관의 강한 군대 양성에 대한 지휘 철학에 의해서였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청와대 기습시도 사건 및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과정 중 국가안보와 군 정신무장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되었고 이 정신무장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대한 고민이 대두가 되었다. 이런 과정 중에 1969년 한신대장이 일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반공을 위한 정신무장 강화는 군 구성원 전원의 신자화를 만드는 데 있다고 판단하여 군 종참모인 한준섭 대령에게 군종활동 강화를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70

222) 육군본부, 육군 군종사, (1955. 9. 30), 69.

년 9월 16일에 있는 사단급 이상 군종장교 회의에서 신자화 운동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 군종장교들이 신자화 운동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²²³⁾

(3) 전군 신자화 운동의 성과

지휘관의 강력한 후원하에 시작된 신자화 운동은 당시 군종목사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의 더 말할 수 없는 좋은 기회로 여겨져서 활발한 군종활동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 활동은 합동세례식이라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신자화 운동의 전성기라고 여겨지는 3년(1971. 11. 25-1974. 9. 24)기간에 1회 1천명 이상의 세례식이 25회에 걸쳐 진행이 되어 36,289명의 결신자가 나왔고 크고 작은 합동세례식은 103회에 연 인원 60,975명의 결신자를 얻게 만들어 주었다.²²⁴⁾ 1971년부터 1973년까지의 중요 세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9〉 초기의 중요 합동세례식

일 자	부 대	세례인원	비 고
1971. 11. 25	육군 26사단	1,460	최초 세례식
1971. 12. 5	육군 5사단	1,005	
1972. 3. 9	육군 28사단	1,009	
1972. 4. 25	육군 20사단	3,473	최대 세례 인원
1973. 4. 26	육군 수도 사단	451	장교 36명 포함

이런 신자화 운동은 본래 군이 요구하던 바를 충족시킴으로 더욱 확고한 기반을 가지게 된다. 즉,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크게 감소해 간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 냈다는 것이다.²²⁵⁾

223) Ibid., 69-70.

224) Ibid., 79-84.

225) 육군본부, 인사보, (1985. 1. 20), 83.

〈표 30〉 군신자 증가와 사고 감소표

연도	구분	군 신 자 수	군 사 고 자 수
70		110,033	19,248
71		174,354	14,708
72		243,346	11,200
73		279,102	9,041
74		346,377	3,334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제시가 되면서 육군에서는 1973년도 말 48퍼센트 선에 있는 종교인수를 50퍼센트로 증가키로 육군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전 군에 시달함으로 정식으로 육군에서 권장하는 주요 업무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이런 영향은 공군과 해군에도 미쳐지게 되었다.

(4) 전군 신자화 운동의 신학적인 배경

전군 신자화 운동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선교이론은 도널드 맥가브런의 교회성장운동(*Church Growth Movement*)이다. 교회성장운동은 목표 중심적인 운동이며, 또한 모든 전도운동의 결과가 가시적인 개교회 통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용주의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이해를 한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운동은 모든 복음 전도운동이나 선교활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선교의 명령에 입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²²⁶⁾

교회성장운동의 주요전략은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s of God*) 원리이다. 이 원리는 처음에 교회 지도자나 선교사가 어떤 감수성이 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어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는 전략이다.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 맥가브런은 이 원리를 1930년대 초기에 피켓(*Jarrell Waskom Pickett*)이 시작한 인도의 선교형태에서 배웠다. 이른바 집단 개종운동이라는 책을 통하여 피켓은 인도의 하위 계층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가를 기록을 하였다. 그런데 맥가브런은 이 현상이 비단 인도에만 국한 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1950년대 초에 알게 되

226)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 문화사, 1978), 205-206.

어 이를 근간으로 1955년에 하나님의 다리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게 된다.

가장 전달력이 있는 전파는 믿음만한 신자들의 기존 사회망에서 일어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친척들, 친구들, 동료직원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227)

이는 성서적으로도 입증되 된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안드레가 바로 형 시몬에게 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군대 마귀 들렸던 사람을 고치신 후에 이 사실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고 하시며 이 사람을 보낸 기사가 있다. 그러므로 집단개종이란 이 하나님의 다리라는 원리를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집단이란 무엇인가? 맥가브런은 집단이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것이 집단의 개념이다. 집단은 구성원이 오로지 그 안에서만 결혼을 하는 사회이다. 그러한 계급이나 종족이 실제로 다른 것들과 인종적으로 구별이 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아들들이 자기의 백성들 중에서만 아내를 취하는 한 그것은 자신을 정말로 따로 독립된 민족으로 생각할 것이며 강력한 <집단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생활은 구 자체에 한정될 것이며 씨족 충성심이나 집단 충성심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228)

이처럼 집단 개종운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유기적인 접근 방식에서 출발하며 이는 교회와 집단간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맥가브런은 집단개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29)

집단개종이란 그들의 비기독교인 친척들과 충분한 접촉을 하며 그리하여 그 집단의 다른 그룹으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적절한 교훈을 한 뒤에 유사한 결단에 이르도록 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오로지 이루어진 교회를 형성하도록 하면서 모두가 동일한 집단에서 나와 사회적 이탈 없이 그들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많은 개인들의 공동의 결단에서 생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맥가브런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 집단 안에서 가장 잘 역사하며 기독교

227) D. McGavran and G. G. Hunter, 교회성장학 (Church Growth),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3), 26-27.

228) 간하배 편, 교회성장의 신학,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41.

229) D. McGavran, 교회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2), 433.

교가 가장 능력 있게 일어난 때는 집단들 내부에서 일어날 때였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집단개종운동을 통해서 많은 종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의심한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세계 교회사에서 교회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교회의 성장 이유 중의 가장 큰 요소는 군대, 학원, 산업선교 등의 동질 구성집단에 대한 집중선교 수행에 따른 집단 개종운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²³⁰⁾

이상과 같은 고찰처럼 군 신자화 운동의 중요부분인 집단 세례식이 철저한 신앙인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있어서 모든 회심자의 2/3는 집단 개종을 통하여 얻어졌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처음 비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로 전환했던 모든 사람들의 90퍼센트는 집단개종으로 생겼기에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집단개종 회심자들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³¹⁾

그러므로 한국군의 전군 신자화 운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다리가 적용된 집단개종운동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5) 집단 세례식의 정당성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개종자들에게는 중생의 신앙을 표현하는 결례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행해졌었다. 이것이 세례요한에게 와서는 결례의식과 더불어 회개와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도덕적 정결의 필요가 첨부가 되어져서 세례라는 관문을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 공동체가 발전을 하면서 2세기말부터는 세례를 받는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세례 입문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중생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결례의식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에 와서는 6개월간의 학습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6개월간의 세례교육을 거쳐서 세례를 행하는 1년의 구조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런 교육 기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최초 교회 공동체 안에 행해졌던 근본적인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고,

230)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보이스사, 1985), 192.

231) D. McGavran, 교회성장학, 434.

이런 면에서 훈련소에서의 세례식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3,000명의 회심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대로 신앙이 고백된 사람들에게 세례가 행해졌고 그들 모두 초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또한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복음을 듣고 간절히 소망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곧바로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간수의 모든 식구들과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간수와 루디아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바울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 이처럼 성경은 세례준비를 위해 교육계획이 반드시 뒤따랐다고 하는 증거를 어느 곳에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로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임과 자발적인 소망의 세례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군신자화 운동 과정에서의 집단세례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고쳐져야 할 것이며 더욱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단 세례식은 분명한 신앙 고백에 의거하여 집례가 되나,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 본인들이 근무하게 될 부대교회와의 연결이 되지 않아서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훈련소의 집단세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병들이 자대에 배치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첫째로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대에서의 근무하는 사병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이다. 사병들이 훈련 후 약 2년 6개월을 근무하는 자대에서 체계적으로 양육시킬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군종목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여부가 결정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사병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자원 양성 체제의 미비점이다. 단순한 보조 역할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분명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 근거해서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이 요구하는 신앙의 역할과 교회가 목표로 하는 역할 차이점의 조화 문제이다. 교회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군은 강인한 군인 양성을 먼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을 통한 강인한 군인양성이라는 목표를 조화시키지 않으면 지휘부에 의해 사전에 모든 활동이 차단될 수 있다.

둘째, 훈련소에서 세례 받은 사병들의 각 자대교회와의 효율적인 연결 문제이다. 현재는 교육사령부에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자대에서 세례여부를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 그러므로 어느 부대에 배치되어 가든지 원활히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공군이 자율적인 군이라고 할지라도 군은 임무 우선 위주로 운영이 된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앙양육 프로그램도 짧은 시간에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넷째, 연속적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부재하다. 공군사병은 6주 간격으로 특박을 실시하기에 연속적인 신앙훈련이 어렵다. 그러므로 과정 당 장기간의 시간운영보다는 단기위주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병선교에 대한 선교 마인드의 문제이다. 사병선교는 가시적으로 교회에 도움을 주는 선교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병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간부 및 군 가족 신자들 가운데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병선교는 가족들의 선교 인식 변화와 더불어 진행이 되어야 하며,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현대 공군사병에 대한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

가. 훈련소 교회와 자대교회와의 효율적인 연결과정 수립

훈련소인 교육사령부 교회와 자대교회와의 기존의 연결방법은 이미 논한 바와 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치부대에서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는 군의 보안상 문제로 명단을 집단적으로 유출할 수 없다는 점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부대에 자료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기존의 전산망을 중심으로 자료를 전달할 공군교회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 전산화 작업은 기존 교회관리 프로그램 업체인 한나 컴퓨터의 미션 2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공군 실정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2000년 1월 21일에 계약하여 3월 6일에 개발을 완료하여 공군교회에 배포를 하였다. 그리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인관리와 장병신자관리로 이원화되어 운영이 되며 기존의 인터넷 업체의 전산망을 통하여 e-mail로 자료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로 편성이 되었다. 특히 장병신자관리 부분은 입력사항을 최소화하여 군 보안에도 저촉이 되지 않게 하였고, e-mail로 전국 공군 교회에 전송이 되게 하고, 각 교회에서는 받은 자료를 다시 프로그램에 저장하여 새로 부대에 전입해 오는 장병들의 세례유무를 쉽게 파악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 중 특히 장병신자관리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나. 교인입력 및 자료 통합작업

(1) 교회별 입력작업 일정

Mission21Plus 수령 : 3월 2일

교인 및 사진 입력작업 : 3월 2일 ~ 3월 31일

교회별 자료 활용 : 3월 31일 이후

(2) 지역별 자료 통합작업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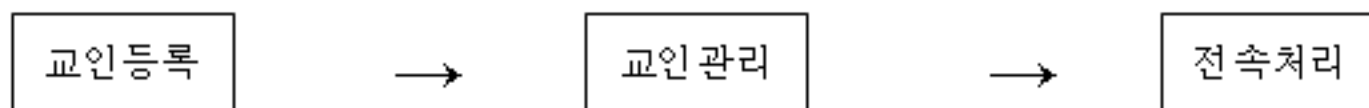
지역별 자료 수집 : 4월 1일 ~ 4월 24일

공본 통합작업 : 4월 25일 ~ 5월 1일

본격적인 운용 : 5월 1일부터

(3) 교인관리

(가) 교인관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인기초자료 등록 ▣ 전입교인 등록 (E-mail) ▣ 심방, 교인신상조사 ▣ 가족사항 등 신규등록 ▣ 구역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변동사항 기록수정 ▣ 구역관리 ▣ 심방사항, 기도제목 등 목회에 적용 ▣ 필요에 따른 데이터 분류 및 출력 (구역별, 직장별, 학생, 생일별 등) ▣ 교적부관리 ▣ 목회수첩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ail로 신상카드 전송 (전속부대 및 공본) ▣ 이명자 정리, 삭제 ▣ 교적카드 정리 (전속처리)
--	--	---

(나) 교인등록 작업에 앞서 해야 할 일

사용환경설정 → 기본사용환경설정에서 우리교회주소, 사용용어수정, 프로그램환경 등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환경설정 → 사용항목내용정의에서 사용항목정의, 교구조직(구체적인 방법은 매뉴얼참조. 교구조직설정에 앞서 사용항목정의에서 교구 및 구역 등록해야)을 설정해 줍니다.

사용환경설정 → 사용자권한등록에서 사용자명, 비밀번호, 사용그룹을 기록해주세요.

(4) 교인 등록작업

자료입력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세요. 입력은 기본적으로 개인단위이며, 신앙세대주를 통해서 한가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추가하려면 추가 아이콘 버튼을 누르시든지 **[Ctrl]+[A]**를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작업을 마쳤을 경우에는 저장 아이콘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Ctrl]+[S]**를 누르시면 됩니다.

필수입력항목

-성명, 계급, 기수, 신분(장교, 준사관, 하사관, 사병, 가족, 자녀)은 공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니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관리

-사진자료는 2 : 3으로 가로방향이 조금 넓게 스캔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장 포맷 방식은 주로 jpg혹은 gif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bmp방식은 용량을 많이 차지)

목회수첩 제작 방법

·상단의 도구상자에 있는 지원출력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력옵션화면이 나오면 출력 폼 양식의 교적카드 → 4. 교적카드(4)를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생략합니다.

(5) 전속처리 및 전입처리 방법

전속자 처리 방법

·교우교적등록관리에서 가족사항 선택한 후 전출처리 선택합니다.

·전속일, 사유(이사)를 기록하고(이사지 주소가 나왔을 경우는 기록) 저장 후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C:\M21Plus\M21\AirUtil.exe을 실행합니다.

·전속처리(자료Export)를 실행합니다.

·실행된 화면이 나오면 전속기간, 전속사유를 기록한 후에 조회 아이콘 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추출되면 추출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 경로(보고자는 전속자로 폴더이름 지정)를 지정합니다.

·추출된 명단에서 전속시키고자 하는 명단을 선택합니다.

※명단 블록설정방법 : **[Ctrl]+[L]** Mouse 또는 **[Shift]+[I]**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선택자료 파일 작성을 클릭하면 추출된 자료가 지정해준 폴더로 저장됩니다.

·자료가 저장된 폴더를 winzip로 압축하여 E-mail로 해당 교회에 전송하면 됩니다.

전입자 처리 방법

·통신환경에 접속하여 E-mail 자료를 다운 받습니다

·winzip.exe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해제합니다.

·C:\M21Plus\M21\AirUtil.exe 실행합니다.

·전속처리(자료Import)를 실행합니다.

- 다운로드한 자료가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 자료조회버튼을 누르면 전입자 가족 명단이 나올 것입니다.
- 선택자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명령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교인관리 프로그램에 추가됩니다.

(6) 사병을 제외한 군 가족 분리방법

이것은 교회별로 자료를 분리하여 지역별로 통합하고, 공본 컴퓨터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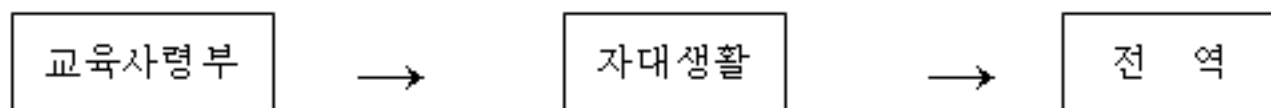
사병을 제외한 명단으로 신분란을 확인하여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자료 입력시 사병의 경우는 신분란에 사병을 꼭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분리방법

- C:\M21Plus\M21\AirUtil.exe을 실행합니다.
- 교회자료Export 실행하여 우측 상단의 조회 아이콘을 누릅니다.
- 명단이 추출되면 추출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경로지정(보고자는 군 가족으로 폴더 이름 지정) 합니다.
- 추출된 명단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명단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도 제외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명단 블록설정방법 : **[Ctrl]+[L]** Mouse 또는 **[Shift]+[I]**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선택자료 파일작성을 클릭하면 추출된 자료가 지정해준 폴더로 저장됩니다.
- 분리된 자료를 본래 자료에 병합하려면 AirUtil.exe에서 전속처리(자료Import) 실행시켜 전입자 처리 방법에 따라 올리면 됩니다.

(7) 장병신자관리

(가) 장병 신자관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세례식 실시 ▣ 세례자 및 기존 세례자 명단 분류 기수, 명단, 입대일, 전역일을 장병 신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 자료를 E-mail로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ail로 받은 자료를 장병 신자관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 전입사병 면담시 받은 자료와 비교 수정 ▣ 자대배치병력 중 기독교 신자에 대한 자세한 정리 ▣ 신우, 청년, 여전도회, 기독교인회에서 다각도로 관리 ▣ 획득신자에 대해서 군선교 후원회에 통보하여 민간 교회와 자매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교회와 연결 ▣ 전역자 정리 및 삭제
---	--	---

(나) 교육사령부

Access 프로그램으로 기본자료입력(이름, 입대일, 전역일, 세례구분/기존세례, 입대 후 세례 등, 주소, 전화번호, 특기 등)하여 DB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교인관리 프로그램의 Indi.DBF의 파일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Base 프로그램의 Structure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주면 어떤 자료든지 교인관리 프로그램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ID	LONG	4	성명	CHARACTER 14
기수	CHARACTER	14	성별	CHARACTER 2
입대일	CHARACTER	8	집전화	CHARACTER 15
생일구분	CHARACTER	2	생일	CHARACTER 8
집주소	CHARACTER	60	집주소동이하	CHARACTER 40
우편	CHARACTER	7	기존세례	CHARACTER 1
입대후세례	CHARACTER	1	전역일	CHARACTER 8
교육사	CHARACTER	30	체크	CHARACTER 1
세대ID	CHARACTER	4		

입력된 자료를 각 기지료회에 E-mail로 동시에 발송합니다.

(다) 자대생활

전송자료 병합 방법

Import_data.exe(세례장병추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폴더선택 후 자료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전체 명단을 조회한 후 [Ctrl]+[L] Mouse 또는 [Shift]+[I]으로 해당 부대로 온 장병을 선택합니다.

-선택자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교인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료가 추가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옮겼지만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자료 취소처리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신자관리에 준해서 명단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전입사병 신상조사 방법

-전입사병이 도착한 토요일 저녁때 신상조사를 통해서 자대로 온 명단 및 교육사령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파악합니다.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인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리합니다.

-사병은 반드시 신분에 사병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일반 교인과 구분하기 위함).

-전입사병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용지 모델은 문서마당에 있습니다.

-전입사병 중에서 입대 후 세례자는 검색조건을 줘서 출력하여 2020본부로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라) 전역

전역자는 전역일 기준으로 전출처리합니다.

다. 자대에서의 효과적인 교과과정 수립

이미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재 자대로 오는 병사들에 대한 관리는 개 교회별, 군종목사 능력별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 역시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해 오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받아들이고 양육하는 새롭고도 안정된 틀이 있어야 한다.

(1) 기본흐름도

부대배치 : 신병 환영행사

새 신자 프로그램 실시 : 4주 과정

양육 프로그램 실시 : 4주 과정

사역자 프로그램 실시 : 사역 및 소그룹 사역개발

민간교회 연결 : 비전 2020과 연계

본 흐름도에 있어서 기준은 4주 과정을 기본 단위로 하였다. 이는 공군 사병은 6주 간격으로 특박을 나가는 관계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전제는 영내사병 사역의 주목표를 제자훈련 232) 보다는 다양한 하나님 체험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전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뒤따르기에 신앙의 기본과정을 교육시킨 후 실제적으로 소그룹에서 활동하게 함으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수립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전제로는 현재까지 성경공부는 전적으로 간부들이나 군 가족에 의해 집단적으로 주도가 되어 왔다. 이는 앞으로도 진행이 되어야 할 내용이나 고참병사들을 양육하여 하급자에게 man to man으로 양육할 수 있게 전환이 된다면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병사들 상호간에 양육체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초기 기본적인 신앙양육의 체계는 man to man으로 형성을 하고, 일반적인 양육은 정기 신우회 집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끔 하는 체제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

제 2 절 새로운 전략의 개발

1. 새로운 조직 및 관리기법 개발

가. 전입신병 관리기법 개발

전입신병은 훈련소에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요원이다. 이 시기는 군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에 신앙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여기에 대한 적합한 관리기법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 일병 3호봉까지(약 8개월)

기간목표 : 기본적인 신앙 초보 형성

내용 : 총 8단계로 구성

232) 완벽한 제자훈련은 기본적으로 3년의 헌신적인 과정을 요구한다

(1) 기본 개념도

(가) 1단계 : 전입사병 환영 및 격려

일시 : 매주 토요일 저녁 8:00- 8:30

장소 : 신병대기 내무반

내용 : 환영사 및 다과회, 종교현황 개략적 파악

(나) 2단계 : 주일예배 참석 유도

방법 : 타 종교행사 참석 희망자 선별 후 기독교 및 무종교인 교회로 인솔

환영 : 신우모임시 소개, 선물증정, 신상카드 확인(신우구역장 연결), 점심식사

(다) 3단계 : 전입신병 부대적응교육 과정 활용

일시 : 매주 수요일

내용 : 군중활동 소개, 자살방지교육, 상담요청방법 교육, 종교현황 파악,

종교센타 견학(교회는 여전도회에서 간식 준비)

개인면담(세례자 중 신상기록카드에 '기독교' 미 기입자는 정정 권유)

중점사항 : 1:1 전도(여전도회 활용)

(라) 4단계 : 결연

일시 : 수요일예배 후 신병환영 다과회 시간

내용 : 특기별 관사가족과 일대일 신우 고참 후원자 연결

(마) 5단계 : 현장체험교육 기간 위문

일시 : 전입 2주차 내지 3주차

장소 : 각 식당

내용 : 격려 및 위문품 전달

(바) 6단계 : 대대 배속 후 관리 및 전도

일시 : 전입 4주차, 소속 내무반 확정시

내용 : 대대(부서) 신우구역장 통한 관리

(사) 7단계 : 양육 프로그램 시작

일시 : 소속 내무반 확정시

내용 : 새 신자 성경공부 4주 과정

기초반 성경공부 4주 과정 연계

방법 : 소속대대 고참병에 의한 man to man 양육

(아) 7단계 : '이등병 신우의 날' 운영

일시 : 매 분기 1회, 주일 오후 1:00 - 3:00

내용 : 이등병 신우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 다과회, 친교의 시간

(2) 각 교육과정

이 시기에 가능한 한 새 신자반과 기초반 수료를 목표로 한다. 1주 1회 모이되 1회 모임이 4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교육은 고참병을 리더로 훈련하여 1:1로 하되 총괄하는 교인들 두어 전체를 관리하도록 한다. 리더를 관리한다. 리더 재교육을 실시한다.

<표 31> 사병교육 도표

구 분	주 차	제 목	내 용
새 신자반	1주차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이신데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나무나 사랑 하는 분이시다
	2주차	죄란 무엇인가?	죄의 내용 정의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해 설명
	3주차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의 대속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4주차	구원의 확신	구원의 방법
기초반	1주차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의 방법 회개를 통한 운택한 삶 제시
	2주차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 믿음의 내용과 축복
	3주차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의 종류 설명 성령충만 필요성과 방법
	4주차	부활과 심판	올바른 종말관

나. 기존사병 관리기법 개발

(1) 현 실태

조직상 대부분의 경우 군종목사, 신우부장 외에는 관리하는 교사가 부재하다
각 단위대 별로 조직적인 리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성경공부의 경우 조직적인 교육체계가 미흡하고 일시적이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간부나 가족들의 관심도가 미흡하다

(2) 문제점 해소 방안

각 단위대별로 교사가 임명이 되어야 하며 교사는 부부가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즉, 병장으로부터 각 단위대 별로 5개 기수 단위(233)로 후속 리더가 양성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멘토링(234) 방법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즉, 선임병이 후임병사를 영적인 형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 성경공부 프로그램 외에 일반적인 정기모임시 30분을 축으로 하는 3년 단위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3년 단위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군 실정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간부나 가족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유도가 필요하며 팀 사역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세대인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성공사례

위 원칙을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가) J 교회(235)

적용방법

233) 공군의 경우 대개 병장 7호봉(진급 후 7개월)이 단위대의 실제적인 주력기수이기에 이 기수로부터 최소 5개월 간격의 리더 양성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각 단위대 사병선교를 할 수 있다.

234) 멘토링이란 전인적인 교육 개념으로 영적인 것 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지칭한다.

235) 이하에서는 군 보안상 교회이름을 밝히지 않고 영어 첫 글자만 표기한다.

- 교인들에게 전도훈련을 실시하여 전입신병 교육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병과 무종교자를 1:1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
- 주 1회 내무반을 방문하여 위문 및 전도활동을 실시한다
- 3개월에 1회씩 전입신병들을 초청한다.
- 영내사병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젊은이들을 구원해야 하는 군 교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 신우회 부장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로로 세운다.
- 주일 낮 대표기도 순서에 신우들을 포함시킨다.
- 장병 찬양제와 장병 선교체육대회 등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부대 지휘관 참모에게 수시로 종교활동 보장을 건의하여 종교활동 분위기를 조성한다.
- 주일예배 후 점심식사를 교인중심에서 신우중심으로 전환한다

결과

위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 영내사병들의 예배 참석률이 100퍼센트 이상 신장이 되었다. 이는 이미 전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강제성이 없이 순수한 본인의 의사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공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 J교회 예배 참석률

연도	1998					1999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참여수	110	99	96	97	104	113	113	102	123	143	139	159	167	140	166	203	270

(나) S 교회

적용방법

- 전체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 예배 시간에 강조하고 공동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한다
- 교회내 각 기관 및 부서에 이를 주지시키고 교회내 모든 역량이 집중되게 한다
- 교회내 각 부서의 외부 선교를 내부 병사 선교로 돌리게 한다

- 병사를 위해 매주 공동식사를 구역에서 준비한다
- 우리 부대의 병사들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 부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부대 불우 장병 및 사각지대를 돌봄으로서 부대내 분위기를 형성한다

- 각종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적용결과

4년간 평균 출석률 30-40명에서 90-100(236)명으로 상향되고 이에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 H 교회

적용방법

- 각 단위대 별로 부부 지도교사를 임명
- 새 신자 성경공부반을 운영
- 기존의 사병 중 지도자반 운영
- 가족 중 각 교구와 영내 단위대를 연결
- 충분한 예산 지원

적용결과

- 1999. 1월 주일예배 참석률 51명에서 2000년 6월 현재 평균 출석률 180명으로 부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내사병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관심이며 교회의 충분한 지원이다.

(4) 3년 성경공부 프로그램

(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 내무반으로 복귀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친교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외출 및 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참석이 어렵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출석하더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성경공부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

236) 1999년 8월에서 12월 통계

2. 새로운 예배 모델 개발

가. 주일 낮 예배

군인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양식을 지닌 다분히 보수적인 교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므로 낮 예배는 급격한 열린 예배보다는 적절히 균형을 맞춘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피아노와 오르간 및 클래식 악기로 구성되어 예배를 돕도록 한다.

(1) 주일 낮 예배의 예

입례송 / 고개들어 찬양/ 다같이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돌려 만왕의 왕께

예배의 부름 / 사회자

찬송 / 다같이

참회의 기도 / 예수의 이름으로 / 다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신앙고백 / 사도신경

성서교독 / 정해진 본문

찬송 / 다같이

기도 / 말은 이

성경봉독 / 요 3:16

찬양 / 성가대

설교 / 하나님의 사랑 / 담임목사

찬송 / 다같이

봉헌 / 독창

봉헌기도 / 담임목사

성도의 교제 / 너는 시냇가에 / 다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교회소식 / 사회자
 찬송 / 다같이
 축도 / 담임목사

나. 주일 저녁 예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로 구성이 되며 전통적인 순서를 탈피한 열린 예배 순서로 드리게 된다.

기타, 드럼 등의 악기와 찬양팀이 구성되어 드린다.

찬양팀 구성은 신우회와 청년, 가족으로 구성이 되며 인도자는 영성이 깊은 인도자로 세우게 된다.

예배구성은 예배시간 전에 드리는 찬양시간, 예배가 시작되며 드리는 경배의 찬양 등의 순으로 구성이 되어진다.

월 1회는 특별 예배로 구성을 한다

- 설교시 간단한 드라마, 간증을 삽입하여 메시지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한다

(1) 주일 저녁 예배의 예

찬양 / 다같이

일어나라 찬양을 드려라(G) --> 호산나(G) -->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G)

물이 바다 덮음같이(G)

경배 / 다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A) --> 예수 우리 왕이여(A) --> 약할 때 강함 되시며

(G) -->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A)

기도 / 말은 이

기도송 / 목마른 사슴(D) / 찬양팀

성경 / 요 1:12(성경요절을 스크린에 비추며 다같이 읽음)

찬양 / 성가대

설교 / 놀라운 비밀 / 담임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교회소식 / 담임목사

찬송 /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102장) / 다같이

축도 / 담임목사

다. 특별예배

설교시간에 짧은 드라마나 간증을 미리 준비하여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을 돕는다. 조명, 원고검토, 사전 세밀한 연습이 요구된다. 영내사병을 집중적으로 준비시키고 온 가족이 동참하도록 한다.

라. 수요예배

기존의 형식에 맞추어 강해 설교로 드린다.

3. 새로운 특별 프로그램 개발

가. 큰 분류에 의한 새로운 특별 프로그램

(1) 대대별 성경통독

(가) 개요

단체 성경 읽기를 통한 신앙양육

(2) 세부내용

각 대대별로 편리한 시간에 읽기

성경통독 완료 대대 선물 준비

(3) 일일 신앙 부흥회

(가) 개요

신우회만을 위한 일일 신앙 부흥회를 실시한다.

(나) 세부내용

연 2회 실시

젊은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하여 부흥회 실시

토요일 일과 후부터 주일 낮까지 실시

숙식은 교회에서 해결

(4) 식당전도

(가) 개요

사병식당에서 음료 또는 차를 나누어주면서 신우회 소식을 전하고 예배 참석을 권면하고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나) 세부내용

사병식당에서 매주 토요일 석식 시간에 실시
신우회 임원 중심으로 조를 편성하여 실시
차 또는 음료수 준비

(5) 장병 위로회

(가) 개요

명절시 사병 및 신우들을 위한 위로 행사

(나) 세부내용

연 2회(구정, 추석)
고전 놀이를 실시(웃놀이, 제기차기, 씨름대회 등)
간단한 다과와 선물을 준비
부대에 남은 가족들이 행사 준비

(6) 장병 체육대회

(가) 개요

운동을 통한 친교 및 선교

(나) 세부내용

농구대회, 탁구대회, 족구대회, 배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등
반기 1회 실시
간단한 선물 준비
부대와 협조하여 특박 등의 선물을 준비

(7) 특별 찬양집회

(가) 개요

복음성가 가수 및 찬양단을 초청하여 실시

(나) 세부내용

여론 조사하여 인기있는 복음성가 가수 공연

분기 1회 실시

각종 찬양단을 초청하여 공연(여고 및 교회 찬양단 초청)

(8) 프로그램 명 : 영화 상영

(가) 개요

영상을 통해 친교 및 선교

(나) 세부내용

월 1회 토요일에 영화 상영

내용은 신앙영화 및 건전한 영화 상영

(9) 프로그램 명 : 상담 학교 개설

(가) 개요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

(나) 세부내용

상담요원 훈련(군 가족)

상담 시간 지정하여 홍보

(10) 장병 찬양제

(가) 개요

부대 장병으로 하여금 교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장병 복음화를 전개하기 위함.

(나) 세부내용

시기 : 연 1회(추수감사절 이후)

대상 : 비행단 전 장병(대대별로 참여)

단장 명의의 공문을 최소 한달 전에 각 부서로 발송

참가비 : 팀당 ₩5,000

- 참가비는 전액 인근 초등학교 불우 아동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행사격려 : 대대별 후원 구역으로 각 대대에 간식 제공(최소 2회)

시상 : 각 내무반 및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시상

간식 및 기념품 : 찬양제에 참석한 모든 장병에게 제공

(11) 내무반 예배

(가) 개요

순회예배를 통해 예배 드리기 어려운 병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불신사병들을 전도함.

(나) 세부내용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24시간 근무부서 및 각 내무반을 순회하며 예배

신우회 임원과 부장, 담임목사 주관 하에 실시

간식 준비

(12) 신우회 헌신예배

(가) 개요

특별 예배를 통해 헌신을 다짐

(나) 세부내용

연초 1회 실시

특별 강사 초빙

(13) 불우이웃 돕기

(가) 개요

부대 주변 불우이웃을 도와 봉사심 함양

(나) 세부내용

불우시설 선정하여 반기 1회 방문

간식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위문

전 신우회원 대상

(14) 각종 성경대회

(가) 개요

단체심 함양과 성경지식 함양

(나) 세부내용

성경 퀴즈대회, 성경암송대회, 성경찾기대회 등 실시
간단한 선물 준비

(15) 소그룹 활동

(가) 개요

소그룹 특별 강습반을 만들어 배움과 동시에 신앙훈련이 되게 함.

(나) 세부내용

기타반, 찬양반, 연극반 등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구성
짧은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리더 양성
기본 경비는 교회에서 부담

(16) 선배와의 만남의 날

(가) 개요

제대자를 초청하여 신앙의 격려를 하게 함

(나) 세부내용

분기 1회씩 제대자를 초청하여 좌담회 개최
신앙간증을 통한 격려
간단한 다과 준비

제 6 장

결 론

복음의 핵심은 변할 수 없으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은 가변적이기에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질 대상자들이 처한 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공군은 3군 중에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공군 선교와 목회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현재 겪고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복음전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공군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공군사병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기존의 공군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의 간격을 좁혀야만 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현대 공군사병 목회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정리를 하였다. 문화이해는 복음전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복음을 뛰어 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문화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상실된 본래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인 신앙의 접근으로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연구하면 복음서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복음이 연구되고 전파되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연하여 각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적합한 선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는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한국인만이 가지는 고유의 문화를 알고 그 문화와 눈 높이를 맞추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문화는 그동안 3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한국 사회가 겪어온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그 개념이 충분히 정립이 되지 못한 채 가치관 혼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더욱 문제는 현재에도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정립되어지는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은 혼돈과 방황의 시기를 거치고 있고 이

것은 그대로 군 현장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3장에서는 전장의 문제점 연장선상에서 현대 공군 사병문화의 독특성을 정리를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 공군에 입대하는 사병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문화를 정리를 하였다. 이미 전 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들의 문화는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 여건 속에서는 상호간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기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나, 군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와 문화 상황에서는 완충작용을 하는 기재들을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공군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기존의 문화가 그대로 투영이 되어지는 교회 역시 세대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기존 기성 그룹들의 문화와 현대 공군 사병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밝히고, 양자간의 문화 이해를 통해 두 세대간의 패어진 문화와 생각의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4장에서는 현대 공군사병 목회를 위한 전략적인 수립을 설명하였다. 군에서의 기성세대와 현대 사병 세대의 간격을 좁혀서 화해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공군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조직과 제도, 예배, 특별 프로그램 및 군종목사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공군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를 하였고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난 20여년 이상의 역사를 고찰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공군교회의 교회 운영 및 선교 프로그램이 20여년 전과 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공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한층 달라진 문화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입대를 하는데 이들을 수용해 낼 만한 준비가 공군 안에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신세대 군종목사들이 공군에 입대하여 보다 더 젊어진 철학을 가지고 선교와 목회를 하려고 하지만 군대문화가 주는 충격 즉, 군이 가지는 고유의 보수성과, 기존의 군 신자들의 보수적인 생각에 적응하다 보면 보다 더 자유롭게 목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군에 대한 적응을 마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대다수가 의무복무 기간이 마쳐져서 제대를 해야 하는 관계로 과감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 에다가 공군이 가지는 특성상 공군의 입대관문인 교육사령부에서 대다수의 결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근무부대로 배치되게 되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되고, 이에 군 특성상 전입 초기에는 교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로 그대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조직적인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다. 그리고 공군은 군 특성상 강제적인 종교행사가 이루어 질 수 없고 자발적으로만 종교행사가 이루어지기에 20여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점은 공군 사병들을 효율적으로 목회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군사병 목회에 있어 가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전진은 없기에 이 장에서는 철저히 공군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굴하였다.

5장에서는 현대 공군사병 목회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시 및 기존 프로그램의 발전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공군 선교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육사령부의 역할이다. 이곳에서는 집단세례식을 통한 전군 신자화 운동이 일어나는 곳인데 먼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성서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효율적으로 현대 공군사병 선교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조직과 제도적인 측면, 예배적인 측면, 특별 프로그램이다. 조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군선교의 출발점인 교육사령부와 배치부대인 자대교회와의 연계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ission 21'이라는 기존의 민간교회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하여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 및 시행하여 연계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새롭게 결신한 사병들이 자대에 배치가 되더라도 곧바로 세심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자대에서 받아들이는 병들에 대한 관리기법과 기존 사병에 대한 관리기법을 새로이 제시를 하였다. 현재 공군 및 군에서 사용되는 기법은 별다른 비판 없이 민간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채용하는 바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였고, 그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성경공부와 단순한 예배 참여를 통한 신앙의 훈련은 구 시대적 접근으로 이해하고 실제적인 참여를 통한 신앙훈련을 공군 사병들의 근무주기를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제시를 하였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행해진 고전적인 예배의식을 열린 예배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악기를 동원한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군 특성상 기존의 세대들과 현대 공군사병들을 수용하는 선 안에서의 예배의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기초 프로그램도 제작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특별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은 어려울 때 가장 마음을 쉽게 열게 된다. 현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가장 큰 인생의 위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엔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공군교회가 이 귀중한 시기를 새로운 세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세대를 공군이라고 하는 3년간의 기간동안 사장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통해 더 활발한 공군 사병들에 대한 선교 및 목회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부록 1

공군 사병 선교에 대한 군종목사 의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1990년대 이후 군에 입대하고 있는 신세대 사병들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서 쓰여질 공군 목사님들의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지는 목사님들의 신세대 사병들에 대한 인식구조 이해와 각 교회 예산,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순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총 30문항에 소요예상 시간은 10분입니다.

바쁘고 힘들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며 선교전략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자료로만 사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지

1. 신세대 청년들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 경험 및 그 지속성 여부는? ()

- (1) 경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2) 경험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3)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 (4) 경험이 없으며 현재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2 신세대 청년들을 주제로 한 서적들에 대한 연구 여부는? ()

- (1)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 (3) 전혀 하고 있지 않다.

3. 공군교회와 공군사역에 있어서 신우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

-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중요하다.
-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귀 교회의 예배 출석률을 많은 순서대로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 (1) 장교 ()
- (2) 하사관 ()
- (3) 관사가족 ()
- (4) 신우회 ()
- (5) 기타 () ----> 4-1로 가십시오.

4-1. 기타로 기록하신 분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5. 귀하가 귀하의 공군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순서대로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 (1) 장교 ()

- (2) 하사관 ()
- (3) 관사가족 ()
- (4) 신우회 ()
- (5) 기타 () ----> 5-1로 가십시오.

5-1. 기타로 기록하신 분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6. 귀 교회가 신우회에 가지는 관심도는? ()
-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낮은 편이다. (4) 매우 낮다.
7. 귀 교회의 연간예산중 신우회에 편성된 예산의 비율은? ()
- (1) 5퍼센트 미만 (2) 6-10퍼센트 (3) 11-15퍼센트
 - (4) 16-20퍼센트 (5) 21-25퍼센트 (6) 26퍼센트 이상
8. 귀 교회의 신우회 연간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한 편이다. (3) 약간 부족하다.
 - (4) 매우 부족하다. ----> 8-1로 가십시오.

8-1 예산 반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

- (1) 목회자 자신의 관심부족 (2) 교인들의 관심부족
- (3) 재정편성 자체의 어려움
- (4) 기타(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9. 가장 적절한 신우회 예산은 연간 예산 중 몇%로 생각되십니까? ()
- (1) 5퍼센트 미만 (2) 6-10퍼센트 (3) 11-15퍼센트
 - (4) 16-20퍼센트 (5) 21-25퍼센트 (6) 26퍼센트 이상
10. 귀하의 신세대 사병들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이해도가 매우 높다. (2)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3) 보통 수준이다.
 (4) 이해도가 약간 낮다. (5) 이해도가 매우 낮다.

11. 현재 귀 교회의 신세대 사병들에 대한 선교사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 (1) 매우 효율적이다. (2) 약간 효율적이다. (3) 보통 수준이다.
 (4) 약간 비효율적이다. (5) 매우 비효율적이다. ---> 11-1로 가십시오.

11-1 그렇게 답한 이유는? ()

- (1) 관심이 없기 때문에 (2) 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3)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4) 기타(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12. 귀 교회는 영내사병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2-1 위 프로그램의 호응도는? ()

- (1) 매우 높다. (2) 약간 높다. (3) 보통이다. (4) 약간 낮다. (5) 매우 낮다.

12-2 위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

- (1) 스스로 연구해서 (2) 기존의 자료를 기준으로 (3) 선배 목사들의 지도로
 (4) 기타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13. 신우회 사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 (1) 제자 양육 ()
 (2) 근무지 방문 ()
 (3) 내무반 방문 ()
 (4) 신우회 자체예배 활성화 ()

(5) 기존 예배(주일 낮, 저녁, 수요일) 참석 활성화 ()

(6) 특별 이벤트성 행사 활성화 ()

14. 귀 교회는 신우회 만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요일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기술해 주십시오)

15. 귀 교회는 어떻게 신우회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기술해 주십시오)

16. 신우회 사역 중 가장 힘든 장애물은? ()

(1) 지휘관의 관심부족 (2) 목회자 자신의 관심부족 (3) 교인들의 관심부족

(4) 병사들 상호간의 제재

(5) 기타(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17. 공군 목사단이 신세대 영내사병 선교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8. 신우회가 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야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단 분야 외 봉사하는 분야가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19. 신우회를 위해 교회 안에 어떤 봉사영역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해 주십시오)

* 이제부터는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20. 귀하의 군종목사 경력은? ()

- (1) 3년 미만 (2) 4-7년 (3) 8-10년 (4) 11년 이상

21. 귀하의 연령은? ()

- (1) 29세 이하 (2) 30 - 35세 (3) 36 - 40세 (4) 40세 이상

22. 입대 전 신세대 청년들에 대한 사역경험은? ()

- (1)있다. ----> 22-1로 가십시오.
(2)없다.

22-1 사역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

- (1) 1년 (2) 2-3년 (3) 3-4년 (4) 4년 이상

22-2 입대 전 사역경험이 입대 후 목사님의 군대 신우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은? ()

- (1) 매우 크다 (2) 상당히 크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작다 (5) 매우 작다

*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

공군사병 선교에 대한 군종병 의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1990년대 이후 군에 입대하고 있는 신세대 사병들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서 쓰여질 공군 군종병들의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지는 군종병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교회가 가지는 신세대 사병들에 대한 인식구조 이해와 각 교회 예산,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1문항에 소요예상 시간은 7분입니다.

바쁘고 힘들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며 선교전략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만 사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지

1. 공군교회와 공군사역에 있어서 신우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

-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중요하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귀 교회의 예배 출석률을 많은 순서대로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 (1) 장교 ()
 (2) 하사관 ()
 (3) 관사가족 ()
 (4) 신우회 ()
 (5) 기타 () ----> 2-1로 가십시오.

2-1. 기타로 기록하신 분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3. 귀 교회가 신우회에 가지는 관심도는? ()

-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낮은 편이다. (4) 매우 낮다.

4. 귀 교회의 신우회 연간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한 편이다. (3) 약간 부족하다.
 (4) 매우 부족하다. ----> 4-1로 가십시오.

4-1 예산 반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

- (1) 목회자의 관심부족
 (2) 교인들의 관심부족
 (3) 재정편성 자체의 어려움

(4) 기타(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5. 귀 교회 목사님의 신세대 사병들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이해도가 매우 높다. (2)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3) 보통 수준이다.
(4) 이해도가 약간 낮다. (5) 이해도가 매우 낮다.

6. 귀 교회 교우들의 신세대 사병들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이해도가 매우 높다. (2).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3) 보통 수준이다.
(4) 이해도가 약간 낮다. (5) 이해도가 매우 낮다.

7. 현재 귀 교회의 신세대 사병들에 대한 선교사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 (1) 매우 효율적이다. (2) 약간 효율적이다. (3).보통 수준이다.
(4) 약간 비효율적이다. (5) 매우 비효율적이다. ---> 7-1로 가십시오.

7-1 그렇게 답한 이유는? ()

- (1) 관심이 없기 때문에 (2) 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3)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4) 기타(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8. 귀 교회는 영내사병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8-1 위 프로그램의 호응도는? ()

- (1) 매우 높다. (2).약간 높다. (3) 보통이다. (4) 약간 낮다. (5) 매우 낮다.

9. 신우회 사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 (1) 제자 양육 ()

- (2) 근무지 방문 ()
- (3) 내무반 방문 ()
- (4) 신우회 자체예배 활성화 ()
- (5) 기존 예배(주일 낮, 저녁, 수요일) 참석 활성화 ()
- (6) 특별 이벤트성 행사 활성화 ()

10. 귀 교회는 신우회만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요일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기술해 주십시오.)

11. 귀 교회는 어떻게 신우회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기술해 주십시오.)

12. 신우회 사역 중 가장 힘든 장애물은? ()

- (1) 지휘관의 관심부족 (2) 목회자들의 관심부족 (3) 교인들의 관심부족
- (4) 병사들 상호간의 제재
- (5) 기타(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13. 공군 교회가 신세대 영내사병 선교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신우회가 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야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단 분야외 봉사하는 분야가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15. 신우회를 위해 교회 안에 어떤 봉사영역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해 주십시오.)

* 이제부터는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의 계급은? ()
(1) 이병 (2) 일병 (3) 상병 (4) 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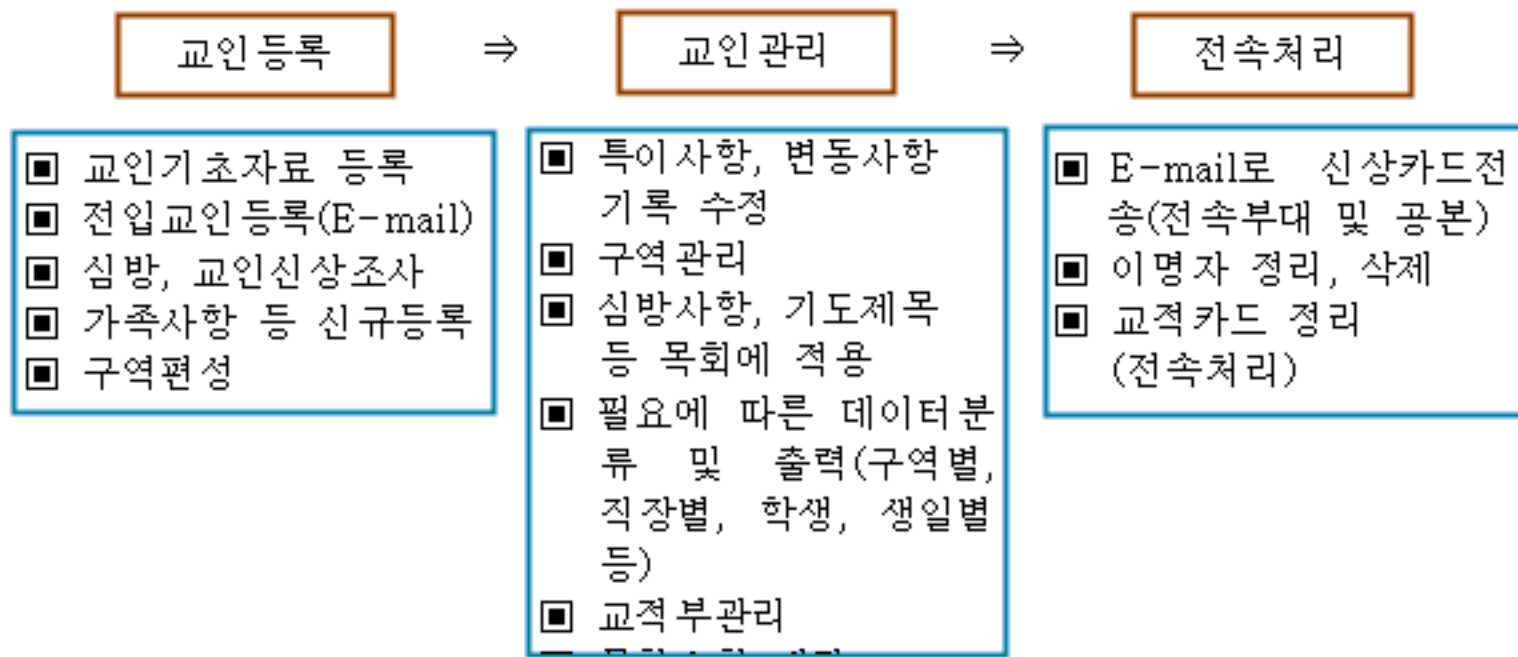
17. 귀하의 군종병 근무 기간은? ()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1년 이상 2년 미만
(4) 2년 이상

*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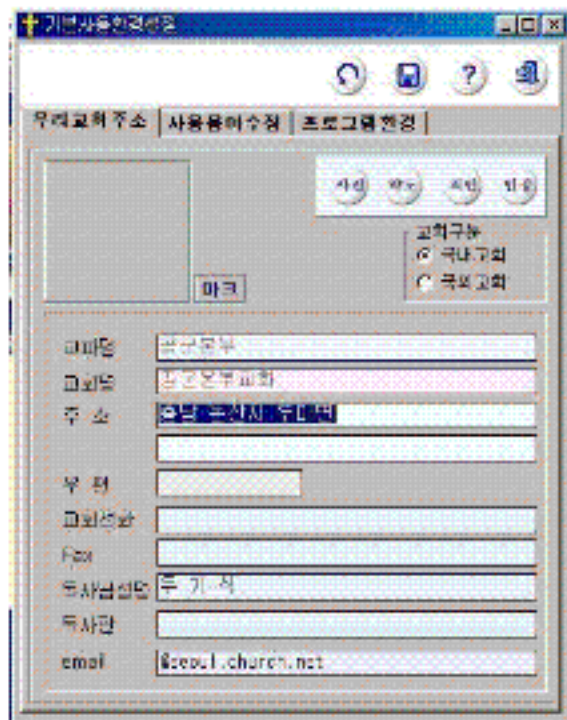
교 인 관 리

1. 교인관리 절차



2. 교인등록 작업에 앞서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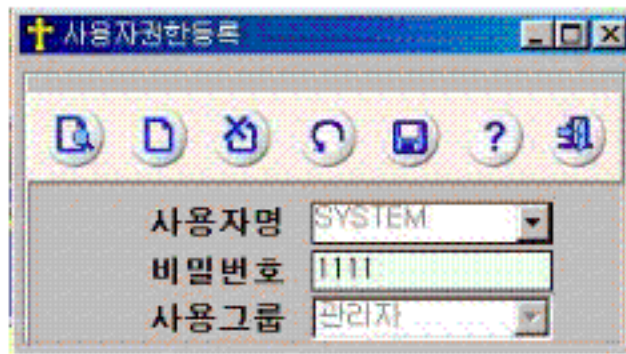
- (1) <사용환경설정>→<기본사용환경설정>에서 우리 교회 주소, 사용용어수정, 프로그램 환경 등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2) <사용환경설정>→<사용항목내용정의>에서 사용항목정의, 교구조직(구체적인 방법은 매뉴얼참조. 교구조직설정에 앞서 사용항목정의에서 교구 및 구역 등록해야)을 설정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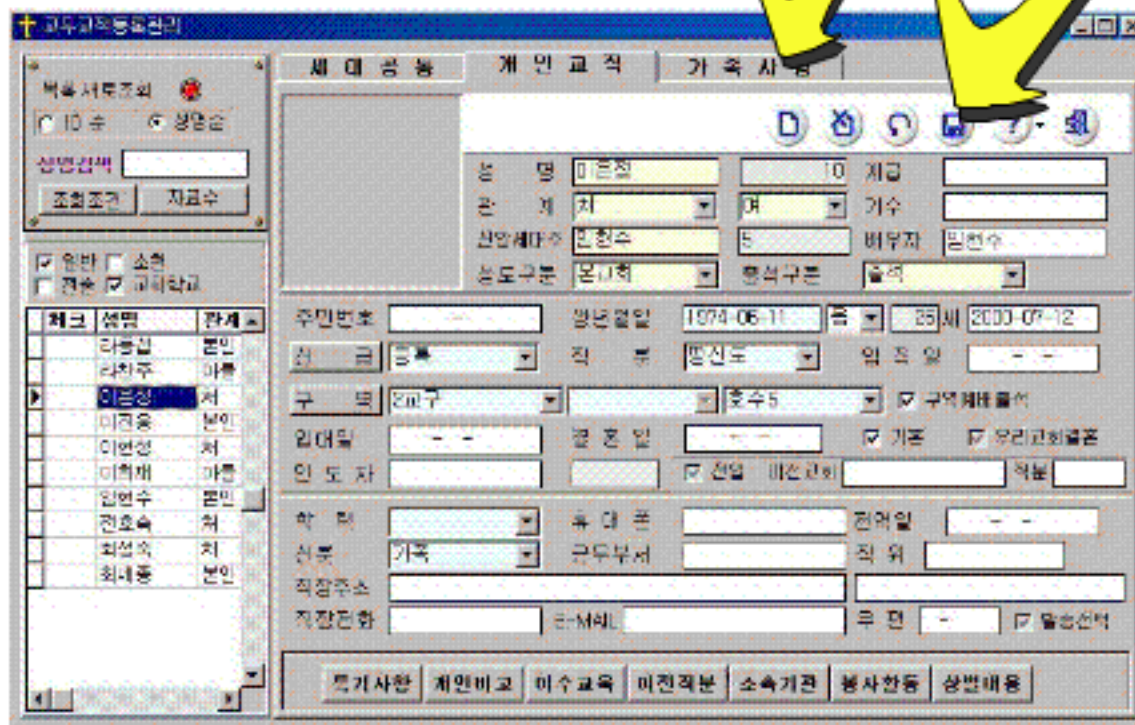
(3) <사용환경설정>→<사용자권한등록>에서 사용자명, 비밀번호, 사용그룹을 기록주세요(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조).



3. 교인 등록작업


자료추가
시


입력작업을 마친
후



(1) 자료입력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세요. 입력은 기본적으로 개인단위이며, 신앙세대주를 통해서 한가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추가하려면  버튼을 누르시든지 <Ctrl>+<A>를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작업을 마쳤을 경우에는  을 누르거나 혹은 <Ctrl>+<S>를 누르시면 됩니다.


(2) 필수입력항목

- 성명, 계급, 기수, 신분(장교, 준사관, 하사관, 사병, 가족, 자녀)은 공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니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진자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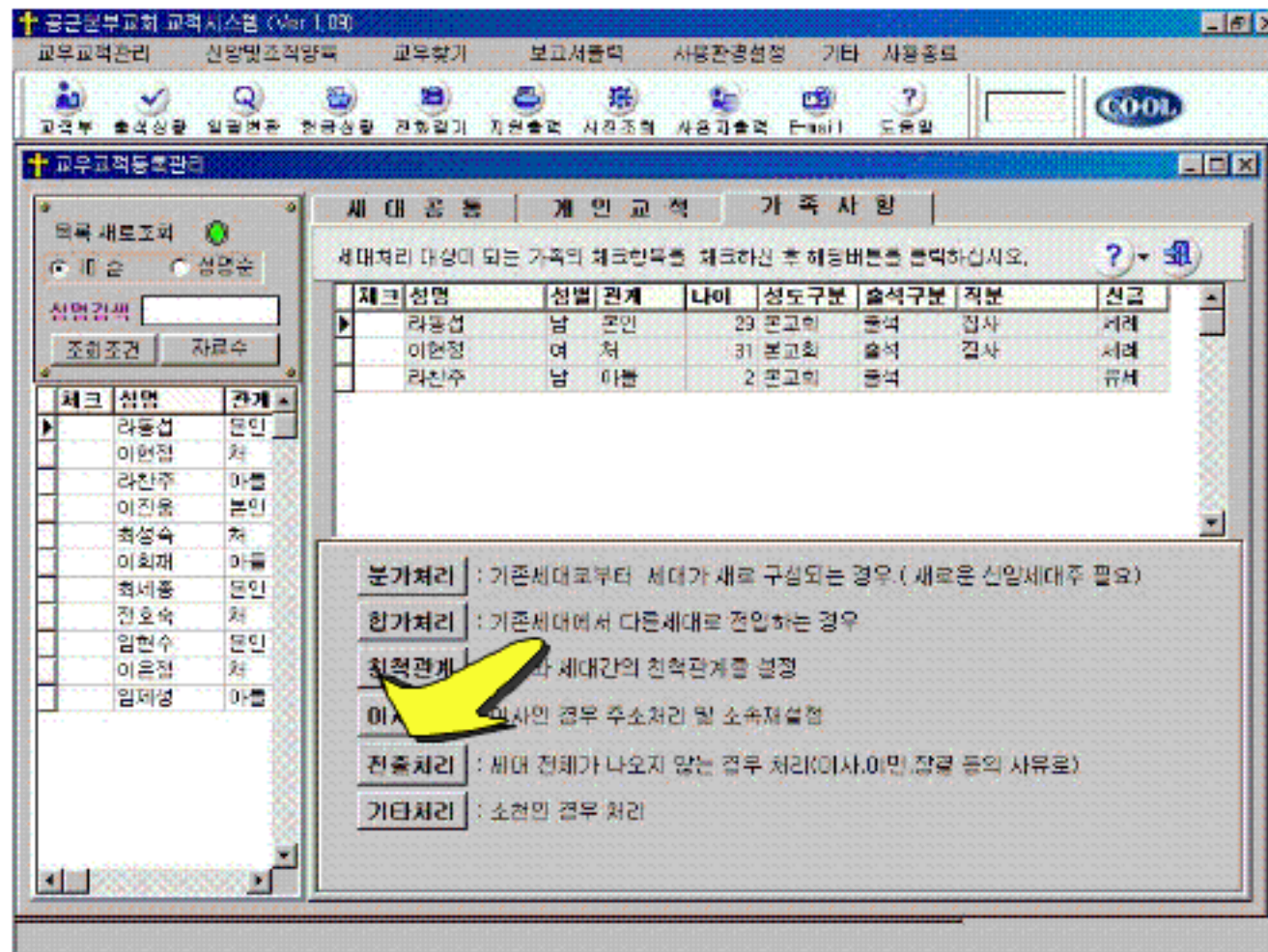
- 사진자료는 2:3으로 가로방향이 조금 넓게 스캔작업을 해야 합니다.
- 저장포맷 방식은 주로 jpg혹은 gif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bmp방식은 용량을 많이 차지).

(4) 목회수첩 제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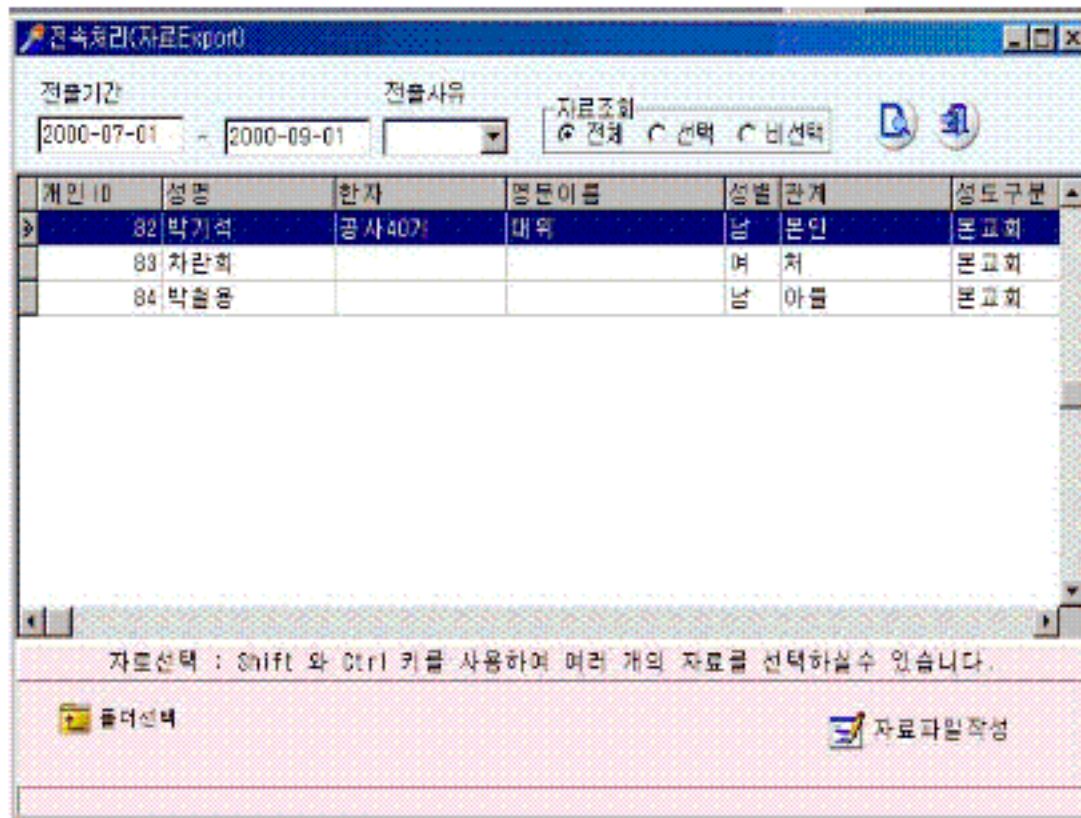
- 상단의 도구상자에 있는 <지원출력>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출력옵션화면이 나오면 : <출력폼양식>의 <교적카드>→<3. 교적카드(3)>을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생략합니다.

4. 전속처리 및 전입처리 방법

(1) 전속자 처리 방법



- <교우교적등록관리>에서 <가족사항> 선택한 후 <전출처리>선택합니다.
- “전속일, 사유(이사)”를 기록하고(이사지 주소가 나왔을 경우는 기록) 저장 후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C:\WM21Plus\WM21\AirUtil.exe을 실행합니다.
- <전속처리(자료Export)>를 실행합니다.
- 실행된 화면이 나오면 전속기간, 전속사유를 기록한 후에 <조회>아이콘 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명단이 나옵니다.
- 명단이 추출되면 추출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 경로(보고자는 「전속자」로 폴더이름 지정)를 지정합니다.
- 추출된 명단에서 전속시키고자 하는 명단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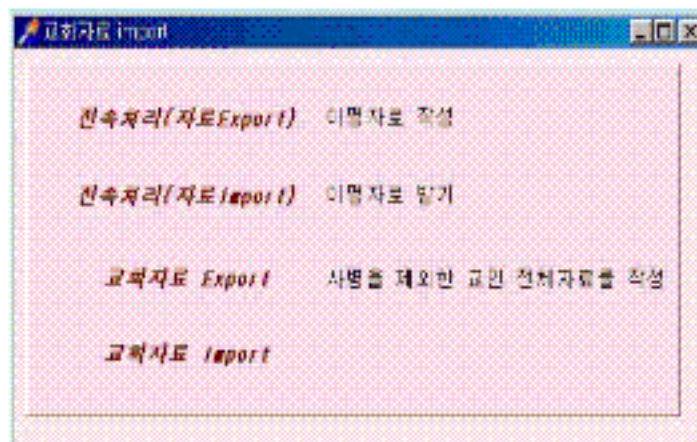


※명단 블록설정방법 : “[Ctrl]+[L]_Mouse” 또는 “[Shift]+[I]”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선택자료 파일 작성>을 클릭하면 추출된 자료가 지정해준 폴더로 저장됩니다.
- 자료가 저장된 폴더를 winzip로 압축하여 E-mail(전송방법은 뒤에서 소개)로 해당 교회에 전송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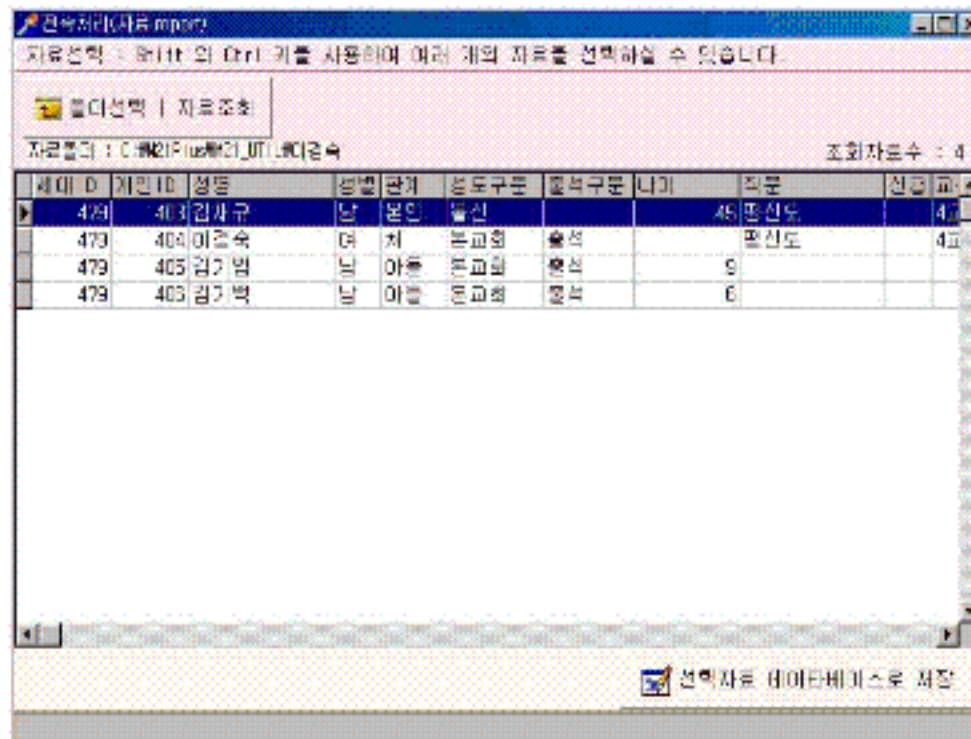
(2) 전입자 처리 방법

- 통신환경에 접속하여 E-mail 자료를 다운받습니다(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소개).
- winzip.exe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해제합니다.
- C:\WM21Plus\WM21\AirUtil.exe 실행합니다.
- <전속처리(자료Import)>를 실행합니다.



- 다운로드한 자료가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 「조회버튼」을 누르면 전입자 가족 명단이 나올 것입니다.


- 「선택자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명령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교인관리 프로그램에 추가됩니다.



5. 사병을 제외한 군 가족 분리방법

- (1) 이것은 교회별로 자료를 분리하여 지역별로 통합하고, 공본 컴퓨터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방법입니다.
- (2) 사병을 제외한 명단으로 <신분>란을 확인하여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자료 입력시 사병의 경우는 <신분>란에 “사병”을 꼭 기록해주어야 합니다.

(3) 분리방법

- C:\WM21Plus\WM21\AirUtil.exe을 실행합니다.
- <교회자료Export> 실행하여 우측 상단의 <조회>아이콘()을 누릅니다.
- 명단이 추출되면 추출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경로지정(보고자는 「군 가족」으로 폴더 이름 지정)합니다.
- 추출된 명단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명단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도 제외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명단 블록설정방법 : “[Ctrl]+[L]_Mouse” 또는 “[Shift]+[I]”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선택자료 파일작성」을 클릭하면 추출된 자료가 지정해준 폴더로 저장됩니다.
- 분리된 자료를 본래 자료에 병합하려면 AirUtil.exe에서 <전속처리(자료Import)>

실행시켜 전입자 처리방법에 따라 올리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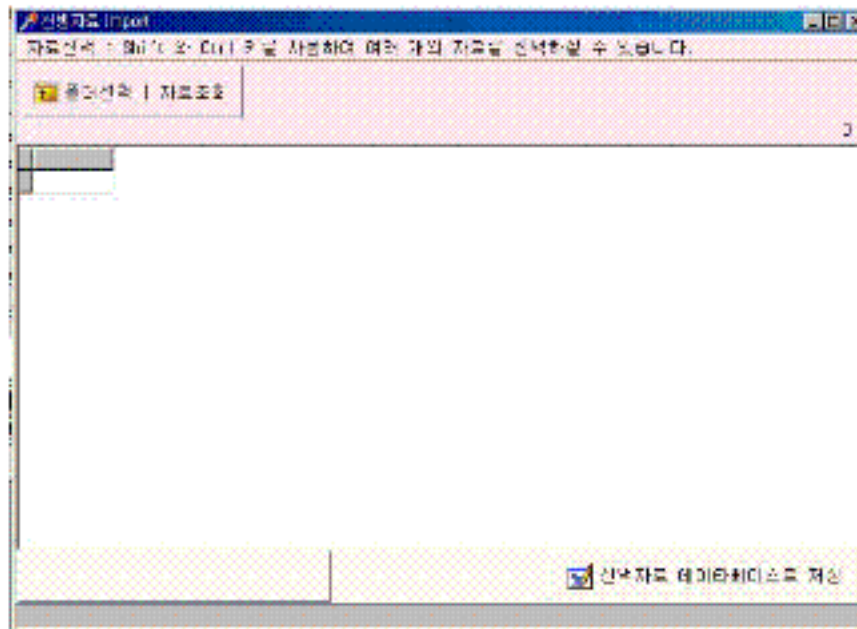
기수	CHARACTER	14	성별	CHARACTER	2
입대일	CHARACTER	8	집전화	CHARACTER	15
생일구분	CHARACTER	2	생일	CHARACTER	8
집주소	CHARACTER	60	집주소동 이하	CHARACTER	40
우편	CHARACTER	7	기존세례	CHARACTER	1
입대후세례	CHARACTER	1	전역일	CHARACTER	8
교육사	CHARACTER	30	체크	CHARACTER	1
세대ID	LONG	4			

(2) 입력된 자료를 각 기지교회에 E-mail로 동시 발송합니다.

3. 자대생활

(1) 전송자료 병합 방법

·Import_data.exe(세례장병 추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폴더선택 후 <자료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전체 명단을 조회한 후 "[Ctrl]+[L]_Mouse" 또는 "[Shift]+[I]"으로 해당 부대로 온 장병을 선택합니다.

·<선택자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교인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료가 추가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옮겼지만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자료 취소처리> 아이콘을

- 누르면 됩니다.
- 신자관리에 준해서 명단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2) 전입사병 신상조사 방법

- 전입사병이 도착한 토요일 저녁때 신상조사를 통해서 자대로 온 명단 및 교육사령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파악합니다.
-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인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리합니다.
- 사병은 반드시 신분에 사병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일반 교인과 구분하기 위함).
- 전입사병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용지 모델은 문서마당에 있습니다.
- 전입사병 중에서 입대 후 세례자는 검색조건을 줘서 출력하여 2020본부로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4. 전역

- (1) 전역자는 전역일 기준으로 전출처리합니다.

부록 5

교회 행정 양식

1. 한글 문서마당 등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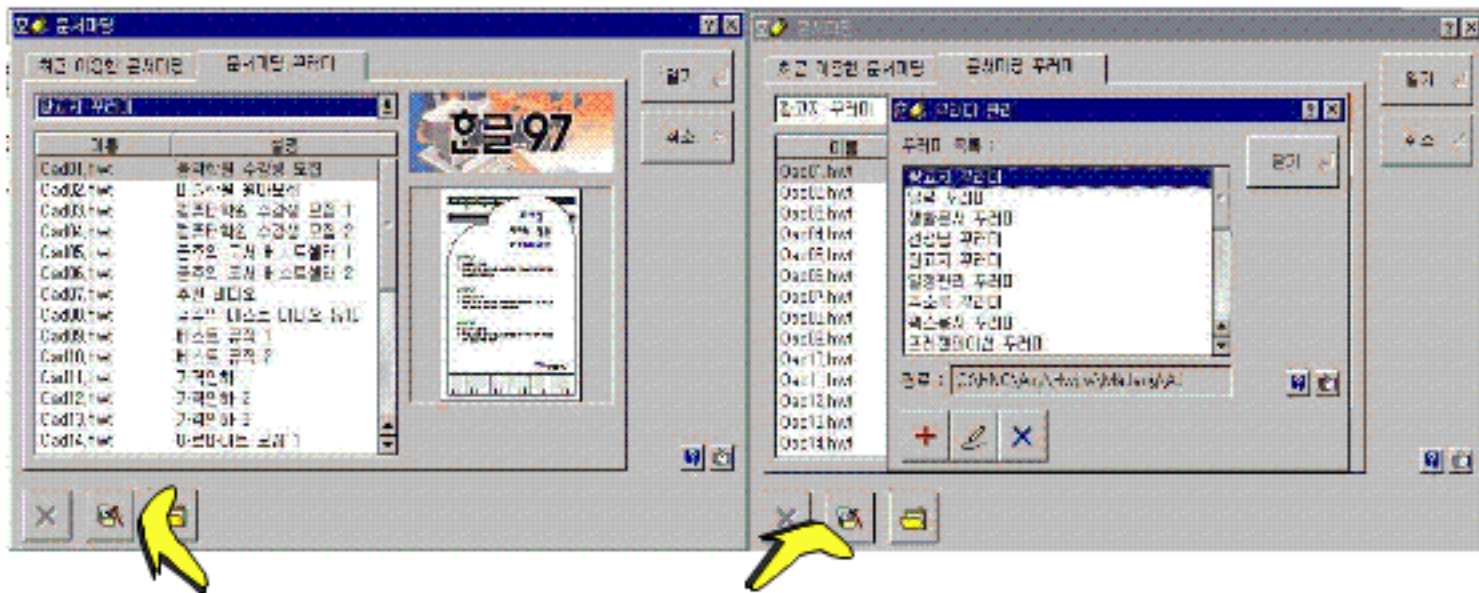
(1) 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사용자 이름 : 담임 목사 이름(한 칸씩 떼어서 기록)
- 직책 이름 : 목사
- 회사 이름 : ○○기지교회(해당교회이름)
- 부서 이름 : 교회

(2) 컴퓨터에 새로운 폴더를 만드시고 디스켓의 내용을 복사하세요.

(3) 문서마당꾸러미를 여세요(파일-문서마당, 단축키는 **Ctrl** + **Alt** + **N**).

(4) 문서마당꾸러미에 교회행정꾸러미를 등록하세요.



- 1) 「꾸러미 관리하기」 선택
- 2) 「꾸러미 추가하기」 선택
- 3) 교회행정문서가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한 후에 「꾸러미 이름」에 “교회행정꾸러미”이라 입력

2. 문서마당에 등록된 행정양식 목록

- (1) 회 의 록 : 공동의회, 회의록, 운영위원회회의록, 제직회보고서, 제직회회의록, 주간재무보고서, 지출결의서, 지출청구서,
- (2) 목회관련 : 교육관사용신청서, 교회사용신청서, 교회연혁록, 기부금납입증명서, 문답신청서, 상장대장, 새 신자등록카드, 세례교인명부, 세례증, 예배일지, 유아세례명부, 장비비품대장, 전입신병설문지, 학습교인명부, 학습증
- (3) 교회학교 : 교사등록대장, 교사환경조사서, 교사회회의록, 교회학교주간평가서, 생활기록카드, 행동관찰기록, 행사결과보고
- (4) 공군행정 : 시무신청서, 임직자추천서, 장로시취청원서, 장로시취추천서, 장로허락청원서

3. 활용방법

- (1) 쉽게 불러오기 : **[Ctrl] + [Alt] + N**
- (2) 단축키가 생각나지 않을 때 : **[F10] - 파일 - 문서마당**

- (3) 문서마당꾸러미에서 교회행정꾸러미를 선택하고 해당 문서를 불러다 편집, 저장하면 됩니다.
- (4) 교회이름, 담임목사이름, 직책은 자동으로 개인정보에서 불러옵니다.

부록 6

열린 예배

1. 일반 사항

가. 일시 : 2000년 8월 27일 19:00

나. 장소 : 공군 본부교회

다. 대상 : 공군 본부교회 성도 - 평균 연령 30대 후반-40대 초반

라. 예배 주제 : 믿음.

2. 열린 예배 순서

찬양(찬양단) → 기도 → 성경봉독 → 찬양(성가대) → 선교 → 광고 → 찬송 → 축도

3. 주요 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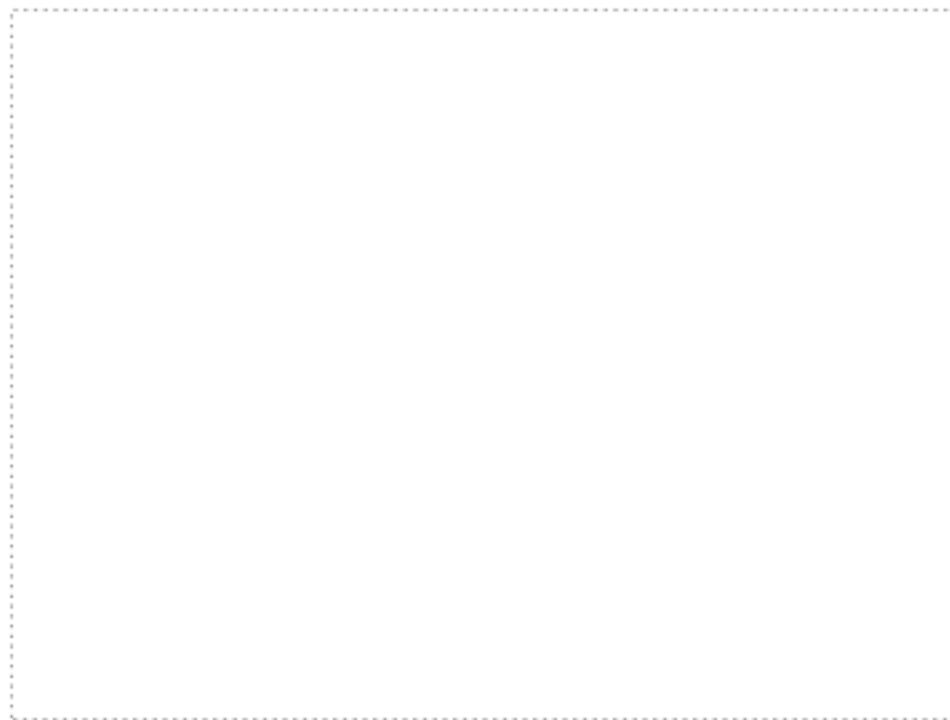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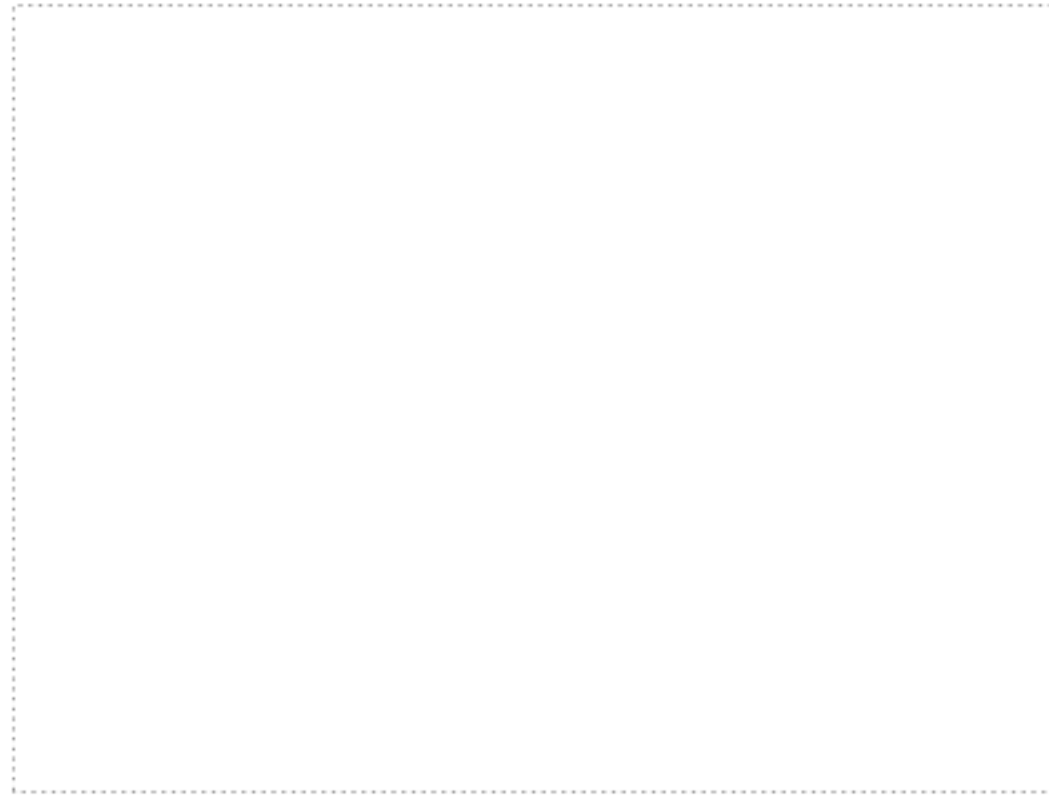
가. 찬양

(1) 찬양순서

	곡 명	코드	진행방법	시간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F	① 성경구절을 읽으므로 시작 ② 후렴구부터 시작한다(3회) ③ 앞부분으로 다시 시작한다. ④ 성령님께서 예배로 이끄시도록 의뢰하며 기다린다	5분
			골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곡 명	코드	진행방법	시간
감사	주를 찬양하며	F	① 앞 찬양과 부드럽게 이어 찬양 ② 자연스럽게 몸찬양으로 ③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도록 인도한다. ④ 눈을 감고 혼성화음을 넣어 찬양한다 (또는 무반주찬양).	3분
멘트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어제든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실 아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권면과 확신	기뻐하며 왕께	G	① 드럼으로만 intro. ② 흥겨운 리듬으로 인도 후 악기 와 함께 찬양 ③ 몸찬양/기쁨으로 드리도록 ④ 2회 정도 반복 찬양	4분
	승리는 내 것일세	G	① 빠른 템포로 이어짐 ② 악기 빠지고 드럼과 목소리만 ③ 믿음/소망/권세 etc.....	3분
	우리함께 모여	G	① 몸찬양으로 ② 1회만 찬양/예배로의 인도	2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A	① 전주에서 코드변화(G→A) ②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③ 후렴구 반복 ④ 헌신의 기도로 인도	4분
멘트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단지 움직인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약하기 만한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짐과 고백	주님과 같이	G	① 기타반주와 singer solo ② 1회곡 / 간주 후 함께 찬양 ③ 성령님의 이끄심을 의뢰	5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G	① 후렴구 먼저 반복 ② 1절 반복 후 마지막으로	3분
	약할 때 강함되시며	G	① 조용히 인도하심 따라 시작 ② 눈을 감고 찬양 ③ 악기/ 색소폰 solo로 찬양 ④ 조용히 마지막 찬양	5분
멘트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루어짐이요,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선진들의 보여준 증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확신과 다짐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찬양 화면의 예



나.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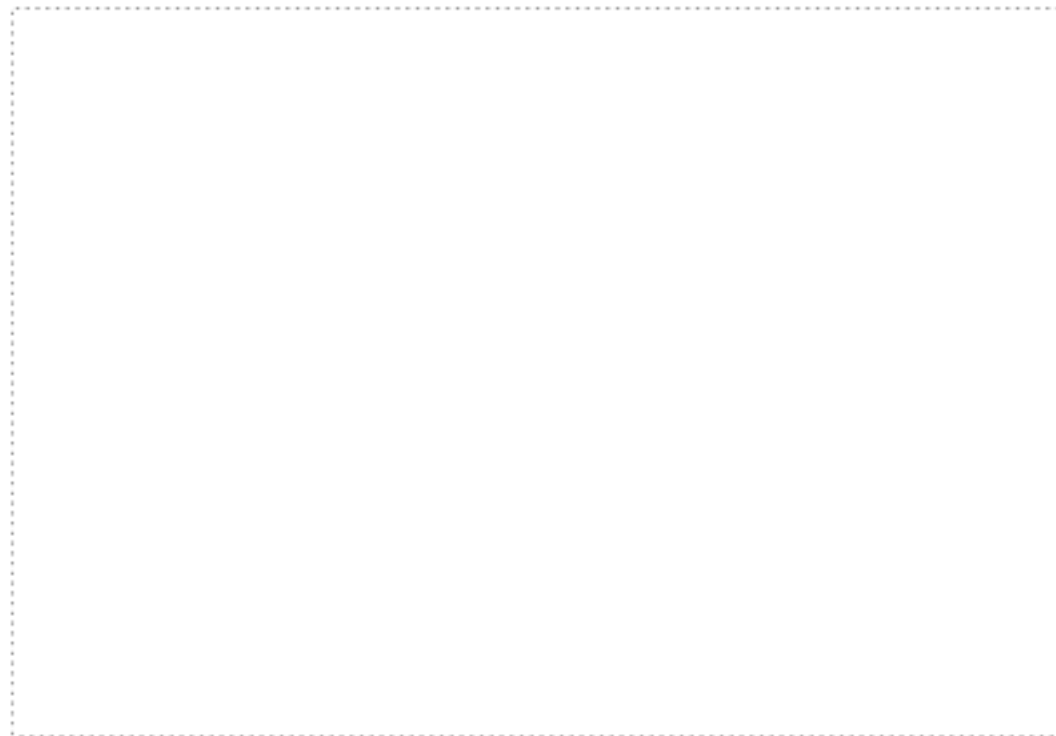
(1) 본문 - 다니엘 10:10 ~ 17

(2) 설교 제목 - 세상을 이기는 믿음

(3) 간증 - 박세호(장애인 올림픽 투포환 세계기록 보유자)

·Concept : 믿음으로 세상 혹은 어려움을 이겨낸 성도의 소개

·간증자 영상 I



· 내레이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두 다리와 왼팔과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낳자마자 남자아이라고, 우리 장남이라고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애가 점점 정상인과는 거리가 멀어 어머니는 초죽음이 되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세상의 대한 증오와 불신이 날로 커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애인 스포츠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증오와 세상에 대한 불신은 운동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의 목표는 88 서울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내 운동의 목표가 점점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계속 운동을 해야 하는지 계속 되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저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때부터 저의 목표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

는 항상 눈물과 땀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이 뒤따랐지만 오직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인내했습니다.

처음에는 곤봉을 던지기는커녕 잡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장애로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던졌습니다. 지금의 31미터가 저의 최고 기록이자 현재 세계신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저보다도 참 좋은 조건인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간증자 영상Ⅱ



·설교 후반부 삽입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강석영. "청년목회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 공군본부. 공군규정 2-86. 1992. 5. 20.
- 공군본부. 군인복무 규율 제2장 제4절. 1986.
- 공군본부. 참신한 공군문화 구현 대전: 공군교재창, 1997.
- 공군본부 군종감실. 공군군종사 제1집. 서울: 공군교재창, 1973.
- _____. 공군군종사 제2집. 서울: 공군교재창, 1986.
- _____. 공군군종사 제3집. 대전: 공군교재창, 1998.
- _____. 신임군종장교 안내서. 2000.
- 국방부. 국군정신교육교본. 1993. 11.
- 권이종.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양서원, 1996.
-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86.
- 김경모 외. 현대 사회학. 서울: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1989.
-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보이스사, 1985.
- 김득중 편. 마가복음 연구. 서울: 나단, 1992.
- 김선건 외. 새 사회학 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6.
- 김신호 편. 젊은이를 깨운다. 서울: 한세, 1994.
- 김재은. 우리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1996.
- 나필성. "신세대를 위한 설교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 남승희. 청소년은 누구인가. 서울: 서원, 1993.
- 문수홍. 한국사연습. 서울: 삼영사, 1997.
- 박수암. 마가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박형룡. 교의신학서론. 서울: 은성문화사, 1976.
- _____. 비교종교학. 박형룡 저작전집 vol. X. 서울: 기독교교육연구원, 1978.
-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한국의 군대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4.

- 심재천. "한국 공군 하사관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 양춘 외. 사회학 개론. 서울: 진성사, 1989.
-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79.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4.
- 유동식 외. 기독교와 한국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_____.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유용수. "공공조직내 집단간 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육군 사관학교. 한국군제사. 육본, 1977.
- 이규태. 한국인의 샤머니즘. 서울: 신원문화사, 2000.
- 이동희. 한국군사 제도론. 서울: 일조각, 1982.
- 이성희. 디지털 목회 리더십. 서울: 규장문화사, 2000.
- 이용원. "바울과 선교." 선교와 신학. 1998년 제1집.
- 이장현 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87.
- 이재윤. 군사심리학. 서울: 집문당, 1997.
- 이종인, 독고순. 직업군인의 전문 직업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 국방연구원, 1994.
- 임광진. 청소년 문화운동의 현장. 서울: 집문당, 1994.
- 장옥상. "군대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5.
-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8.
- 전영배. 한국사상의 흐름. 서울: 지구문화사, 1996.
- 정세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현대 한국윤리. 서울: 교육과학사, 1990.
- 정웅섭. 기독교 문화와 교육. 자유문고 vol. 4,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87.
- 정재식. 종교와 사회변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2.
- 조승옥. "군대윤리: 문민통제, 복종, 개인의 가치문제 중심으로." 육사논문집, 제27집, 1984.
- 채필근. 비교종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 최봉영.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사계절 출판사, 1997.

한국도서출판 중앙회. 새 국어사전. 서울: 한국도서출판 중앙회,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심리학. 서울: 서원, 1997.

황준연. 한국사상의 이해. 서울: 박영사, 1996.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6.

2. 번역서적

Bavinck, J. H. 기독교 선교와 세계문화 (The Impact of Christianity on the Non-Christian World). 권순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Dunn, J. 신약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김득중, 이광훈 공역. 서울: 솔로몬, 1988.

Glasser, Arthur F. and Donald A. McGavran. 현대선교신학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고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Hiebert, Paul G. 문화 속의 선교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채은수 역.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7.

Holmes, Arthur F. 기독교 세계관 (Contours of a World View),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7.

Ladd, G. E. 신약신학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이창우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8.

Lane, William L. 마가복음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Mark). 이상훈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Martin, Ralph P., 마가신학 (Mark - Evangelist and Theologian). 이상원 역. 서울: 엠마오, 1993.

McGavran, D. 교회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2.

McGavran, D. and G. G. Hunter. 교회성장학 (Church Growth).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Morris, Leon, 요한복음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 John). 이상훈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9.

Nicholas, Ron. eds.,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IVP, 1986.

- Niebuhr, H. R.,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Smalley, Stephan S. 요한신학 (John - Evangelist and Interpreter). 김경신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 Wagner, C. Peter, 기독교 선교전략 (Frontiers in Missionary Strategy).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 Walsh, Brian and Richard Middleton.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변혁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김항안 역. 서울: 글로리아 선교회, 1987.

3. 외국서적

- Dayton, E. R. and David A. Fraser. Planning Strategy for World Evangelization. Grand Rapids: Eermans Pub. Co., 1980.
- Nida, Eugen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Brill, 1964.
-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 I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Wagner, C. Peter and E. R. Dayton. eds., Unreached Peoples 1980. David C. Cook Pub. Co., 1980.

VITA OF
KI SIK WOO

Present Position:

Major, Republic of Korea Air Force
Chaplain, R.O.K.A.F. Chaplain Corps
Senior Pastor, Church of Air Force Headquarters

Personal Data:

Birthdate: July 29, 1964
Family: wife and two sons
Home Address: Air Force A.P.T 140-305, Namsunli Dumamyen,
Nonsan-City,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Phones: Church:(042)552-2883
Home :(042)551-2464
Denomination: Presbyterian
Ordained: Feb. 27, 1990

Education:

B.A.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7
M. Div.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0

Military Career:

July, 1990 - Jun, 1992: Chief of Chaplain, Air Force 30th Radar Site Wing

July, 1992 - Jun, 1994: Chaplain, Air Force Headquarters
Aug., 1992: Captain
July, 1994 - Dec., 1995: Chief of Chaplain, Air Force 8th Tactical Fighters
Wing
Jan., 1996 - Dec., 1996: Chaplain, Air Force Headquarters
Nov., 1996: Major
Jan., 1997 - July, 1999: Chief of Chaplain, Air Force Training Command
July, 1999 - present: Chaplain, Air Force Headquarters